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한 발짝 더 가까이, 응답자 속으로」를 내면서...



통계는 객관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보원(情報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변엔 정말 많은 통계들이 있으며, 우린 그것들을 당연히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응답자 여러분의 협조와 주야를 불문하고 동분서주하는 통계 조사원의 열정으로 만들어 집니다.

통계의 위력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기록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처럼, 조사현장에서의 조사원과 응답자 여러분이 통계의 위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짝 더 가까이, 응답자 속으로」를 발간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확한 통계가 만들어 지도록 협조해 주신 응답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사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마음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책 속의 체험 수기는 통계 조사원의 애환과 응답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통계자료의 소중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조사과정에서 조사원과 응답자의 사무적 관계에서 누구보다도 친밀한 인간적 관계로 발전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빠트리지 말고 꼭 적어주세요.” 처음엔 말로 했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미소로 대답하고 먼저 걱정해 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는 이 책 속의 글처럼 조사원과 응답자간의 끈끈한 애정으로 만들어진 통계가 결국 지역과 국가발전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2000여 통계 조사원은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해 시린 손을 부비며 굳게 닫힌 조사대상처의 문을 간절한 소망으로 두드립니다. 가끔 열리지 않는 문을 향해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때도 있지만 언젠간 마음을 열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번, 두 번, 그리고 또 한번 응답자 속으로 다가가는 당신들께 존경과 격려를 보냅니다.

끝으로 통계조사 협조는 물론, 진솔한 조사 체험수기까지 허락해 주신 응답자 여러분과 바쁜 와중에 눈물겹고 감동스런 조사현장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준 조사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

통계청장 이 인 실

# 한발짝 응답자 속 너 갓까이, 으로 Contents

## 조사원

명품 조사를 꿈꾸며	김경란	8
간현마을 사람들	송영춘	14
사탕 한 개	백명순	19
땅과 대화하다	박은영	25
<u>스스로</u> 당당해 질 때까지!	임윤순	32
오늘보다 더 소중한 날이 있을까요?	송향희	37
통계청 찐드기	유경자	42
통계에 대한 짧은 단상	도범태	47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남미화	54
다시, 그 집으로	이은이	59
그녀와의 만남	최유라	66
엉뚱 발랄 사오정	이혜숙	72
바쁜 여름날	여미숙	76



돼지와 장미	조현정	82
불응!! 그 끝을 없애는 날까지...	신정림	86
보고 또 보고! 마음의 거리 좁히기	박정선	91
콩 심은 데 왜 팥이 났지?	김남주	96
가짜 며느리	오은영	99
현장조사의 버팀목	고선영	102
응답자와 통계조사관이 소통(疏通)하는 세상	임준석	105
이게 자네 천직이야	김애아	108
열려라 참깨!	조혜경	112
나는 농사꾼!	박미정	118
“니하오! 통계청입니다.”	이인옥	123
조사 설득의 양면성	김낙은	128
그녀가 통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임선영	137

## 응답자

일일연속극이 된 전자가계부	송미정	144
좋은(Good)것과 위대한(Great)것	김정순	148
나는 까칠 응답자다.	장규석	152
외침	이혜정	158
전자가계부 적으면 부자가 되요!!!	이지은	163
전자가계부야, 반가워!	이미나	167
전자가계부의 매력	조윤희	170
행복을 심어주는 가계부	오인수	173
미래를 여는 꿈의 열쇠	서은순	176
태교로 시작한 가계부	권미옥	180
새로운 인연	손영자	183
어가경제조사차 방문	김창선	185
오만원의 행복	윤화자	188
다음 휴가는 어디로 갈까?	한성순	194

# 한발짝 더 가까이, 한응답자 속으로



## 조사원

김경란, 송영춘, 백명순, 박은영, 임윤순, 송향희, 유경자,  
도법태, 남미화, 이은이, 최유라, 이해숙, 여미숙, 조현정,  
신정립, 박정선, 김남주, 오은영, 고선영, 임준석, 김애아,  
조혜경, 박미경, 이인옥, 김나은, 임선영





## 명품 조사를 꿈꾸며

김 경란 | 동북지방통계청 삼척사무소

지난 주 까지는 벼 베기를 하시더니 이번 주에는 깨를 터시느라 할아버지의 손이 분주하다. 남들처럼 반듯반듯한 바둑 논이 아니라 꼬불꼬불 산비탈 조각 퍼즐 논을 가꾸는 조사구 가구주이신 칠순 할아버지.

땅을 놀리면 하늘로부터 별 받는다고 올해만, 올해만 반복하며 봄이면 벽씨를 담근다. 남들은 이앙기와 콤바인으로 농사를 짓지만 할아버지의 논은 이앙기가 심지 못한 꼬불꼬불한 모서리마다 손으로 벼를 보식해야 하고 콤바인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 낫으로 벼를 베느라 며칠동안 허리를 폐지도 못하게 한다. 마음이야 하루에도 논 서마지기도 베고 남겠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고 힘도 움직임도 예전 같지 않아 논 한마지기 베는 데도 한나절이 짧기만 하다. 어디 그뿐이라! 일년 내내 밭농사로 손끝에서 일이 떨어지지 않는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예 밭에서 산다. 해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들·딸에게 보내던 콩이며 옥수수 그리고 쌀, 어느 것 하나도 보내지 않으면 자녀들이 아쉬워 할

것이라며 농사를 줄이지 못한다. 새벽 일찍 밭에 나가 곡식보다 먼저 자라는 풀을 뽑다보면 어느새 해는 중천, 관절염으로 아픈 다리로는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는 것도 힘들어 찐 감자 몇 개로 허기를 달랜다. 오늘 다 하지 않으면 여름 장마에 며칠은 일하지 못한다고 서둘러 옥수수 밭과 감자밭을 메고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집으로 돌아오는 노부부를 기다리는 것은 텅 빈 집. 밥 해 놓고 기다리는 가족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밥하기 귀찮아 라면 하나 끓여 소주와 함께 저녁식사를 대신한다. 정형외과에서 보는 엑스레이 뼈 사진 같은 팔, 어린시절 작두질하다 다쳤다는 마디 하나 없는 손가락과 뒷아버린 손톱. 할아버지의 손에 있는 숟가락도 무거워 보인다.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니냐고 이젠 농사를 좀 줄이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할아버지의 농사는 해마다 줄지 않는다. “이 목숨이 끝나야 농사도 끝나지...” 정말 할아버지에겐 농사가 자식이고 목숨이다.

내가 조사하는 농가경제 조사구에는 70대 이상 노령가구가 대부분이다. 이런 분들에게 난 통계조사를 한답시고 일계부를 들이 밀어야 한다. 오늘 풀 뽑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비료는 뿌렸는지? 콩은 몇 되나 털었는지? 농약은 무엇을 뿌렸는지? 단가가 어떻고 수확량이 어떻고, 쌀은 얼마가 남았는지? 물어봐야 할 것은 왜 이리 많은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농사일로 너무 바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힘든 생활의 유일한 친구 소주를 병체 들이 키고 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술 취하면 딴 사람이 된 듯 술주정까지 하는 남편이 못내 불만인 할머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기억

나지 않는다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할머니에게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지 깁깝하기만 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으로 정해진 이상 포기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사를 게을리 할 수도 없지 않는가? 마음만 급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쉽지 않다. 또한 농가경제 조사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비조사는 조사가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 거의 가족과 같은 친밀감이 없다면 불가능 하다. 하지만 땅만 보고 살아온 그 분들의 폐쇄적인 생활습관은 조사를 한다고 방문하는 공무원이 불편할 뿐 아니라, 정확한 무게와 금액, 시간 등 숫자에 대한 개념도 거의 없는 편이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농가경제조사를 하려면 가족이 되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친절보다는 그들의 기쁨과 이픔을 가슴으로 함께 나누어야 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음에 행복해야 한다. 농번기에는 비료, 농약, 설탕, 라면 등 물건을 대신 사다 주는 심부름꾼, 그리고 짐장을 하거나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내 일처럼 기억했다 함께하고, 몸이 불편한데도 그냥 참고 있을 땐 설득하여 병원에 모시고 가고, 각종 봉사단체의 이발 봉사와 의료 봉사에도 모시고 가서 땀처럼 며느리처럼 그림자 봉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고령자 무료 독감예방주사도 날짜를 잘 기록했다가 모시고 가서 접종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함께 살았다. 차가 없어 집 나간 손주를 찾아 나서지 못하고 빨만 동동 구르는 어머니를 위해 늦은 겨울밤 파카를 입고 현관문을 나서기도 했다. 정기적인 방문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때면 ‘올 때가 됐는데 ……’ 하며 마을 입구로 마중을 나와 있는 대상 가구원의 손을 덥석

잡으며 친부모님 이상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조사를 위해 방문할 때 그 분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들로 해를 넘기고 보니 혈연의 가족보다 더 진한 통계의 가족이 되었다. 통계조사라는 것이 가구원만의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농기본조사와 같은 연관 조사를 하다 보면 주변 마을 사람들과 마주 할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는데 통계로 맺어진 5년간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가를 생각하며 마을을 드나들며 접하게 된 불합리한 마을 진입로의 정비, 청소년 비행장소로 되어 가고 있는 폐가에 대해 관할 지구 대에 도움 요청 등 마을의 큰 일꾼 되기에도 용기를 내어 봤다.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쉼 없이, 때로는 작은 일에, 때로는 큰일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조사구 교체로 표본이 바뀐 구 표본의 가구들에게도 생일 등 기념일이나 명절을 전후해 방문을 함으로써 ‘한번 통계 가족은 영원한 통계 가족’이라는 유머를 전하며 유대를 강화하기도 했다. 우선 내가 필요로 하는 조사만을 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명품 조사를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 보곤 했다. 명품은 혼이 깃들 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 가끔은 별 것 다 조사한다는 듯 귀찮다는 내색을 하기도 하지만 그럴때마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그것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파울로 코엘료의 글귀를 떠올리며 나의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다.

신 표본 교체가 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보니 기다리던 날이 왔다. 한 달 한 달 조사표가 달라지는가 싶더니, 엉덩이에 생긴 종기를 그냥 둬도 괜찮겠냐고 망설임 없이 팬티를 내리는 할머니, 너무 피곤해서 틀니를 뺐다고 쪼그라진

입으로 웃는 할아버지가 내게로 다가왔다.

“잊지 말고, 빠트리지 말고 꼭 적어주세요.” 처음엔 말로 했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미소로 대답하고 먼저 걱정해 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경로당이나 병원에서 만난 사람에게 망설임 없이 ‘우리 며느리’, ‘우리 딸’이라고 소개를 한다. 할머니께서 장날 시장 갔다 오자마자 혹시 잊어 버릴까봐 보따리풀기도 전에 일계부부터 적더라는 할아버지의 말씀, 생산비 대상 농가에서 잊어 버릴까봐 사료 짚단에 메모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요즈음은 도무지 기억을 못한다며 집 가는 동안 잊어버릴까봐 아들 차에 있던 휴지에 적었다며 두루 마리 휴지를 내미는 어머니에게서 조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여름 휴가지에서 우연히 만난 조사구 분이 친정어머니 손을 잡고 “정말 따님 잘 키우셨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하며 어머니께 감사인사를 전할 때, 나무에 달린 제일 크고 잘 익은 자두 하나 따서 손에 쥐어 줄 때, 어린 아이 손가락처럼 가늘고 작은 고구마를 한 봉지 담아주며 아이들 쪽주라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서 살아있는 부처를 느낀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쉽게 이루어 지면 가볍게 여기지나 않을까 긴 시간을 두고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특히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그들의 생활 속도처럼 천천히 그러나 쉼 없이 끈기 있게 다가갈 때 성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뼈를 태울 것 같은 한여름의 뛰약볕과 온 몸을 뿌리 채 흔드는 태풍, 어두운 밤 산골짜기 논의 무서움을 이겨내고 결실을 맺는 벼처럼 ‘명품 조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상처에 연고를 둔뿍 빌라야 한다. 그리고 조사구 분들에게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고, 막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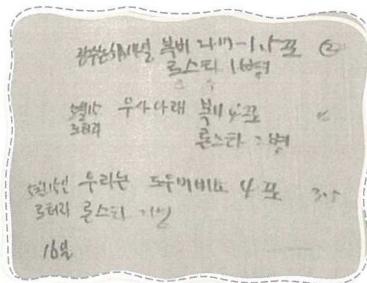
파워의 체력과 투지, 성직자 같은 포용력, 그리고 조사구에 대한 끝이 없는 사랑이 필요한 것 같다.

“어이 ~~~통계청!!! 우리 집도 통계 조사 좀 하게 해줘요.”

골목에서 들려오는 평소 말이 없던 동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힘든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두루마리 화장지가 메모지로,  
벗 짚단이 메모지로 둔갑했어요. ^^\*





## 간현마을 사람들

송영춘 | 동북지방통계청 원주사무소

가을빛, 가을볕의 따사로움 속에 간현마을 들녘은 지금 한창 머리 숙인 벼들의 황금잔치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 코 속 가득 싱그러운 풀잎 향기를 맡으며 아기 자기한 시골길을 접어 들 때면, 먼 길 떠났다 돌아오는 길목에 서서 내 집 언저리만 봐도 느껴졌던 편안한 안도감이 느껴지던 곳으로 회상된다. 꼭 다시 찾아뵙겠다는 인사를 뒤로 하고 무심히 지내버린 두 달, 잠시 잊고 있었던 마음 따뜻하고 정이 넘치던 간현마을 사람들을 그려본다.

소매 깃 사이로 승승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던 2009년 2월. 20년을 근무하던 춘천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낯선 업무와 낯선 사람들을 만났다.

이영호 아버님댁을 처음 방문 하던 날 친구 분들과 삼겹살을 구워 드시며 다가가는 낯선 얼굴을 향해 젓가락을 건네주시며 함께 먹자던 모습이 선하다. 매일 꼼꼼하게 가계부를 적고, 영수증을 챙기시고, 주무시다가도 미처 기입하지 못한 지출이 생각나면 주저 없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가계부를

적어주시고 표본대상이 아닌 가구에게도 통계청 흥보를 참으로 열심히 하셨다. “지금 어디냐, 온다고~~” 아직도 이영호 아버님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듯하다.

대문 앞 텃밭엔 아기자기 고만고만한 상추, 쑥갓, 아욱이 소담스럽게 자라고 2마리의 검둥이 흰둥이가 꼬리를 흔들며 먼저 반겨주던 박한빈 아버님댁은 80세가 훌쩍 넘은 연세에도 본인의 일기장에 가계 지출내역을 기록하셨다가 방문 할 때마다 날짜별로 내역을 또박 또박 불러 주시고 어린 초등학생처럼 나는 받아쓰기를 했다. 아버님의 일기책에는 “통계청직원 다녀간 날”이라고 아주 커다란 글씨로 나의 방문을 꼭꼭 체크해 주셨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의 등을 긁어 주시던 모습, 따뜻한 봄기운을 맞으며 노부부가 산책하시던 모습은 연동조사가 종료된 그 다음 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 정답던 두 분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언제나 “허허허” 큰소리로 소탈하게 웃던 아버님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맴돌고 있다

랫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이난구 어머님의 신발을 보면서 깔끔한 성격을 짐작했었다. 먼지 하나 없는 방안과 번쩍번쩍 빛이 나는 주방 어디하나 흐트러 짐 없이 깨끗했던 집, 깔끔 그 자체였다. 작년 말 가볍게 지나간 치매로 말이 어눌해지고 손에 힘이 없어 혼자 힘으로는 가계부 적기를 힘들어 하셨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방문을 하여 가계부를 적곤 했는데 어쩌다 기일이 늦어서 가게 되면 지출했던 내용을 잊어 버릴까봐 메모지에 그림처럼 써 논 글자를 내미셨고 미처 쓰지 못한 것은 냉장고에서 창고 방에서 사신 물건을 직접 꺼내들고 와서 보여주셨다. 손에 힘을 기르고 기억력 향상을 위해 하시던

숫자공부 책에 맞게 잘하였다고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어린아이처럼 너무 기뻐 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어느새 나의 얼굴엔 함박미소가 가득해짐을 느낀다.

7개월간 간현마을을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따뜻한 방이 있다. 연탄 가스 냄새가 슬그머니 들어오던 월세 단칸방의 주인은 곁으로 보기에는 아주 팔팔한 성격에 거칠어 보이는 말투가 매력인 안수연 어머님이다. 약속한 날 약속한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나의 핸드폰 액정화면은 어머님의 핸드폰 번호가 자리차지를 한다. 여자가 차를 운전하는 게 못 미더워 걱정을 많이 하셨다. 거의 다 왔다는 말에 “그려, 천천히 빨리 와.” 본인 말만 하시곤 뚝 끊어 버리지만 항상 어머님 댁에 도착하면 텃밭에서 키운 아삭 고추와 바글바글 끓고 있는 호박된장찌개가 담긴 뚝배기가 나를 맞이하곤 했다. 내년에는 원하시던 임대아파트에 꼭 입주하셔서 연탄가스 냄새에서 벗어나 편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래 본다.



추봉임 어머님과 함께

“어서와~” 두 손을 내밀며 맞아 주시는 추봉임 어머니! 위암 수술로 항상 기력이 없고 하얀 얼굴이지만 힘든 표정 하나 없이 밝은 얼굴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가끔씩 떨어 보내주는 용돈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는 터라 매월 딥레恫으로 나오는

일만 오천 원 상품권이 너무나 소중하고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며 항상 손을 꼭 잡아 주시며 고마움을 표시하셨다. 이웃께서 막 벼무려 갖다 주신 오이김치를

스스럼없이 손으로 집어 나의 입에 넣어 주신 오이향기가 아직도 입속에서 맴도는 듯하다.

얼굴에서 풍기는 넉넉함과 포근함이 한결같은 분 김명순 어머님은 7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직장을 다니셨다. 가계부 회수 시마다 우유함속에 가계부와 함께 먹을 것을 함께 넣어 두시고 간단한 메모를 남겨 놓으셨다. 어떤 달은 빵, 어떤 달은 바나나를, 어떤 달은 초코바를. 조사를 다니다보면 점심을 거를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에겐 어떤 만찬부럽지 않은 영양만점 간식이 되었다.

간현 국민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간현 조사구는 관광지로 유명하리만큼 경치가 아름답고 사람들의 인심 또한 후한지역이었다. 나에겐 행운이었을까? 처음 타지로 발령 받아 처음으로 해보는 가계조사 업무를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줬던 간현마을 사람들. 그리 길지 않은 7개월간의 정든 간현마을을 뒤로 하고 돌아오면서 자주들러 얼굴도 보여드리고, 지나간 얘기도 들어주고, 말벗이 되어 주리라고 다짐했건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그리고 있다.

그 사이 나는 새로 맡은 신포본조사 지역을 다니고 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문조차 안 열어 주는 사람들, 울그락 불그락한 얼굴로 열을 올리며 못해 주겠다는 사람들, 전화해도 통계청 단어만 듣고 뚝 끊어 버리는 사람들과 대면 할 때마다, 난 아직도 가슴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름다운 경관과 수려한 관광지 주변이 아니어도 좋으련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불응해 버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기약 없이 기다리는

날이면 한없이 그리워지는 간현마을 사람들...

과연 새로운 조사구에서도 좋은 사람들과 마음의 벽을 허물고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할 수 있을까?



# 사탕한개

백명순 |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2004년 1월 8일.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이라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날이다. 첫 출근길에는 눈이 내렸었다. 혹여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진 않을까 조심스레 한발 한발을 옮겨 갔더랬다. 마치 아기가 처음 발걸음을 떼서 아장 아장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조금은 당차고 대범하게 그렇게 쌓인 눈을 꾹꾹 눌러가며 한걸음 한걸음을 옮겼다. 어쩌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지나간 발자국에 떨쳐버리고 싶었는지도...

걱정과는 달리 나의 첫 출근은 모두의 환영으로 시작되었다.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나의 첫 직장생활은 재미와 흥미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업무는 달랐다. 나에게 처음 주어진 업무였던 농가경제조사. 모두들 기피하는 업무라는 말을 너무 많이들은 턱에 선입견이 생겨서일까. 지침서를 몇 번을 읽어봐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 할 수가 없었다. 무작정 현장업무를 하기 보단 지침을 숙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을 보고 또 봤지만 그때

마다 좌절하고 또 좌절했다. 용어부터 생소했으니까. 순간 무슨 용기나 났을까.

‘그래 한번 해볼까? 부딪혀 볼까?’ 리는 생각이 들었다.

무작정 출장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당시에 차가 없었던 나는 버스를 타고 출장지를 향했다. 천안시 북면. 동네를 향하는 내내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한해의 분주했던 농사가 끝나고 하얀 눈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시골마을. 모처럼 만의 여유를 찾은 듯 보였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참으로 정감 가는 곳 이구나. 동네만큼이나 사람들도 정이 많을 거야. 속으로 주문을 외웠었다. 인수 당시 부재중이었던 터라 전담당자 없이 처음 대면해야 하는 농가. 가구의 특성을 보니 60대 부부와 80세가 넘는 할머니가 함께 사는 가구. 여느 시골마을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집인 듯 했다. ‘음...! 음...!’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예쁘고 청량한 목소리로 “계세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마당에서는 훙~ 바람소리만 날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명하니 서 있다가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현관문 옆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삐그덕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다. 할머니 한분이 앉아 계셨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할머니~ 안녕 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는 누군지 묻지도 않으시고 집에 아무도 없다며 나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셨다. 그러더니 내손에 조용히 사탕하나를 쥐어 주셨다. 손녀딸 생각이 나셨던 것일까? 조금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감사하게 사탕 하나를 받았다. 이방인에게 거부감 없이 대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내 긴장감도 어느 정도는 시들해진 듯

했다. 아들 내외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 말동무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할머니가 주신 사탕을 까서 입안에 넣었다. 그 순간 대문소리가 들렸다. 가구주 아저씨와 아주머니였다. 커다랗고 꽉 찬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오시는 품이 읍내에 나가 장을 보고 오신 모양이다. 아저씨는 한잔 걸치셨는지 얼굴이 발그스레해서 내가 옆에 없는 듯 곧장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셨고 아주머니는 그런 아저씨를 보면서 투덜투덜 거리셨다. 한참을 그러고 나서야 문득 이방인이 찾아온 것을 발견하셨는지 나를 보고는 “누구세요?” 물으셨다. 나는 통계청 직원이며 담당자가 바뀌어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말씀 드렸다. 아저씨의 술 때문인지 아니면 나에 대한 경계심인지는 몰라도 한참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아주머니는 이젠 그런 거 안 쓴다며 나와 눈도 마주치질 않았다.

“저기. 근데요. 이게 안 한다고 안할 수 있는 게...” 순간 내 말에 더 화가 났는지 “아니!!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하는 거지!! 억지 쓴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요. 아가씨! 처음부터 일계부 쓰는 거 내키지 않았는데. 사람도 바뀌었다니까 다른데 가서 알아봐요. 가계부 써봤자 아저씨 술값밖에 안나오니까 별것도 없고, 아무튼 난 안 써요. 안 써!!” 이러고는 아주머니도 집안으로 들어가셨다.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입안에 녹고 있는 달콤한 사탕조차 쓰디 쓴 약처럼 느껴졌다. 방안에 있는 할머니께 다음에 오겠다는 인사만 드리고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다른 농가도 방문을 드려야 했지만 더 이상 사람을 만날 용기가 나질 않아 사무실로 들어갈 생각에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는데 왜 하염없이 눈물만 났던지. 내 자신이 한심하고

왜 그렇게 작게만 느껴졌는지. 버스에 올라서도 눈물은 그치질 않았다. 창문에 비친 울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한 없이 작고 가엾어 보이는 내 얼굴. ‘바보, 바보.’ 이 말만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래. 내게 화를 내시는 아주머니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마치 뭔가 큰 잘못을 한 아이가 어른 앞에서 꾸중을 듣는 것처럼 그저 고개 숙이고 서있었을 뿐이다. 아무 말도 못한 채...

다음날 나는 출근하자마자 출장가방을 챙겨 또다시 농가를 방문 했다. 오늘은 절대 그냥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살짝 열린 대문 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니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신지 여전히 방에 혼자 앉아 계셨고 아주머니는 청국장을 띄울 콩을 삶고 계셨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웃는 얼굴로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역시나 아주머니의 반응은 냉랭했다. 그냥 돌아 가리는 말뿐 내 얘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사무실에서 준비해 온 통계자료며 통계조사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들었지만 아주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짜증만 낼 뿐이었다. 결국엔 또 마당에 홀로 남겨졌다. 한참을 서 있다가 옆을 보니 방안에서 혼자 앉아계신 할머니께서 오라고 손짓하셨다. 그리고는 또 사탕 한 개를 내손에 꼭 쥐어주셨다. 할머니의 손은 비록 거칠고 딱딱했지만 지금 순간만큼은 그 어느 손보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그렇게 한참을 할머니와 마주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꼭 6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친할머니처럼 다정하고 따뜻했다.

그 후로도 난 줄기차게 농가에 방문을 드렸고 계속해서 아주머니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이젠 그런 반응도 일상이 된 것처럼 느껴졌고 헛별이 따듯한 날이면 할머니와 함께 마을 한 바퀴 산책도 했다. 마치 내 하루 일과처럼...

별 기대하지 않고 농가를 방문한 어느 날. 아저씨는 여전히 술에 취하셨는지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아주머니는 바짝 마른 빨래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지런히 놓은 영수증과 일계부가 보였다. 나를 보고는 내 앞에 일계부를 내미셨다. 오늘 쯤 올 것 같아 대충 적기는 했는데 보고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더 물으라고 하셨다. 일계부를 들춰보니 아주머니의 글씨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 순간 가슴이 찡하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나를 보고는 아주머니는 안쓰러웠는지 휴지를 건네면서 “아직 애네. 애야.” 그렇게 마음이 여려서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며 편잔 아닌 편잔을 주셨다.

그리면서 요즘 큰아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아저씨도 술 드시는 일이 잦아서 심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으셨단다. 여기저기 신경 쓰기도 쉽고 만사가 귀찮아서 통계청 직원한테까지 그 불똥이 튀었던 것 같아 내심 미안함을 표현하셨다. 호되게 거친 소리 듣고 뒤돌아 가는 통계청 직원을 보면서 맘이 편치만은 않았다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방문하고 또 방문하면서 할머니와 말동무 해 주는 게 대견했다는 아주머니의 말씀.

그 얘길 들으니 그 동안 내가 너무 아주머니께 사무적으로만 대한 것은 아닌지, 무조건 해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처럼 일계부 작성만을 강요하진 않았는지, 왜 인간적으로 먼저 다가서려고 하지 않았는지 후회스러웠다.

그랬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다면 어쩌면 아주머니의 마음의 문이 조금은 더 일찍 열렸을지 몰랐을 일이다.

그 후로 출장을 갈 때면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종합캔디 한 봉지를 사들고  
갔고 한참을 할머니와 말동무도 해드리고 아저씨 흥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아주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기도 했다. 집에서 나올 땐 꼭 한 주먹 사탕을  
움켜 쥐시고 내 손에 쥐어 주셨던 할머니. 그 후로 2년쯤 됐을까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비록 거칠었지만 따뜻했던 할머니의 손. 그 손으로 사탕  
하나를 내 손에 꼭 쥐어주셨던 할머니.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탕. 그 따뜻했던  
손은 잊혀지질 않는다.





## 빵과 대화하다

박은영 |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

2003년 4월 1일을 시작으로 어느덧, 제가 통계청과 인연을 맺어 근무를 한지도 벌써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길면 긴, 이 짧지 않은 시간동안 저는 결혼을 했고 한 아이의 엄마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출산휴가를 마치고 금년(2009년) 5월 업무에 복귀하면서 통계청에 근무한 이래 처음으로 들어보는 “작물재배 면적조사”라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작년 봄에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되어온 업무로, 저는 갑자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소한 업무를 맡아 할 생각에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특히나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어업 생산팀에는 여직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하기에는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업무라고 모두들 그러더군요. 하지만 저는 ‘못할게 뭐있어. 젊었을 때 모든 업무를 두루 맡아보는 것도 나중을 위해 좋은 경험이 될 꼴야.’라는 생각을 했고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여자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는 거야.'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인수인계 첫날!!

정말 그 날의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든 다짐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하루였습니다. 싱그러운 5월의 푸름을 만끽할 새도 없이 내리쬐는 태양 별 아래 긴 소매의 낡은 옷을 입고 밀짚모자를 쓰고 목에는 수건을 두르고 얼린 생수를 들고 인수인계를 받을 경지를 향해 나갔습니다. 한 필지의 밭에는 상추, 고추, 배추, 토마토 등의 채소와 팥, 강낭콩, 완두콩 등의 두류에 옥수수까지 가지각색의 작물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모두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키가 10cm정도 될까 말까한 새싹들이었습니다. 인계자는 저보고 이 새싹들의 이름을 알아 맞춰보라고 하는데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비슷 비슷하게 생긴 게 녹색이 연하고, 쪐한 차이던데요. “자세히 보면 잎의 색깔과 모양이 다르다.”라고 아무리 설명해주셔도 더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농부의 딸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골에서 자라 주말이나 방학이면 아버지를 도와 고추를 심고 물을 주고, 콩밭의 잡초를 뽑는 등 일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런 경험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물들 모두 면적을 알아야 한다 합니다. 상추는  $10m^2$ , 고추는  $320m^2$ , 배추는  $25m^2\cdots$ . 줄자와 보폭을 이용하여 길이를 재면서 온 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한 필지의 밭에 어찌나 많은 작물을 심었던지 25가지는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니길 한 시간 반이나 흘렸습니다. 이제 겨우 한 조사구만이 조사가 끝났을 뿐인데 이마와 등에 땀이 흘러내리고 현기증이 나고 다리는

힘이 풀려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짝도 내밀 힘이 없었습니다. 한 조사구의 면적은 약 2만m<sup>2</sup>로 그때 당시 44개의 조사구가 제가 맡을 업무였습니다. 그럼 총 면적은 대략 85만m<sup>2</sup>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대량으로 심은 밭작물들도 있겠고 논도 포함되어 있겠고 휴경지도 있겠지만 이렇게 넓은 땅이 앞으로 43개나 남았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많은 땅을 어떻게 돌아다니란 건지요. 조사를 나가기 전 인계자께서 “오늘 좀 힘들 거예요. 박은영씨, 각오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정도로 힘들고 경지가 넓은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인계자는 벌에 쏘이기 까지 했습니다. 뱀도 봤고요. 멧돼지의 발자국도 보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주위에서 여자가 하기엔 힘든 업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제가 인계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무래도 인계를 받는 도중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1박 2일로 설악산 대청봉을 오른 때를 제외하면 이렇게 많이 걸어다닌 날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수인계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때는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도 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이 넓은 경지를 저 혼자 다녀야 합니다. 조사해야 할 논밭은 평지뿐만 아니라 산골짜기에도 있었고 개울도 건너가야 했으며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밭 둘레에 철조망을 쳐놓거나 개를 뚫어두는 등 조사환경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게다가 인적이 너무 드물어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처럼 멧돼지한테 습격을 받는 날에는 꿈짝없이 당하는 것 아닌가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작물 이름도 모르고 면적도 절 줄 모르는 사람이 무작정 논밭에 나간다고 조사가 제대로 될 일도 없고, 이대로라면 처음 가셨던 각오대로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체력도 안 되고 아는 것도 없는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먼저 틈틈이 작물도감 책을 보고 작물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작물별로 파종기와 수확기 그리고 특징을 살피고 어떻게 생겼나 유심히 살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작물은 표시를 해두고 어느 것을 보고 구별 해야 하나 여러 번 익혔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시골 친정집 앞에 있는 텃밭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작물을 공부하기에 딱 좋을 만큼 매년 아버지께서 여러 종류의 작물을 심어 놓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신랑과 아기를 데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시골집에 가서는 부모님께 아기를 보여드리고, 어머니와 그동안 못한 수다를 떨고, 반찬을 챙겨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 앞의 텃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한 작물에 대해 하나하나 나름대로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아빠, 이게 강낭콩인가?”하면 아버지는 “응. 그래”하시고, “아빠, 이게 참외가?”하면 “그거? 야! 그건 참외가 아니고 호박이지. 어찌 너는 작물조사 한다는 애가 참외랑 호박도 구분을 못하나? 참외는 저게 참외지.” 하며 편찬도 듣고요. 그러면서 점점 작물 구별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정답을 맞히는 횟수도 많아 졌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사무실에서 챙겨온 줄자로 보폭을 이용해 면적을 채는 연습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작물파악에 익숙하지 않은 저를 위해 팀에서는 인수인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7월 조사를 동행해 주셨고, 9월 조사 시에는 조사기간 첫 날 팀장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 혼자 조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작물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업무는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여자에 업무 신규자인 저를 배려해주시느라 디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신 걸 알고 있었기에 계속 동행출장을 나가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만이라도 제 스스로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에 있는 밭에 갈 때를 위해 등산화를 챙기고, 개가 덤빌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등산지팡이를 챙기고, 얼음물을 챙기고 줄자도 챙기고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차게 “아자, 아자, 파이팅!!”을 외치며 조사현장에 나갔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2개월마다 강산이 바뀌었습니다. 5월은 새싹들이 넘쳐나고, 7월은 작물이 햇살을 받아 점점 키도 크고 색도 짙어가더니 9월에는 제 키를 넘는 작물이 우거졌습니다. ‘이곳이 지난번 내가 왔던 그곳이 맞나?’ 혼자서는 해당 경지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갔는데도 부족한 작물에 대한 지식. 작물은 매일매일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그 때마다 저를 도와주신 건 밭에서 일하고 계시는 농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밭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적어가는 사람이 이상해 보였겠지요. 저를 부르시더니 “지금 남의 밭에서 모하는 겁니까? 얼른 나가세요!” 하며 차가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통계청에서 작물조사를

나왔다며 세금과 상관없는 것이며 식량 수급 등 중요한 정책을 위해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쓰인다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위험하게 여자 혼자 여길 다니겠다고? 같이 나온 사람 없어?” 물으시고는 한참 제가 하는 모양새를 보시더니, “그럼, 우리 밭은 나랑 같이 다녀. 내 알려주마.” 하며 저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얼마나 심었는지 알려 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쉬었다 가라면서 음료수를 주셨고 또 어떤 분은 포도를, 어떤 분은 고구마에 밤도 주셨습니다. 모르는 작물이 나오면 바로 주변에 계신 농민들에게 물어 봤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몰래 한 가닥 뜯어와 팀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사를 하다 보니 어느 덧 순조로이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잊으므로 산다.’라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모든 건 마음 먹기 나름이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조사를 순조로이 마친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작물조사를 하는 기간 내내 몸살을 앓는 것처럼 온 몸에 알이 배겨 아침마다 출근하는 것이 곤욕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나는 여자이고, 출산한지도 얼마 안됐고, 체력도 약하고 그래서 이 조사를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지금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모든 작물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산짐승의 무서움을 떨쳐내지도 못했습니다. 그 넓은 밭을 면밀히 살피기에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 모든 일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성과가 아닐까요. 제가 초심만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 못할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



# 스스로 당당해 질때까지!

임 윤 순 |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불이 켜진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차분히 위층부터 층수를 세어 내려 온다. 15층 14층. 아! 1106호와 905호에 드디어 사람이 들어왔구나. 지금 시작은 열시 삼십분.

나는 오늘도 잠복(?)근무를 한다.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잠깐의 고민 후 일단 두 가구 먼저 만나보기로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간다. 두 번의 통화와 답장 없는 여러 번의 휴대폰 문자를 보냈던 가구다. 내일이 전자가계부 마감일. ‘이번 주는 야간근무라 가계부 마감이 어렵다며 그래도 어떻게는 써 보겠다던 가구.’ 오늘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역시 어려운가보다. 영수증 이라도 받아와 종이가계부로라도 제출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하는 여자아이의 목소리. “엄마 계시니?” 하는 나의 물음에 엄마는 오늘 일이 끝나고 약속이 있어 늦으시고 늦게 퇴근하는 엄마를 대신해 이웃에서

돌봐주다가 이제야 집에 들어 왔단다. 미리 전화라도 하고 올 걸 잠시 후회가 됐지만 언제나 귀찮은 듯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가구에 일단 만나보기로 하고 무작정 찾아 왔다. 할 수 없이 차안으로 되돌아와 짧은 숨을 내쉰 후 번호를 누른다. 역시나 들려오는 통명스러운 목소리. 회식 중이니 나중에 통화하자며 끊으려는 전화에 전자가계부가 어려우면 집에 있는 딸에게 모아뒀던 영수증이라도 주게 할 순 없는지 다급하게 묻는다. 싫단다. 내일 오후까지 가계부를 쓰든 영수증을 주든 해결을 해주겠단다. 속이 많이 상한다. 한 번도 제 날짜에 마감을 해주는 일도, 그렇다고 성실히 꼼꼼하게 가계부를 적어주지도 않는. 언제나 마감일이 다가오면 나를 애먹이는 가구. 오늘은 어떻게든 해결을 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 시각까지 기다렸는데. 이번 달에도 역시구나. 하지만 애써 태연한척 밝은 목소리로 내일은 꼭 부탁드린다며 회식 즐겁게 하고 조심해서 오란 말을 남기며 전화를 끊는다. 힘이 빠진다. 905호는 다음에 들려야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 지난 6년 동안의 일들이 짧게 스쳐 지나간다.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걸 내가 왜 해야 하냐며 소금 세례를 받았던 일이며 술 냄새가 문밖까지 진동하는 가구에 무서움을 무릎 쓰고 큰 맘 먹고 벨을 눌렀다가 평생 얻어먹을 욕을 다 먹고 허겁지겁 도망쳐 나온 일. 갑자기 서러움과 회의가 밀려온다. 그동안 겪었던 일에 비하면 그냥 웃어 넘겨도 될 일인데. 감기 기운 탓일까. 오늘은 쉬이 넘겨지질 않는다. 누군가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조사관이란 나의 직업.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봄늦게 기다려야 할 일도 자존심 버려가며 누군가에게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할 일도 없었을 텐데. 이 일이 과연 내가 꿈꾸던 일이었을까? 그리고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늦은

잠에 들 때까지 이런 물음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다.

눈을 뜨고 싶지 않은 아침이다. 천근같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출근을 한다. 볼을 스치는 상쾌한 바람과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눈부신 코스모스가 지금의 내 마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출근해 컴퓨터를 켜자마자 전자기계부 마감여부를 확인한다. 역시 기대를 쳐 버리지 않는다. 그래. 어제 회식이 끝나고 늦어서야 집에 들어왔을 텐데 가계부를 쓰기에는 이른 시간이다. 다른 일을 하는 내내 내 눈은 휴대폰과 컴퓨터에 가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도 들지만 언제부터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회수율에 마지막 남은 노력을 다해본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문자도 넣어본다. 벌써 오후 다섯 시. 이제 정말 마지막 재촉을 해야 할 때다. 하지만 선뜻 수화기에 손이 올라가질 않는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나의 무능함이 또 한 번 확인 될 때 밀려들 좌절감. 전화기는 꺼져있었다.

문득 따끈한 온돌방의 아랫목이 그리워진다. 산밤나무로 가득한 산길을 조금 오르면 낡은 한옥 한 채가 나온다. 그 곳에는 봄에는 밭두렁에 푸릇푸릇 돋은 향긋한 쑥을 캐고 여름에는 마당 한편의 작은 꽃밭에서 분꽃, 봉선화, 채송화를 가꾸시던. 가을에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대청 마루에서 마른고추를 다듬으시던 할머니가 사신다. 추운 겨울에는 손이 얼었다며 차가운 내 손을 잡아 이불안으로 넣어 주시던 할머니. 그럼 난 배를 깔고 누워 할머니가 내어 주시는 고구마를 먹으며 가계부를 써 내려갔었다. 빤한 살림에 씁쓸이라고는 병원비와 가끔씩 찬거리로 사드시던 두부와 콩나물이 전부이신 할머니. “인사 발령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하는 나의 말에 이젠 누구와 말동무를

하나며 서운해 하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그 할머니가 몹시도 그리워지는 오늘이다.

문자를 보낸다. 나의 진심이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잠시 떠올려보면 그래도 힘든 일 보다는 보람 있는 일이 많았다. 귀가 안 들리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따로 사는 자녀들에게 안부전화를 해드리면 고맙다며 잊지 않고 요구르트 하나를 손에 쥐어 주셨다. 힘들게 하우스에서 일하는 부부의 모습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 잠시 도와드렸던 것뿐인데 괜찮다고 마다하는 내게 별것 아니라며 차안에 실어주시던 방울토마토 한 상자. 이런 경험들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을 뛰어 넘는 자극제가 되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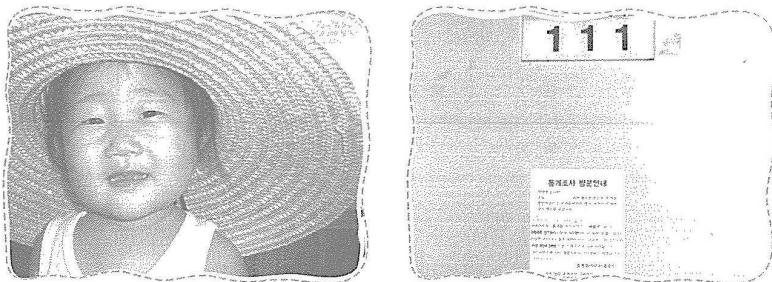
이곳으로 온지 6개월 남짓. 지역에 따라 조사환경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건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차이는 처음 발령을 받아 현장에서 느꼈던 생소함과 비슷했다. 가구에서 대접 받던 따뜻한 차 한 잔 대신 문 조차도 열어주지 않는 냉담함. 반쯤 열린 현관문 사이로 간신히 눈을 맞추어 조사해야하는 현실이 낯설었고 지금도 적응 중이다. 스스로 당당해 지기 위해 변화된 나를 꿈꾼다. 지금까지 습득한 경험 그 이상의 더 많은 경험과 공부가 필요함을 느끼며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 직무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 내가 평생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등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 한평생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평균 약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우리가 하는 일 중 가장 어려운 것은 그냥 스칠 수 있는 수많은 우연도 필요하다면 반드시 인연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오랜 수감생활 중이던 한 남자가 출소 전 옛 애인에게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줄 마음이 남아 있다면 집 언덕에 있는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어 달라.”는 내용의 편지에서 유래돼 기다림과 그리움의 상징이 되어버린 노란 리본. 나는 노란 리본 대신 노란 메모지를 현관문에 붙인다. 이 메모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처음 발령을 받아 농가를 방문 했을 때 만났던 정은이다. 안녕? 하는 나의 인사에 엄마 치맛자락을 꼭 잡고 뒤로 숨어 버렸던 부끄럼 많던 꼬마 숙녀. 빡빡! 소리가 나는 슬리퍼를 신고 아장아장 마당을 걷다가 이모 왔어~하며 건네는 막대사탕 하나에 특유의 천진한 미소로 나를 반겨줬었다. 가끔씩 힘이 들 때 꺼내보는 이 사진 한 장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 오늘보다 더 소중한 날이 있을까요?

송 향 희 |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방금 연동표본으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전주시에 위치한 가계동향 조사 구역을 다녀왔습니다. 두 달 써주시던 가계부를 야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밤 11시에나 퇴근하게 되어 힘들어서 도저히 못써주겠다는 말씀을 떨을 통해 듣고 왔습니다. 제 마음이야 그래도 한번이라도 더 부탁드리고 싶어 다음에 야간 업무 하지 않고 여유가 되시면 가계부를 다시 써달라고 당부하고 제 입장만 내세울 수 없어 나오긴 했지만 가계부를 회수 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11가구 중에 7가구라도 써주니 감사해야지.’ 하며 돌아 왔습니다. 가계부를 써주시는 댁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으시던지 또 다른 가사 사정들이 있지만 통계조사에 응답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니 제가 통계조사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10년 전쯤 표본을 새로 시작하는 곳이라 어렵게, 어렵게

가계부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익산시 송학동에서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슈퍼를 운영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슈퍼일이 많음에도 가게 일을 잘 돋지 않는 아저씨와 초등학교, 중학교 아들 둘과의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아주머니께서 가계부를 써주시게 되었는데 조사 때마다 뵈어도 좋지도 싫지도 않은 듯 냉랭한 표정으로 맞으시는 아주머니가 신침조사원에겐 참 어렵게만 느껴졌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소도 지어주시고 음료수도 건네시며 사이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주머니 자리에 아저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엔 아주머니께서 수척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선 위암 수술을 받으셨고,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아프신 아주머니의 건강이 안타깝고 염려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럼 가계부는 견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계부 회수 때는 되고 아프신 아주머니께 가계부 이야기를 드리기가 미안했지만 조심스럽게 가계부 얘기를 드리자 아주머니께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빈 날짜 없이 꼼꼼히 적어 두신 가계부를 건네 주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계시지 않았을 때 아저씨께서 기록 하셨는지 글씨체가 달리 쓰여 있었습니다. 걱정의 빙산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쁨과 아주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이루 다 표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주머니께서는 맥에서 쉬시면서 가계일도 잠시 보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프신 분 같지 않게 항상 웃으면서 맞아주시는 아주머니가 참 고마웠습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아주머니를 만나 뵈러 갔는데 아주머니는 계시지 않고 아저씨만 가게에 계셨습니다. 집으로 올라가 뵈어도 아주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께 아주머니 안부를 묻자 아주머니께서 위암이 재발하여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명하니 무슨 말을 할지 몰라 하는 내게 아저씨께서는 노란 가계부를 건네 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낯익은 글씨와 함께 아저씨의 거친 글씨가 어우러져 아주머니의 장례비용이 적힌 가계부를 받아들고 버스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시간 내내 하늘나라 가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며 가계부를 기록하시고, 아내를 잃은 가정의 슬픔 속에서도 가계부를 기록해 주신 아저씨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주루룩 흘러 내렸습니다. 그 후에도 아저씨께서는 통계조사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가계부를 잘 써주셨습니다.

나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가계부를 아주머니처럼 열심히 썼을까? 아주머니의 마음으로 써주신, 마지막 순간의 그 귀한 삶의 일분 일초로 써주신 가계부를 보면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수동적이고 형식적으로 대했던 마음 들이 무척 부끄럽고 그동안 응답해 주신 아주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가계부는 응답해주시는 분들을 진정으로 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내 형제 자매처럼 생각 할 수 있는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을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생각나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정성을 담아 가져가면 쉽게 시장을 볼 수 없거나, 용돈이 없어 사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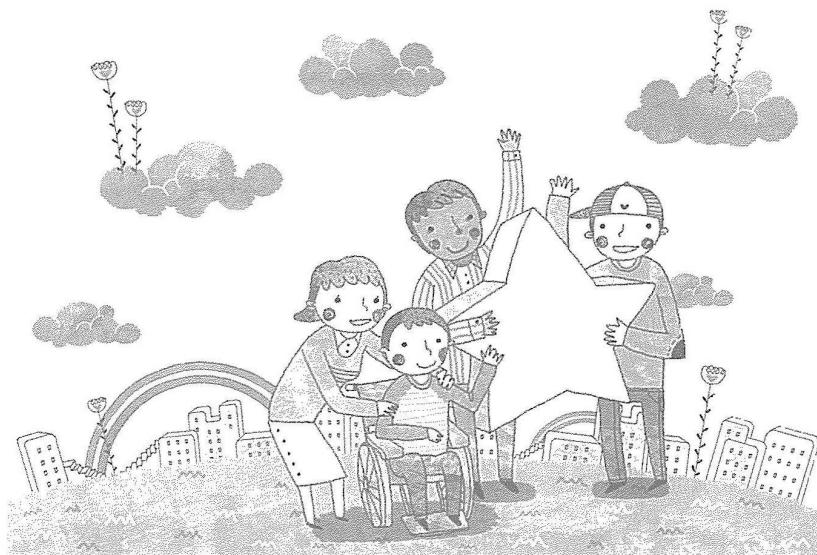
수 없는 형편이신 분들은 미안해 하시면서도 참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따뜻한 마음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이 참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어가서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다 통계조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쉽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쉽다는데 한 더 찾아뵈어서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없는 듯이 대하시는 응답자 분도 계셔서 조사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기도 떨어지고, 다시 그분을 찾아뵙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 18년이란 시간을 통계조사를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애를 먹여가며 안 해 주시는 몇몇 분들도 계시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정이 있고, 사건이 있어왔지만 하나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말없이 도움주시고 성심성의를 다해 응답해 주시 응답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현장 지침 중에서 언뜻 본 문구가 생각납니다. 현장에 나갈 때 마음가짐 중 하나가 ‘오늘도 나를 반겨주고 기다려주는 응답자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자매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써주신 아주머니의 가계부가 지금도 고맙고 앞으로도 잊혀지지 않을 것처럼 저의 삶의 소중한 시간인 현장에서의 만남이 오래오래 기억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보다 더 소중한 날이 있을까요?

세계의 갑부 빌게이츠도 집 없이 사는 노숙생활자분도 가장 원하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오늘, 소중한 응답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 감사드립니다.



# 통계청 찐드기

유경자 | 동북지방통계청 삼척사무소



조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좋게든 나쁘게든 세월이 흘러도 머릿속에 잊혀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묵은 얘기지만 그 조사구를 또 다시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로워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꼬집어내어 봅니다.

가계조사를 맡고 연동에 대한 지침도 제대로 숙지 못한 채 요도와 명부 하나 달랑 받아들고,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낯선 지역을 향했습니다. 요즘처럼 내이비게이션도 없이 몇 번이고 묻고 물어 찾아 간 마을은 '메밀뜰'. 옛날 메밀꽃이 하얗게 피어 마을을 아름다웠다는 '메밀뜰'은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집들의 모습이 그다지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삼사일을 쫓아다니며 요도를 그리고 명부를 작성해가며 마주친 사람들의 표정에서 경계하는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저울질해가며 가구 확인만 하는데도 마치 사기라도 치러온 사람 대하듯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난 굴하지 않고, 통계청 직원 조사원증을 목에 걸고

‘가계동향조사’ 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를 열심히 설명을 하며 조사를 이어 갔습니다.

몇 번씩 찾아드는 낯선 방문자에 대해 꺼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요즘 신분증도 위조 한다더라.” 며 공무원 사칭이지나 않을까 싶어 기본 응답마저 거부하는 사람들.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금융사기 등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가 팽배하다보니 이런 방문이 썩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도 한 장에도 쏙 들어오는 손바닥만한 동네지만 진짜 조사대상 20가구를 정해야 하나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은 반응에 고민스러웠지만 나름 구역을 정하고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소일거리로 즐기는 고도리 아지트에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첫 방문을 했습니다.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서 조사 목적을 설명해 드렸더니 이구동성으로 “여태껏 젊어서도 안 쓰던 가계부를 나이 들어 새삼 뭐 하로 쓰냐.” 며 빈정거림에 코웃음까지 쏟아지더군요.

“내 가정 살림살이를 내보이는 것이 싫다.” 며 거두절미하는 말, 아주머니들은 무슨 재미있는 얘깃거리라도 생긴 듯 신이 나서 다들 한마디씩 이어갔고 나는 조사는 커녕 입담 좋은 아줌마들에게 조롱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르리라고 생각지 않아 한 가구씩 따로 찾아뵙고 설득 하리라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한 가구 한 가구 발품을 팔아가며 노력하던 중

첫 부탁에 흔쾌히 승낙해 주어 기운 빠진 내게 힘을 실어주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입도 떼기 전에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 뭐 있나?”며 정부에 대한 불만 토로 해 가며 죄인 다루듯 혼을 내는 까칠한 성격의 전직교사 사모님!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계부를 들고 또 방문 하였는데 결국 죄악의 말까지 듣고야 말았습니다. “사생활 침해하지 말고, 그렇게 문전걸식하고 다니지 말라.”며 문전박대합니다. 순간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듣고 이러고 다니는 걸까하는 생각에 눈물이 펑 돌았지만 역지사지라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부터라도 선뜻 응수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쏘옥 들어가고 오기가 생겼습니다. 얼마 후 소장님과 동행할 기회가 생겨 설득된 몇 가구 인사차 찾아뵙고 문제의 가구를 방문했으나 여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젓기는 마찬 가지 였습니다. 전직교사 사모님으로 마을의 영향력이 있는 가구로 그나마 쓴다고 했던 가구마저 못 쓰겠다며 번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태껏 설득해 놓은 가구마저 수포로 되돌아갈 위기를 맞아 “통계청 친드기” 온다면 내가 나타나면 숨어버리는 가구를 찾아 또 다시 용기내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달 작은 아들 결혼식 있어 바쁘다며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를 내쫓기 위한 구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회다 싶어 시기야 언제든 상관 않고, 며칠 후 부조금 봉투를 건넸으나 막무가내 던지다 시피하고, 가계부 부탁 대신 축하드린다는 말만 건네고 내쫓기듯 돌아서 나와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붙여진 별명에 대해~ 누가 들어도 썩 기분 좋은 호칭은 아니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못살게 괴롭혔나 생각하니 조금은 미안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설득자의 입장이라며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1 구역이라 가계부 초입기에 임박하여 다시 방문 했을 땐 말은 안 쓰겠다면서도 받아놓으시며, 한결 부드러워진 언행에 조그마한 성의 표시에 마음을 담은 봉투가 빗장을 풀게 한 열쇠가 되었나보다 생각하며, 절반은 설득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기입지도 차 방문했더니 “나랏일하며 가구 경조사 챙기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텅 비어 있는 가계부를 펼치고 다시 한번 상세한 기입방법을 설명해드리고 부탁드렸더니 정부불신에 사생활 노출로 기피했던 맘을 접으시고, “찐드기 같은 조사원을 봐서 해주겠다.”며 승낙하셔서 내친김에 염치불구하고 비농가양곡까지 얹어 설명해 드렸더니 그마저 흔쾌히 받아 들여 주셨습니다.

이 한가구로 인해 그동안 갈등하던 가구들도 결론 내려주어 새털같이 가벼운 맘으로 돌아서면서 나의 찐드기 근성 아니었으면 이 기분 모를 거라고... 훗!

힘들게 했던 만큼 지금은 전자가계부 입력하시면서도 습관 된 종이가계부를 놓지 못하시며, 수지내역도 전월과 비교하며 퇴직 후 하루 일과 속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 같이 안되면 총알같이 달려오라며 전화하시고, 남달리 정성이시며 이제는 손가락 찔려가며 연필꽂이 하라며 통나무 연필꽂이를 손수 깎아주시고,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표현에 살갑게 안아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찐드기가 징그럽고 무섭지도 않으신지~ 호호

돌이켜보면 그 땐 힘들었지만 그 후 연동이나 불응 가구 설득하는데 그 때 생긴 면역력으로 이젠 웬만한 말은 들어도 상처받기보다는 디딤돌 삼아 끊고

일어서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는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가게부. 신뢰 속에 정든 조사구가 어느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여기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시는 것을 보면 아쉬움 때문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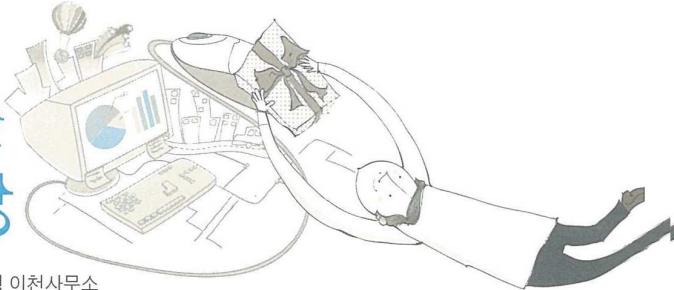
“이 다음에 또 돌아올지도 모릅니다.”라는 저의 대답은 서운함 때문이겠지요. 서로에게 정든 마음은 이별을 미리 준비하듯 말씀하십니다.

“여 떠나도 꼭 들러 달라.”는 당부와 “그 때쯤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지나치면서 생각하겠지. 옛날에 그런 할마씨가 여기 살았는 데라고.” 면 미래를 희고하듯 말끝을 흐립니다. 내 부모님처럼 가슴 따스한 사람들 사랑 합니다!



## 통계에 대한 짧은 단상

도 범 태 | 경인지방통계청 이천사무소



저는 지난 2008년에 정부조직개편으로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되어 근무하고 있는 ‘도법태’라고 합니다. 통계청 이관 전에는 농림부 고유 업무 즉, ‘원산지 단속, 친환경인증업무’를 위주로 근무하였으며, 통계업무 경력은 농림부와 통계청을 합쳐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통계조사 경력도 일천하고 아직은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단일 사례로 엮어나갈 수 있는 에피소드가 적어 각 소주제 위주의 제 경험과 생각을 서술하겠습니다.

## 조사자세

저는 농림부 근무시절 친환경인증 승인, 원산지 지도단속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민원업무나 단속업무의 성격상 농민이 원하여 인증신청을

받고,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다 보니 저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큰 권한은 아니지만 몇 백만 원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는 업무로서 기업으로 치자면 “갑”의 위치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7년 10월 승진하면서 전임자의 업무를 인수하는 것을 계기로 통계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 업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을”의 입장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 무척 생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 과거의 업무 자세로는 통계조사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여 업체를 방문하거나 가구를 방문할 때는 숨을 크게 한번 쉬면서 자세를 추스르고 ‘응답자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행동하자’ 라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 인연

제가 우위에 있던 과거의 업무는 잊고, 통계조사에 맞는 낮은 자세 혹은 동등한 관계에서 조사를 수행하다보니 물론, 비협조적이고, 냉소적인 응답자도 있었지만 우호적인 응답자를 만날 때는 오히려 단속업무만 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가벼운 농담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 즐겁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경험도 있었으며, 부담 없고 친근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산지쌀값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에 소재한 농협RPC를 자주 조사를 위해 방문하다보니 농협 직원과 아주 가까워져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사를 수행하다 보니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 중에 그 직원이 미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사를 위해 쭉 만나본 바에

의하면 매우 성실하고 성격도 좋아 호감이 많이 있었던 터에 “그러면 내 처제가 아직 결혼을 안했는데, 한 번 만나보실래요?” 하고 제가 먼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흔쾌히 소개팅을 하겠다고 하여 현재 교제 중에 있습니다. 만일 좋은 결과가 있다면 통계조사 덕분에 처제도 시집가고, 마음에 드는 동서도 맞을 수 있는 인연의 끈을 이어주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 카멜레온 같은 처세술

단속, 승인 업무를 하면서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통계조사 시 느꼈던 불쾌한 경우보다 더욱 더 험악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정육점에서는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까지 한다.”며 도끼칼을 휘두르는가 하면, 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협박전화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 덕분에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성격을 파악하는 능력이 많이 생겨, 통계조사 업무에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응답자의 첫 인상을 순간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예로 매월 도소매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들르는 가방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날도 조사를 위해 방문하였더니, 업주의 표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손님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마도 손님이 반품하러 온 것 같으니, 좀 있다가 방문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짝 눈인사만 하고 나와 맨 나중에 그 업체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업주가 “아까 왜 왔다가 그냥 갔어요?”라고 묻기에 “제가 보니까 조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왔습니다.”라고 하자 어떻게 알았느냐며 그 손님이 물건을 사놓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거나, 물건에 이상이 있다며 자주 반품을 요구해서 신경질이 난 상태였다면, 그 때 통계조사를 했다면 짜증이 났을 것이라며 이야기 해주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 문은 반드시 열린다.

단속업무 시에 경험했던 혐의한 경우 덕분에 상대가 어떻게 나오던지, 웃으면서 여유 있게 그의 말에 경청하고, 틈이 보이면 조사 취지, 목적, 사생활 보호를 통해 외부에 정보가 유출되거나, 세금부과 자료에 활용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등 결국엔 설득에 성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만약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다음에 안 되면, 다 다음에 조사할 수 있도록 끈질 기지만 기분상하지 않는 정도의 설득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사례로 올해 경제통합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업체를 방문하였는데 통계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협조문을 드리면서, 조사 내용은 일체 세금납부와 무관하며 외부유출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제 공무원직을 결겠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오라고 하기에 사전에 전화를 하고 방문 하였더니 흔쾌히 조사에 응해주었습니다. 결국 통계조사는 누가 얼굴이 두껍고 끈질기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 다양한 인간상

농림부 업무는 특정분야의 사람만을 상대하지만 통계조사는 사회 전반에 걸친 분야의 사람을 만나므로 공무원이라는 한정된 범위의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면 자칫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계조사 덕분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통해 더 넓은 사회를 배우는 간접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더욱 폭넓은 인간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요즘 제가 가장 자주 되뇌는 문구입니다. 통계조사라는 것이 응답자 입장에서는 시간이나 빼앗고,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돌아오지 않는 더 나아가 세무조사의 일환이라는 오해를 받는 업무이다 보니 조사를 나가기 전에는 ‘오늘은 우호적인 응답자들이 많아야 할 텐데.’, ‘만약 거부나 소극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출장을 나가서 막상 현장에 부딪혀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조사를 완료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일종의 카타르시스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 전에 걱정하고, 짜증났던 모든 일들이 새털처럼 날아가 버려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때면, “그래,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마음과 함께 자신감도 솟아오르곤 합니다.

## 필드(Field)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상상했던 공무원의 인상은 넥타이를 매고 사무실에 앉아서 기획하고, 기안하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발령을 받고 보니, 그런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20%도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일선에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본청과 현장 간에 융합이 안 되고 따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지행 합일(知行合一)’이라는 말이 있는데, field 즉 현장을 거쳐 이론을 겸비한 우수한 재원이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각종 통계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본청의 주된 업무이겠지만 그러한 이론을 현장에 접목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통계를 개발해야 통계청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저의 경우는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일선 사무소 직원들은 인사 및 처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기와 의욕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일차적으로 ‘밑에서 내부로부터의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지원과 도움 없이 통계청이 어떻게 외부의 환경과 싸워 이겨나가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통계에 대한 의견

저는 일단 통계라는 업무를 해보니 극과 극의 성격이 양립한다고 느꼈습니다. 학문으로서의 통계는 국내의 웬만한 대학에 통계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그 이론적 체계도 매우 발전하여 이미 튼튼한 반석위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

합니다. 반면에 조사로서의 통계는 전국의 농어촌의 빈촌의 집 구석구석, 열악한 영세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응답한 내역이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무성의 하게 답변하거나, 정부 불신으로 인해 생뚱맞은 수치를 답변하는 경우, 노령화로 인해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물론 재차 확인을 하지만 오직 응답자의 진술만을 의존해서 조사해야하는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응답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적용해야하는지 혼란에 빠집니다. 이럴 때는 '과연 이러한 조사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심각한 부정확성을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갈수록 심화되는 개인주의, 사생활보호의식, 정부불신, 냉소주의로 과연 10년, 20년 후에는 현재의 방식으로 정확한 통계자료가 생산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통계조사를 수행해야 보다 정확한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남미화 | 호남지방통계청 정읍사무소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시작으로 통계청과 인연을 맺은 지도 햇수로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각종 통계업무를 하면서 나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궁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궁정적인 사고의 위력은 2007년 농가경제조사 표본개편 시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맨 처음 조사구에서 가구일람표 작성을 위해 농가를 방문하던 중 만났던 한 농가를 생각하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 아버님은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여쭤본 말에는 대꾸도 안 하시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시며 아버님 하실 일만 하셨습니다.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불만을 다 들어 드리고 지금은 안 되겠다 싶어 다음에 또 찾아뵙겠다는 말을 남긴 채 대문을 나서면서 ‘제발 이 농가만은 표본농가에 선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못내 무거웠습니다. 그 후 표본 선정 결과 나의 바람은 뒤로 한 채 그 농가가 3호 표본농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벨는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걱정하던 농가에 들어서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아무 말 없이 제 곁으로 오시더니 다짜고짜 “할 말도 없고 택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다시는 오지 말라.”며 저의 등을 떠미시며 밖으로 나가 버리셨습니다.

한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며 아무리 다짐해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 계시던 어머님이 “저 양반이 성격이 급하고 요즘 여기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보상 건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러니 색시가 이해해. 본심은 나쁜 사람이 아녀.”라며 저를 집으로 들어오라시며 마실 것을 내오셨습니다. 그 조사구는 고창 고인돌에 위치해 있어 관광지구 개발로 시끄러운 상태였다는 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조사구 특성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내 잘못이 크다 생각하고 그 날도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다음 출장 시에는 출발하면서 가슴이 어찌나 뛰는지 청심환을 약국에서 사 먹고 3호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그 집 앞에서 심호흡을 하며 다시 한번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라며 들어섰는데 저번에 너무나 매몰차게 했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아무 말 없이 나가 버리셨습니다.

오늘은 꼭! 아버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라도 들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마당에서 땅콩을 따시는 어머님 곁으로 가서 같이 땅콩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시간이 흘렀을까! 점심을 드시려

들어오시는 아버님을 뵈며 “어디 다녀오세요?”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감추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 어이~ 배고파 밥 차려, 색시도 일했으니 밥이나 먹고 가.” 하시면 말코를 트시는 게 아닌가! 그 순간 나는 마당에 그대로 박혀버렸습니다. 점심을 함께 차려 먹고 말문이 트이신 아버님은 그렇게 자상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꼭! 우리 친정아버님 같으셔서 딸 삼기로 하고 일계부를 내 놓고 기입 요령을 설명 드린 뒤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충만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 그렇게 힘들게 설득했던 3호농가가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급하게 옆 동네로 이사를 간단다~. 그것도 조사구 밖으로 말입니다.

나는 어떡해, 어쩌면 좋아!!!!

대체 농가가 내려왔습니다. 바로 옆 마을로 경영주는 동네 바로 옆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며 어머님은 동네 부녀회장이셨습니다. 대체 농가에 방문해서 어머님께 농가경제조사에 대해 설명해 드린 뒤 일계부 기입을 부탁드렸는데 “나는 글도 잘 몰라.” 하시며 “나는 못쓰고 아버님께 써 주시라고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출장! 흔쾌히 승낙 하신 터라 별 다른 걱정 없이 3호 대체 농가를 방문 했습니다. 흙이 묻어있는 일계부와 답례품이 한 쪽 마루 끝에 놓여 있는 걸 보고 망연자실. 전 고인돌농가의 기억이 떠올라 다시 한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안에서 나오시는 어머님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미안혀~ 우리 집 양반이 이까 껏 받아 놨다고 집어던져서 책에 흙이 묻었고만. 어쩌까? 글고 이 선물도 가져가 못 쓰겄어. 다른 집 알아 봐.”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머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님 계시는 직장으로 찾아가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절대로 직장은 찾아오지 말라시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어찌해야 되나? 궁하면 통한다 했던가! 남편이 고인들 휴게소에 아는 분이 있어 그분의 도움으로 아버님과 함께 점심약속을 정하고 남편과 함께 나갔습니다. “우리 자식도 공무원이여. 아주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자식 생각이 나서 협조하기로 했어.” 반승낙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출장에 가벼운 마음으로 3호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일계부는 깨끗했습니다. 어머님께 수지 사탕을 여쭤보고 기입한 뒤 돌아 나오는 발걸음은 또 다시 무겁기만 했습니다. 경영주가 수요일에 쉬는 날이라는 말을 듣고 수요일에 빵과 음료수 사탕을 사 가지고 3호 농가를 방문하니 두 분이 다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이에요.” 라며 인사를 하고 “모처럼 쉬는 날인데, 저하고 드라이브나 갈까요?” 하며 너스레를 떨어 봤습니다.

약속을 못 지킨 미안함 때문인지 앉으라며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며 살짝 여쭙기를 “아버지 일계부에 돈 쓰신 거만 좀 적어주시면 안될까요? 어렵지 않은데!”라고 말씀 드렸더니 “나는 필체가 좋지 않아서!”

라며 머뭇거리셨다. 됐다! 그렇다면 쓸 수는 있다는 얘기 “아이고 아버님 나만 알아보면 되지 누구한테 연애편지 쓸 것도 아닌데요~ 뭐! 그럼 지금 한 번 써볼까요?” 하며 넣어두었던 일계부를 다시 평고 한자 한자 쓰시도록 지도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출장, 반신반의하면서 3호 농가를 방문 일계부를 펼치는 순간 일계부 속의 빼뚤빼뚤한 글자들은 이제껏 힘들고 어려움을 보상이라도 해 주듯 마음껏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을 기슴에 새기며 오늘도 나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 횃~팅 !!!...





## 다시 그 집으로

이 은 이 |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볼이 아릴 정도로 날씨가 쌀쌀하다.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과수 신규 표본 농가 선정을 빨리 끝내고 시범조사를 해야 하는데 일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 ‘아, 답답하다. 이제는 출장을 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무섭기까지 하네.’

처음으로 향한 집. 길안면 묵계리 김\*\* 집이었다. 동네가 다 아는 알코올 중독자다. “계십니까? 여기가 김\*\*씨 댁인가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아저씨.

“누구야? 누군데 날 불러재껴!”

“저어,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왜? 뭐 할라꼬? 내 술 사줄라꼬? 내 술 잘 먹는 거 누가 이야기했나?” 갑자기 명해져 말문이 막혔다. 풀어진 아저씨의 눈동자, 불쾌한 얼굴과 번져 오는

술 냄새 겁이 나기보다 어이가 없었다.

“그게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과수조사에 어르신 댁이 표본 농가로 선정되었어요.”

“통계청이 어딘지 난 모르고, 내가 알 이유도 없다. 술 안 사주려면 빨리 가라.” 매일 저지경이니 표본농가로는 실격이었다.

그 다음 농가. 이\*\* 댁이다. 40대 이혼남에 1년 중 반 넘게 떠돌아다닌다고 한다. 말 끝나기가 무섭게, “그 땐 것 필요 없고, 집 나간 여편네나 찾아 줘.” 다리에 힘이 쑥 빠졌다. ‘1농가 대체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다니...’

‘더 이상 예비표본으로 대체 할 농가가 없는데... 마지막 농가! 아자, 아자, 힘내서 다시 부딪쳐 보는 거야.’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권00 농가에 도착.

“안녕하세요. 여기가 권00 어르신 댁인가요? 저는 통계청에서 나온 조사원 이운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2009년도 과수 표본농가를 선정하고 있는데 어르신 댁이 표본농가 리스트에 있어서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려 왔습니다.” 내 얼굴에 지을 수 있는 가장 상냥한 표정으로 정중히 말씀을 드렸다. ‘역시나.’ 다. 화를 내면서 버럭 소리부터 지르신다.

“그런 거 할 처지도 안 되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못 마땅해. 농가 부채가 얼마나 많은데 빚이나 갚아 주든지 할 것이지, 쓸데없이 조사는 무슨 조사야.” 순간 당황해서 멍해지고 말았다.

“어르신, 정부에서 농민들을 더 잘 살게 하려면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에게 직접 조사를 하는 거구요.”

“내가 아줌마 보고 화를 내는 건 아니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목소리는 조금 수그러졌지만 태도는 여전히 완강하였다. 조사규모에 맞는 예비 표본 리스트 중 마지막 농가였다. 절박한 마음이 앞섰지만 쉽게 설득될 것 같지 않았다.

“제가 며칠 뒤에 다시 올게요. 그 때까지 생각은 해 봐 주세요.”

“올 필요 없다.” 걱정만 가득 안고 사무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3일 뒤 다시 길안면 북계리 권00 농가로 향했다.

“어르신, 잘 계셨어요. 통계청에서 다시 왔어요.”

“내가 못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런데 시간 낭비 말고 농가 부채나 탕감 해주지.” 또 부채 이야기다. 이번에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 육에다 잘 사는 사람들까지 몽땅 싸잡아 육을 하기 시작하였다. 맷한 게 많은가 보다. 오늘도 허탕!! 삼고초려란 말도 있지 않은가.

며칠 뒤 다시 길안면 북계리,

“또 왜 왔노? 오지 말라니까.”

“여기가 표본 지역이고 농가는 제 맘대로 고르는 게 아니거든요. 어르신이 아니면 안 돼요.”

“거참, 끈질기네. 이왕 온 거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 차를 내어주시며, ‘애들은 몇이며, 신랑은 뭐 하고, 시댁은 어디고, 이러고 돈 벌려 다니면 얘기는 누가 보며, 할머니가 애 봐 주면 용돈은 넉넉히 주냐.’ 등등, 시시콜콜 입맛대로 다 물어 보신다. 조사는 내가 해야 하는데 도리어 조사를 당하는 꼴이 돼 버렸다.

우리 일이라는 게 사람이 보이고 서로가 알아쳐야 되는 일인가 보다. 내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으시더니 난데없이, “뭐 조사하는데?” 하고 물으셨다. “과수 농사에 들어간 비용, 농작물 판매내역, 농기계나 농작업 등 농사 전반에 관한 것 이예요.”

“쓰는 건 못 쓴다. 대신 물으면 대답은 해 줄 수 있다.” ‘야호!’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낯선 냉대 3일째, 드디어 협조 약속을 받았으니 기장까지 다짐 받는 건 아무래도 과욕이겠지. 웬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

일주일 뒤, 일계부와 원부를 들고 다시 농가를 방문했다. 어르신이 포대기로 어린애를 들쳐 업고 나오시는 게 아닌가. 어르신의 손자 웅이였다. 남자 어른이 포대기에 어린애를 업은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조심스레 원부와 일계부를 꺼냈다. 보시자마자 이렇게 복잡한 건 못한다고 질려 하신다.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하고 안심시키고 조사를 시작했다. 사과나무는 몇 주, 농기계는 뭐가 있고, 언제 구입했고 등 조사가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았다.

“거참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가도 물어 보지.” 하고 편찬을 주시지만 화난 표정은 아니다. 그러다 원부의 부채 항목이 나왔다. 대수롭지 않게, “집집마다 빚이야 다 있는 거고 어르신은 빚이 얼마 있어요?” 하자, 순간 표정이 굳어지시면서 화를 내셨다.

“뭐어? 그런 거 조사 할라고 왔나? 나는 못 하겠다. 그만하고 가소.”

“아, 어르신 그런 뜻이 아니고, 촌에 빚 없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저만 해도

벗이 좀 많아서 생각 없이 드린 말씀인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30분 넘게 사죄를 드리고, 여르신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손자 웅이와  
열심히 놀아주기까지 했다. 이 분에게 빚은 돈의 문제이기에 앞서 자존심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렇게 힘겹게 퀘어진 첫 단추 이후에는 만사가 순조로웠다.

어느 덧 햇살이 나른한 봄.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차창으로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봄 내음에 한껏 취해 어느덧 권00 농가의 집이다. 오늘도 손자를 들쳐 업고 ‘아이구, 이 여사 왔니껴.’ 하고 반갑게 맞아주셨다. 변함없이 커피를 내오시게 한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어르신,

“이여사, 우리 손자 동물도 알고 일, 이, 삼 숫자도 알아.” 하시며 손자 자랑 보따리를 풀어 놓으신다. “이 여사가 ‘여홍’ 해 보래. 그럼 우리 웅이가 ‘사자’라고 맞추지.” 손자 자랑은 끝도 없다. 자랑 틈틈이 ‘어제는 뭐 하셨어요.’, ‘영수증은 어디 두셨어요.’, ‘그건 왜 안 적어 놓으셨어요.’ 질문을 섞어 넣는다.

“윗마을 백자리에 일가친척들이 몽땅 피라미든가 뭔가 해서 안마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 손자 자랑에서 어느덧 사기사건 이야기다. 조사도 조사지만 정말 가족처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돼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4월 27일, 어김없이 마당에 차를 세우고 ‘어르신’하고 부르는 순간 항상 나오시던 어르신은 보이지 않고 창백한 얼굴로 아주머니가 나오시는게 아닌가.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와요.” 차분히 말씀하시는 아주머니의 표정에서 불길한 무언가를 느꼈지만 아득바득 우겨 남의 집에 들어 갈 순 없는 노릇이었다.

“사모님, 얼굴색이 안 좋아요. 몸조리 하세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하고 난 다시 차를 돌려 다른 출장지로 향했다.

며칠 동안 사모님의 창백하고 불안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나흘 뒤에 다시 농가로 향했다. 집 근처에 못 보던 차들이 즐비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맞았던 것일까? 손자와 사과 밖에 모르던 어르신이 자살을 하신 것이다. 실종 된지 3일만인 2009년 4월 29일 안동댐에서 차량과 함께 의사채로 발견되셨다. 너무나 놀라 한참을 말도 못하고 멍하게 서있었다.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내렸다. 이유가 무엇일까. 부채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하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뉴스에서나 간간이 부채때문에 자살한 농민 이야기를 접했지만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가슴이 답답해 왔다.

‘어르신은 왜 좀 더 나은 삶을 기다리지 못한 것일까. 혹, 내가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 장본인이 아닐까. 조사하기만 급급했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의 절박함을 한번도 진심으로 헤아린 적이 없었던 게 아닐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일까. 누구를 위해 조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 농가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농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통계조사만으로 세상이 변하고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님을 안다. 그렇지만 정확한 조사 자료가 세상이 좋아지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진리와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문상을 하는 내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수십 개의 질문과 답들이 아우성치고 있었다.

다시 일주일 뒤, 농가를 찾았다. 경영주 사망 표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흔란스러웠다. 농가를 찾아 표본 교체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염치없는 일인양 여겨졌다. 갑자기 방에서 아드님이 나오더니 직장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을 거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농사도 안 지어 보셨잖아요.”

“그래도 제가 한 번 해볼 겁니다.” 아들의 얼굴에 굳은 결심이 보였다.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농가로 향한다. 권00 농가가 아니고 권△△ 농가로 말이다.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 그 아들과 다시 정을 붙이고 때론 설득으로 때론 반협박으로 서로에게 익숙해져가며 통계를 써 나가야겠지... 제각기 자리는 다르지만 서로의 진심이 닿는다면 단풍에 물이 들 듯 자연스럽게 조사에 응해 주겠지 생각하며 오늘도 힘을 내본다. 아자 아자 파이팅!!



# 그녀와의 만남

최우라 |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



2007년 여름은 참으로 더웠다.

난 체질적으로 남들보다 더위를 덜 탄다. 하지만, 그 해 여름은 왜 그리도 더웠는지, 8월 끼약볕 아래 8번 연동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며 반은 더위에 지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낯선 지역을 요도하나 달랑 들고 찾아간다는 건 우리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마냥 신기해 할 일이지만, 난 이 일을 벌써 18년째 해 오고 있다.

그 날도 예전처럼 요도를 맞춰가며 머릿속으로 가계지역과 경활지역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일이 어렵게 풀리려는지 재개발 바람이 벌써 나의 조사구 경계선을 넘어 몇 집이 벌써 철거된 상태였고 철거작업을 시작한 그곳에는 보상 문제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나마 보상 문제를 거론할 정도의 사람들은 제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절반이상은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여야 하는 세를 사는 사람들 이었다. 생활보호대상자들과 독거노인, 불구자 등등 불행함을 남들과 비교라도 할라치면 서로 자기들의 아픔을 들고 나설 사람들이었다. 이런 곳을 대상으로 앞으로 3년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여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3년은 고사하고 1년도 채우지 못해 조사구를 교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에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본청의 지침에 따라 그나마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곳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9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참 비참함의 연속인 곳이었다.

여름 더운 공기에 대문을 열면 연신 악취가 풍기고, 쥐는 대낮에 사람이 다녀도 까만 눈을 깜빡이며 놀라 멈칫거리는 나를 차라리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처음엔 너무 놀라 비명도 질렀지만, 상황에 적응을 하는 것일까? 나도 차츰 쥐를 봐도, 파리가 마루에 까만 무늬를 만들며 앓아 있어도, 살짝 눈살만 찌푸려질 뿐, 그냥 모든 게 다 나의 관리 대상인 듯 해졌다.

일단 조사를 시작하면서 처음의 막막함과는 달리 없는 사람들 특유의 솔직 함이 의외로 걱정을 많이 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생겼다.

숨길 것 없어 더 주면 고마운 그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손에 들려가는 약소한 사례품은 큰 기쁨을 안겨 주었나 보다. 첫 집부터 형식적인 싫다는 말 한번 던져보더니, 두 번째의 권유에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계부를 다 적어 주셨다.

연동이라는 어려움을 뒤로 한 채 난 100%로의 회수율을 올리며 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처지가 되었지만, 반면 나는 더운 뛰약별 밑에서 말라가는 풀처럼 속마음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 걱정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나의 가계부 적격인 1, 2구역은 생활보호대상가구가 3가구에,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 총 10가구 중에 4가구뿐이었다. 한 집은 가구주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하루에 소주를 2병 이상 마시지 않으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가구였고, 이웃한 옆집은 가출한 남편을 대신해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며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봉양하는 2% 모자라는 착한 며느리가 있는 곳이었고, 또 이웃한 다른 집들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 권수는 많지만, 내용이 알차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 그들의 곁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쩜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모아 놓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참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늘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이 곳에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짓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정상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2% 모자라지만, 세상 어느 누구보다 착한 며느리이며, 한 아이의 엄마이고, 그 누군가의 아내였던 사람이다. 처음 그녀는 나를 참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왜 여기서 자기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를 못해 어리둥절해 하며 불안해했다. 덕지덕지 얹은 파리를 쫓고 겨우 마루에 걸터앉은 내게 수줍게 커피를 끓여 내며, 조심스레 호기심을 드러내던 그녀.

그녀에게 난 아주 또박또박 글을 쓰며 가계부 적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초등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치듯이 한자 한자 적으며 말하는 나를 그녀는 참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며 밑져봐야 본전이라 싶은 생각에 가르친 그녀는 한 달 치의 가계부를 받아 든 나를 너무도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로 꼼꼼히 가계부를 적었다.

그래서 전화로는 통화하기 어려운 그녀에게 난 참 많이도 찾아갔다. 노모의 생활안정자금 60만원과 노인 복지금 8만원이 그 집의 총수입이었지만, 그녀는 참 알뜰히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가끔 나의 손에 들려가는 아이스크림을 보곤 아들을 쥐어겠다며 함박웃음을 지었고, 난 그 웃음이 좋아 다음에 또 한손에 뭔가를 들고 가려고 노력을 했다. 가계부를 기입하는 가구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난 그녀의 한달한달 가계부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가계부를 보면 열심히 고개를 숙이고 한자 한자 품목과 숫자를 적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그렇게 1년을 보낸 어느 날 난 우연히 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골목 어귀에 그곳에서 보기 힘든 깨끗한 차림의 잘생긴 남자를 보았다.

‘어머, 이곳 사람이 아닌데 누굴까? 누구 집에 다니러 온 타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그날도 여전히 난 2%로 부족한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대문을 들어 선 순간 난 예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웬지 그녀에게 선 보통 때와는 다른 흥분된 감정이 느껴졌다.

그래서 “어디 외출하세요?”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런 그녀를 의아하게 여기며, 난 노모와 이야기 하고 가겠다며 그녀를 얼른 나가보라 했다. 그녀가 나간 뒤 노모에게서 들은 말은 골목어귀의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인데, 월말이 되면 가끔씩 다니러 온단다. 그 말에 난 너무 놀라 아드님이 그럼 가까운 데 계시냐며 물으니 노모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웃동네에서 딴 살림을 살며 생활금이 나오는 기간이 되면 와서 돈을 받아가는 대가로 착한 그녀와 저녁을 먹고 간단다.

참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었다. 세상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다. 가끔 그녀의 가계부에 적히던 송금의 출처가 바로 남편이었다니, 병약한 노모와 정상적이지 못한 착한 아내, 그리고 너무도 예쁜 아들을 버리고 자기 좋은 곳을 찾아간 것도 모자라 돈을 받아 가는 파렴치한 인간을 좋다며 따라 나서는 그녀를 보며 난 울음이 치밀었다. 세상은 참 요지경이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었다. 그러나 나와는 다르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인 듯 해 보였다.

다음 해 추석에 난 사무실 행사의 일환인 불우이웃돕기에 그녀의 집을 추천 해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그달 가계부에 처음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각종 과일, 아이스크림, 자장면 값이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9년 올해 추석에 다시 그 집을 불우이웃돕기 기구에 추천해 10만원 상당 상품권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는 소고기, 돼지고기, 통닭, 자장면 배달 값 등 빈약한 그녀의 가계부 품목이 많이 늘었다. 하지만 입력하는 나의 마음은 즐겁기만 했다. 얼굴 가득 활짝 핀 그녀의 웃음을 보면 난 참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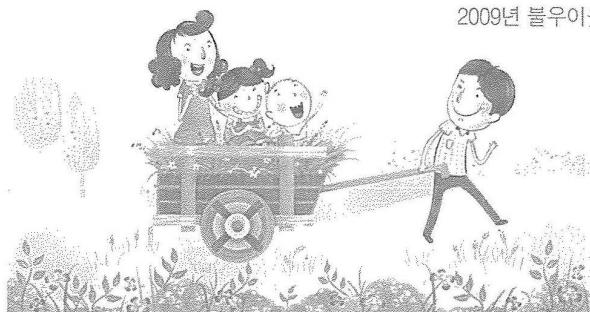
이 세상에 누가 저토록 예쁜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 거울을 보면 늘어가는 주름사이로 비치는 나의 찌들린 삶이 문득문득 보일 때마다 그녀의 웃음을 생각해 본다.

그녀의 웃음을 내 이웃에게도 선물로 보내주고 싶다.

다들 그녀처럼 행복해지라고...



2009년 불우이웃돕기 행사 당시 모습



# 엉뚱 발랄 사오정

이 해 숙 | 충청지방통계청 증평사무소



2008년 조직 개편에 의해 증평사무소로 발령이 나면서 농가지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였다. 가을 볏 마당에 있는 소쿠리에 가득한 낮익은(?) 것에 눈길이 갔고 이내 할머니에게 “이거 마늘이죠? 왜 이리 많이 까세요. 김치 담그시나요?” 나는 그때 보았다. 기가 막혀하는 할머니의 표정을.

“아이고, 도시 새댁 맞네. 이거는 마늘이 아니고 쪽파 씨 할 거 정리하는 거야.” 그로부터 1년 후 농사라고는 그 흔한 주말농장에서 고구마 캐는 호미 자루 한번 제대로 휘둘러보지도 못한 내게 맡겨진 농가경제조사업무. 그것은 실수 연발, 엉뚱 발랄 아줌마 등장의 시작이었다.

내가 맡은 조사구는 유난히 경지 및 작물이 많아서 80,000m<sup>2</sup>가 넘는 경지를 가진 가구가 2가구에 작물재배 현황표도 4~5장, 생산비도 많았다. 초보에게는 벅찬 업무에 첫 달은 마감 일자를 겨우 맞추자 몸살도 나고 너무 힘들었다.

처음 인수인계 받을 때는 넓은 마당을 가진 농가가 갈 때마다 텃밭으로

바뀌며 작물이 심겨지며 마당이 밭으로 변하고 있었고 마치 흙만 있으면 씨를 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힘든 조사구를 맡으면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어 내게는 플러스로 돌아올 거라는 위로를 했지만 작물 이름, 농약 이름 하나도 모르는 내게 농가경제조사는 올라야 하는 높고 먼 산이었다.

업무 맡은 첫 달이 논농사 준비하는 볍씨를 담그는 달이었다. 팀장님과 선배 언니의 지도를 받으며 농가에 출장 가서 여쭤볼 것들을 메모해갔다. 의욕적이고 자신있게 볍씨의 양을 조사해왔는데 사무실에 와보니 다른 직원들은 모두 다 볍씨 양에 다 소독약 개수며 이름까지 조사해 와서 얼마나 철렁했던지.

강낭콩 심을 시기에 농가 방문을 하니 콩 심었다고 하셨다. 나는 흰콩인지 검은콩인지 여쭤봤더니 “누가 지금 그 콩을 벌써 심어” 하면서 야단치시던 할아버지. 흰콩, 검은콩, 쥐눈이콩, 콩나물콩, 울타리콩, 동부, 강낭콩 왜 그리 콩 이름이 많고 집집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지.

농가 아버님 외출하신 가구에서는 어디 가셨느냐는 여쭤에 “논에 삶으로 가셨어.”라는 말씀에 논에서 삶을 것이 과연 뭔가했다. 그것은 모내기 전에 하는 작업인 논 삼기라는 것을 알고는 한참을 웃었다. 또한 담배 망 쌔리 갔다는 소리를 망이 뭔지도 몰라 농사용 그물망 같은 거 사려간 줄 알고 일제부에 구입으로 기재 할 뻔 했다.

나는 아무래도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보며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즉시 담배 밭으로 향했다. 그때 나는 보았다. 둑근 골 사이로 비닐이 자동

으로 씌워지는 관리기라는 너무나 신기한 기계를. 박수를 치며 신기해하던 내 모습을 보며 농가 아버님은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셨다. 농가를 맡고 나서 암소도 뿐이 난다는 사실을 안 것도 내게는 대단한 발견이었다. 지난주에는 논벼 수확에 이용되는 농기계 콤바인을 TV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너무 신기해서 과정을 배울 겸 한참을 구경을 하였다.

때론 무 씁과 갓 씁이 비슷해서 몇 개나 뜯어 먹어보고 콩인지 팥인지 땅을 파서 씨를 확인하고 도둑질한 사람처럼 흙으로 잘 덮어 완전범죄를 꿈꾸기도 하고 새싹을 뽑아 가지고 가서 여쭤보기도 하면서 흙과 친해지고 있었다.

‘참깨와 들깨는 왜 심는 방법이 다를까? 같은 깨인데’

‘들깨 잎은 먹는데 참깨 잎은 왜 못 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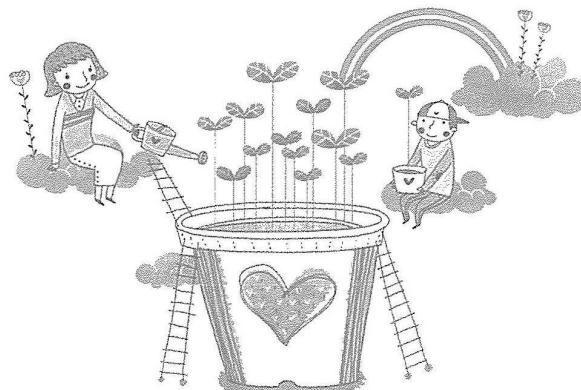
고추며 참깨, 콩에 사용되는 농약을 포함 궁금한 것들은 인터넷으로 농사 짓는 공부도 해가면서 나는 차츰 차츰 농가경제조사를 배워가고 있었다. 다행 이도 담당 조사구 농가에서는 처음 농가업무 맡은 것을 아시고 농사용어 못 알아듣는 사오정이 될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작은 키에 통통거리고 다니는 것도 안쓰러워 하셨다. 또한 내년에는 잘 할 것이라 용기도 주셨고 밭에도 함께 가주셨다.

타지에 있는 자식보다 더 자주 오는 통계청 직원을 내 딸 맞이하듯 반겨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농가, 통계청에서 나오는 답례품을 받으실 때 마다 마치 조사원인 내가 주는 것으로 쳐각하며 고마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타 업무에서 느껴보지 못한 보람을 느끼곤 한다.

몸이 안 좋거나 힘들 때도 농가로 향할 때는 나는 카멜레온이다. 농가 문을 통과하면서 나도 모르게 웃소리를 놓으며 “어머님~~~~”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발랄한 여자로 변한다. 아마 한 번도 얼굴을 뵈 적이 없는 하늘에 계신 시부모님이 보시면 며느리의 애교 한번 못 받고 먼저 가신 거 후회하실 듯싶다.

농가경제조사 업무는 모두들 통계청 업무 중에서도 복잡하고 어렵다고 한다. 한 해 농사가 씨앗이 뿌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 농가 업무의 씨앗 뿌리기 단계에 와있는 나. 내년에는 엉뚱하고 사오정 같은 모습이 조금은 줄어있을 거라 믿으며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익힐 것을 다짐해본다.

그러나 난 아직도 논둑의 뱀이 무섭고 농가의 개도 무섭다.



# 바쁜 여름날

여 미 숙 | 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여행을 갈망하면서도 일정을 마치고 돌아 오는 길만큼은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과 나의 안락한 공간으로 돌아온다는 안도감에 편안한 행복감에 취하게 된다.

하지만 어젯밤 친구들과의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보였던 남한강 물결 위에 흔들리던 서울의 불빛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사를 앞둔 내 마음만큼이나 심란해 보였다.

근심걱정 속에 뒤척이다가 날이 밝았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니 오늘도 엄청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만 같다. “어찌나, 오늘은 콩기름과 섬유린스를 배달해야 하는데…… 더운 날씨에 공짜 사우나를 하겠군.”

출근하자마자 사무실은 남대문 새벽시장 저리가라다. 전쟁터 같기도 하고, 대형할인마트 마감시간의 떨이전쟁에서 보는 아줌마들 모습 같기도 하다. 콩기름을 묶고 있는 사람, 섬유린스를 꺼내오는 사람, 온나라 일정등록을 하는

사람, 커피 한잔에 실사 첫날의 두려움을 달래보는 사람, 안전부절 못하며 화장실을 드나드는 사람 등, 조사구 현장으로 나가기 전의 우리들 모습은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전달해야 할 사례품의 무게보다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조사구의 사람들을 무사히 만나고 돌아오는 일이다.

일정등록을 마치자 마자 콩기름과 섬유린스를 자동차 타이어가 가리앉을 정도로 가득 싣고 무더운 하늘 아래 무서운 조사구를 향해 출발한다. 스테인리스 몸체에 튼튼한 바퀴로 된 카트도 물론 트렁크에 실어 뒀다.

조사구에 도착하여 그 무거운 콩기름과 섬유린스를 카트로 한두 차례 옮기다 보니 출근할 때 나름대로 빼입었던 옷은 이미 건축공사장 집꾼의 작업복이다. 몇 차례 중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땀은 물론, 팔과 다리도 후들거리고 숨도 차서 어디엔가 시원한데 앉아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다. 계단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면서 조사대상에 대한 명부점검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영락없는 외판원이다.

가구별 특성이 머리에 입력되는 대로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전쟁에 돌입한다. 날씨도 덥고 사례품의 무게도 최대인 오늘의 조사환경은 최악이다.

머피의 법칙이 따로 없다. 아래층에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나와서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더운 날씨에 아줌마가 이 고생이냐?”며 시원한 냉수를 떠다주시는 할머니……. 5층까지 힘들게 무거운 사례품을 들고 올라갔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가구. “올리브유 먹는 요즘에 누가 이런 콩기름을

먹느냐?”며 조사내용에 대한 대답은커녕 사례품을 도로 가져가라며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리는 가구, “이런 거 필요 없으니 제발 사생활 캐묻는 조사나 하지 마라! 사례품은 도로 안 가져가면 불우이웃돕기에 내놓겠다!”는 가구.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나눠줘야 할 콩기름과 섬유린스는 반도 더 남았다. 몇 번을 더 와야 끝이 날까? 슬픈 ‘외판원’의 불쌍한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스스로 담아본다. 계단 아래에 카트가 있고, 카트 위엔 나눠주지 못한 콩기름과 섬유린스가 있다. 그 옆엔 얹지웃음을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 사진을 저장할 때 제목은 “예쁜 마누라 팔다리가 긁어지는 이유.” 즉시 남편한테 전송 한다. 나의 심신이 무거운 것을 아는지 오늘따라 남편의 답신이 빠르다.

“내 마음이 느슨해 질때마다 당신 고생을 잊지 않기 위해 책상 앞에 사진을 붙여 놓았다고.” 남편의 문자가 주는 감동은 사막의 오아시스였다.

다음 조사구로 이동하기 전에 ‘미소쪽지’를 작성한다. “매월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O월 O일 조사차 방문했으나 안 계셔서 못 뵙고 갑니다. O월 O일(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 바퀴 돌며 부재중인 가구의 현관문에 미소쪽지를 붙이고 나서 비로소 첫 조사구를 떠난다.

다음 조사구에서는 처음부터 제동이다. 날씨 탓인지 오늘따라 대부분이 신경질적이다. 빌라의 주인댁에 콩기름 내밀며 겹 없이 방세를 물어보다가 봉변을 당한다. “싸구려 콩기름 하나 가져와서 방세 같은거 물어보려면 아줌마 더 이상 초인종 누르지 마요! 처음부터 응답을 안 해줬어야 하는데……. 왜 매월 같은 걸 반복되게 물어보느냐? 우리한테 세금 더 거둬갈 일 있나?” 현관문 사이로

빼죽 들이 밀었던 콩기름은 아줌마 발길질에 차여져 처참한 내 모습처럼 넘어져 있다.

조사대상의 1/3도 못 만났다. 부재중 가구에 ‘미소쪽지’를 붙이고서는 업무 혁신포럼을 위해 사무실로 향한다. 5시까지 귀청해야 하는데 도로가 안 막힐지 걱정이다. “오늘도 신호위반에 난폭운전을 해야 하나? 오늘 밤에도 어차피 조사 나와야 하는데, 아까 그 조사구에서 한두 집 조사를 못하더라도 일찍 출발 할걸…….”

업무혁신포럼이 끝나고 나니 6시가 훨씬 지났다. 막히는 퇴근길 러시아워를 각오하고 세 번째 조사구를 향해 출발한다. 가족들끼리 저녁식사를 할 시간쯤에 조사한답시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가구는 별로 없다. 시간관계상 불응가구 우선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지금 남편 없어서 다행인데, 남편 오기 전에 얼른 가라. 남편이 당신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린다고 벼르고 있다.” 무서워서 도망하다시피 건물 밖으로 나온다.

마침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아들한테서 배고프다며 문자가 온다. 동네식당 문 닫기 전에 알아서 시켜먹으라 해놓고서는 급한 마음으로 다시금 건물에 들어가 나머지 가구들을 방문한 뒤, 부재중 가구에 대해 미소쪽지를 붙이는 일로 오늘 조사를 마무리한다.

늘 반복하는 일이지만 끊임없는 설득과 설명을 해도 그 다음 달에는 “왜 또 왔느냐? 왜 똑 같은 걸 묻고 또 묻느냐? 무슨 조사가 해도 해도 끝이 없느냐?” 한 번 잘 해줬더니 왜 우리만 괴롭히느냐?”하는 가구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나는 오늘의 서러움도 잊은 채 자동인형처럼 미소를 머금고 내일 또 조사현장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지칠 대로 지쳐 어지럼증을 느끼며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도착해 보니 남편과 큰아들은 귀가 전이고, 늦둥이 막내아들은 중국집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시켜 놓고는 반도 못 먹고 식탁에 코를 박은 채 자고 있다.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어느 여름 날의 바쁜 24시간이 또 이렇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밤 오늘도 가구 현관문에 붙여 논 미소쪽지 내용을 되뇌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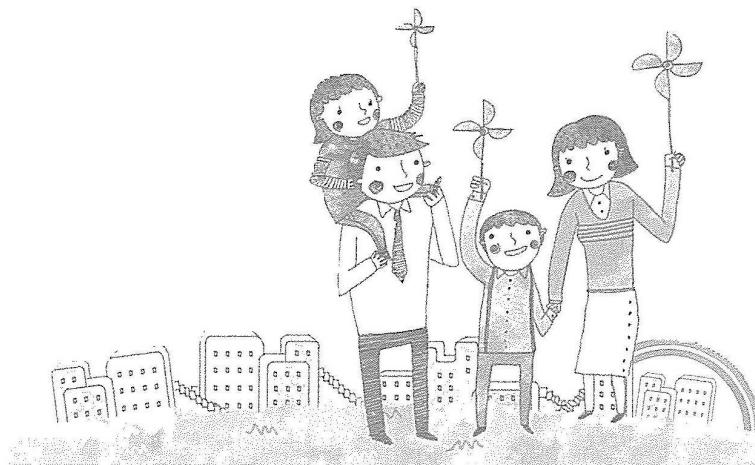
좋은 차를 마시면 향이 달고 깨끗하듯이  
경제활동, 도시가게 조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좋은 미소로 반겨주시는  
사모님, 선생님께  
매우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랑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을 이 생각하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행복한 선생님! 가정에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통계청 어 미술 드림.

추신: 생긋 웃는 얼굴 알고 또 찾아뵐게요.\*\*



# 돼지와 장미

조현정 | 동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통계청에서의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별써 도시아파트 조사구를 시작한지 일년이 훌쩍 넘어버렸으니 말이다.

나지막한 언덕을 올라서면 아담한 마당이 들어앉은 도시아파트가 나를 반긴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이라 새로 리모델링한 집과 예전 그대로의 집이 너무도 확연한 차이가 나는 그런 조사구이다. 대부분이 철도공무원 퇴직자들이고 미망인이 사는 곳이어서 노년층이 많은 조사구이다. 그곳에 가면 마당 한가득 울려 퍼지는 돼지와 장미의 지저귀는 소리가 마당의 소담스러운 화초들과 조화를 이룬다. 일년 전 처음 이곳을 만났을 때의 일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한참 연동 명부조사를 하며 가제부설들을 하던 때에 2층에 위치한 돼지네 집 앞에 멈춰 섰다. 2층임에도 불구하고 예사롭지 않게 문패가 현관문 옆에 걸려 있어 인상적이었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웬지 이 댁은 보수적 일 것 같은 기분에 조심스레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

“누구세요?”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버렸다. “인구 조사하는 통계청입니다.” 목소리와 어울리는 예리한 눈빛의 여자가 문을 열어주며 의심을 가득안고 첫 만남이 시작 되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살던 가구였는데, 남편의 직장 때문에 딸 부부가 친정에 와서 사는 가구였다. 표본조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구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가계부 이야기를 살짝 던졌다.

“가계부?”

“컴퓨터로요?”

의외로 “어머, 잘됐네, 울 아버지 요즘 컴퓨터 열심히 배우고 계신데, 이거 하라고 하시면 좋아 하시겠네.”라고 하며 흔쾌히 협조를 약속받았다. 특이하게도 그 집은 앵무새 두 마리를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내가 관심을 보이자 앵무새 자랑을 한껏 하셨다. 식성이 좋아서 돼지라고 부르는 새와 예쁘게 생긴 왕관앵무새를 장미라고 부른다고 한다.

타지에서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키우던 건데, 주말에 한번씩 와서 돌본다고 하였다. 처음 느낌과 달리 물어보지 않은 것도 조근 조근 이야기를 잘해 주셨다. 그날따라 할아버지가 안 계셔서 인사는 못 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며 정중히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묘한 기분이었으나 웬지 잘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인상이 그리 후덕한 편은 아니었지만, 남에게 실수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해 다시 그 댁을 방문하였을 때 점잖지만 웬지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 따님과 참으로 눈빛이 많이

닮으셨고,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빈틈이 없으신 분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계부를 예비로 한번 써 보시라고 종이 가계부를 드리고 컴퓨터로 하실 수 있겠냐고 여쭈었더니 “한번 해보지요.” 하신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내심 78세나 되는 연세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하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한 달이 그렇게 지나고 연습 삼아 쓰신 종이 가계부를 손에 받아 들고 보니 탄성이 절로 나왔다. 얼마나 꼼꼼하게 잘 쓰셨는지... 처음 본 인상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빠트린 것 없이 정말 잘 쓰셨다.

전자가계부 기입요령을 설명드리는 중에도 수첩을 꺼내어 꼼꼼하게 적으시며 잘해보겠다고 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도 동사무소 문화 강좌를 통해 컴퓨터를 배우셨고, 포토샵까지 배우시며 열정을 쏟으시는 분이셨다.

우리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전자가계부 아카데미에 참석하시게 하여 전체적인 흐름과 가계부작성법을 재차 설명해 드리고, 수시로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가계부 기입지도를 하였다.

두 달 정도 정말 내용 질의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전자가계부 작성을 잘해오시던 할아버지 댁의 가계부! 석 달째 접어든 어느 날 우연히 보니, 전자 가계부 작성날짜가 계속 한 날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컴퓨터로 확인이 되어 전화로 여쭈었더니, 몸이 조금 좋지 않아 그러신다고 곧 입력할거니까 염려하지마라,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곧 나아지실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지셨고  
못다 입력한 전자기계부를 두고 너무도 황망하게 누우신지 열흘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나셨다.

여전히 그 댁의 베란다에는 돼지와 장미, 두 마리의 앵무새가 시끄럽게 세탁기 소리를 내고 자전거 벨소리를 흉내 내며 지저귀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안계십다.

내가 가면 돼지와 장미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던 가계부는 이제 할아버지와 너무도 많이 닳은 땀의 뜻이 되어 빈틈없이 전자 가계부 작성은 잘해주고 계신다.

지금도 그 백의 현관문 옆에는 할아버지의 문폐가 그대로 걸려 있고, 데지와 장미의 어수선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할아버지만 홀로 먼 길을 떠나셨다. 금방이라도 “조 선생, 항목 검색이 잘 안되는 게 있는데...” 하시며 전화를 걸어 오실 것 같다.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누고, 병원에 문병 갈 틈도 없이 너무도 바쁘게 가버리신 할아버지가 요즘 부쩍 뻙고 싶어진다. 젊은이 이상으로 세련되시고, USB 메모리를 핸드폰에 달고 다니시며, 컴퓨터 공부도 열심 이시던 할아버지...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사시려고 열심히 공부하시던 모습에 도전을 받았었는데. 언제나 겸손하시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시던 윤한용 할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통계조사를 하면서 내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분으로 기억이 될 것 같다.

# 불응!! 그 끝을 없애는 날까지...

신정림 |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길옆에 피어난 코스모스가 하늘보기를 하는 멋진 가을이다.

통계청에 들어와 조사원 생활을 하며 통계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은 알았고, 우리 생활 속 곳곳에 통계가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통계란 그저 숫자를 짜 맞추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준 곳이기도 하다.

통계조사를 시작한지 어느덧 횟수로 강산이 변한다는 10여년이 다가오고 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진솔함과 애잔함이 묻어나오고 그 삶은 나에게 값진 인생관으로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고 뒤틀어 보게 하곤 한다.

때로는 부드러운 손길의 어머니 같이, 때론 엄하기도 한 품 넓은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까마득하고 긴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매달

월 마감을 하느라 한 달, 1년, 5년이 언제 흘러 간지 모르게 보낸 세월이었다.  
어느 달이건 어김없이 생기는 전·출입 가구들과 불응파의 기싸움이라고나  
할까!!

나는 농가경제조사를 4년 동안 하다가 가계조사 업무를 시작한지 5년째다.  
가계조사 60여 가구 중 꼭 몇몇 집들은 연락이 안 되고 새로 전입 온 가구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셨네요.”

“통계청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 왔어요.”

“.....”(초인종을 꺼버림)

아예 대꾸도 없이 문도 안 열어주기 일쑤다. 어쩌다 우연히 문을 열어 주는  
가구에 반가운 마음으로 최대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나를 무안하리  
만치 싸늘하고 경계하는 듯 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딴 집 가보세요.”

하며 문을 잡고 있는 내 손을 떼어내며 잡상인 취급을 하는 등 마감 앞두고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하고 애타던 기억을 현장 조사원들 이라면 다들 겪었을  
법하다. 그렇듯 어렵게 고비를 넘기며 마감을 끝내고 나면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게만큼이나 기쁨 또한 두 배가 된다. 우리 통계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현장에서의 불응이 아닌가 싶다. 국가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조사인데 막상 응답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남들 다 안하는 조사를 왜 나만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런 거 해주면 뭐해요? 정책이 변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거 해주면 취직자리 생겨요?”

“나 이는 집은 통계청에서 뭔 조사 해가더니 그 다음 달부터 세금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바쁘니까 담에 와요.”(물론 다음에 가면 외출한 것처럼 아예 대꾸 안 해준다)

“정부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이런 대답을 해줘야 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반응을 해주면 우리로써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책이 변하고 취직자리가 생기고 세금하고는 아무 연관 없는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조사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 문제는 아무런 대꾸가 없는 무응답 가구와 면접 자체를 피하는 가구들이 더욱 더 큰 문제다. 물론, 입장은 바꿔서 내가 응답자라도 똑같은 심정으로 귀찮고 번거로울 것이다.

우리 통계청에서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를 합쳐 직접조사 방법의 통계와 가공통계 등 총 60여종의 통계조사를 하고 있다. 그중에는 정말 간단한 조사도 있겠지만 가계동향조사나 농가경제조사처럼 개개인의 사생활을 가감 없이 고스란히 들어내야만 하는 참 고약한(응답자 입장에서는)조사들도 있다.

표본을 설정해서 거쳐가 정해지면 5년(농가경제조사) 내지는 3년(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간의 조사 진행은 순전히 조사원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주장해도 딱히 무리가 아닐까 싶다.

물론 응답자에겐 크진 않지만 소정의 답례품도 있다. 간혹은 그 작은 답례품에 혹해서(?) 그 긴 시간동안 조사원들이 그토록 귀찮게 하는데도 싫은 내색 없이 응해주는 귀하신 응답자들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요즘의 이기적인 세태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우리가 내미는 작은 생활용품이나 상품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내가 그거만큼 줄 테니 제발 우리 집 좀 쫓아다니지 말라는 욕설과 함께 문전박대를 당하며 쫓겨나기 일쑤다. 이렇게 거부하는 집들은 순전히 조사원의 뜻이 되어 버린다.

최근 몇 년은 책임운영기관 지표를 내세우면서 가계부 회수율과 불응률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 물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하는 조사가 한 집이라도 더 바른 응답을 해서 좋은 자료로 우리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만큼 절실할까?!

이렇듯 불응이 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조사원들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은 양질의 자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표본가구에게 국가차원에서 뭔가 확실한 대가가 주어지는 대안 마련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부분의 가구 대상 통계는 가구주들은 관심이 없기도 하거니와 귀찮아 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배우자나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간접조사를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취업자의 산업이나 직업에 대한 분류, 또한 1년이면 거의 매달 있다시피 한 각종 부가조사 등 취업자 개개인이 응답을 해주어야 하는 항목을 간접조사에 의존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럴 때 무관심한 우리의 응답자(가구주)와 취업중인 자녀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가령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임금 근로자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을 일정 부분 감면 해준다든가,

무직이면서 학생이 있는 가구라면 수업료나 기타 방과 후 학습비 일부 감면, 사업체 조사 응답 업체에겐 회사 차원의 납부세액 일부 감면 등 가구특성에 맞는 방법을 다각도로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응답자 스스로 표본 가구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 전 국민이 다음 표본으로 선정되기를 학수고대하며 아파트 단지들마다 가칭 표본 유치 위원회쯤이 곳곳에 생기고 본청 관련 과에는 로비 아닌 로비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내지는 소박한 소망을 감히 현장 조사원으로서 해보며, 오늘도 난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발걸음을 씩씩하게 내딛으며 목청을 한 옥타브 쯤 높여 가다듬는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신정림 이예요.”

우리 모든 통계청 조사원들이여!! 전 국민이 표본가구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그 순간이 언젠가는 꼭 오리라 믿으며 오늘도 굳세게 화이팅 합시다!!!



# 보고 또 보고! 마음의거리 좁히기

박 정 선 |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아니. 벌써?”

달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시간이 어쩜 이리도 빠른지’ 하며 또 한숨을 짓는다. 알록달록 예쁘게 물든 단풍들이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을이 왔지만, 머지않아 찾아 올 눈 내리고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 그땐 추워서 현장조사 일하기 힘들겠다고 미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참 서글픈 현실이다.

그런 우울감은 떨쳐버리고 통계와 함께했던 지난 7년을 잠시 회상해본다. 매달 일정한 주기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통계 조사. 하지만 이따금씩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통계 조사라는 일 때문에 만나게 되는 조사가구이지만 어쨌든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그 속에 많은 에피소드가 생기게 마련이다. 모두가 조사에 협조적이라면 얼마나 좋으련만 비협조적이거나 강력 불응하는 소수의 가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 일상생활에서의 대부분의 일은 경험하는 횟수가 늘수록 익숙해지고 초연해

지기 마련인데, 조사 현장에서 매번 어려움에 빠질 때면 회의감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새로운 조사구를 담당하면서 겪게 된 사례이다. 그 조사구는 다른 데에 비해서 불용가구가 많았고, 가계부 회수율도 높은 편이 아닌 곳이어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었다. 이전의 담당자에게 면접조차 거부를 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가구와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어 비협조적인 가구를 설득하기란 사실 선뜻 용기가 나지 않지만,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불용인 사실을 모르는 척 하면 벨을 눌러본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저랑은 상관없어요.”라는 말뿐.

얼굴을 대면하고 강력히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사람보다도 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전 담당자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경찰을 부른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단다. 그렇게까지 할 때는 그 사람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싶지만 내 코가 석자. 비록 나를 반기지 않아도 꾸준히 찾아가고 밖에서라도 지나치게 되면 혹시나 인사를 하며 말을 붙여 본다.

그 중 하나인 젊은 신혼 부부 가구. 이사 온지 얼마 안 된 맞벌이 가구로 저녁에라야 면접이 가능하긴 하지만 나와는 또래이고 해서 그리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달랐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여러 경로로 정보를 습득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서 특별한 설명 없이 쉽게 협조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위의 경우처럼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뚜렷하고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도 접한다. 하지만 저녁시간에 몇 번 찾아가자

드디어 남편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얼굴 표정으로 봐서는 크게 내키지 않은 듯, 싫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듯 보였으나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하겠다는 듯... 사실 완전한 설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계부 작성까지 당부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방문 때에는 부인과 남편을 함께 만났는데, 겨우 설득이 되려는 남편을 옆에 두고 부인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당시 부인은 첫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초기여서 약간 예민하기도 했고, 나도 부인에게 부탁을 하기란 좀 미안한 마음이었다. 끝내 남편이 전자가계부 입력을 하게 되었는데 가계부에 익숙지 않은 남자인데다가 꼼꼼하지 않은 성격에 몇 달간은 마감일이 가까워도 입력을 많이 안 해 놓아서 내 속을 태웠다. 그러다보니 전화며 문자 연락을 자주하게 되고 그런 잦은 연락과 응답의 부담에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칙한 마음에 못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있는 듯 하여 한번은 진심으로 전화통화를 해보았는데, 끝내 솔직한 심정으로는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부인을 통해서 들으니, 남편이 입력을 미뤄오다가 그 날은 입력을 해야겠다고 부인이 모아놓은 영수증이며, 메모지를 달라고 했단다. 본인도 계속 신경이 쓰이던 차에 내가 연락을 하니 단단히 짜증이 났던 모양이었다.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몇 개월 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로 집에 있게 되니까 부인이 잘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어렵사리 몇 개월이 흘러서 얼마 전 9월에 부인은 아이를 출산했다. 그 사이 조금씩 친분이 생겨서 매번 나에게 “언니~ 언니~”하는 사이로

까지 발전이 되었고 젊은 부부가 알콩달콩 예쁘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에 미리 준비했던 아기 내복을 출산 예정일 며칠 전에 전해주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조사도 할 겸 아기도 볼 겸해서 갔는데, 출산 전까지만 해도 저녁에나 면접이 가능해서 그리 오래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가 모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었다.

통계 조사 내용 외에도 출산 얘기, 결혼 생활 얘기 등. 그러다가 최근 주변의 신축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서 그쪽으로 전출이 많고, 조사구역내에서도 몇몇 가구가 이사를 갔다며 나에게 정보를 준다. 물론 나도 알고 있긴 했지만…….

그리고는 “새로운 가구들을 다시 설득하려면 어렵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안 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랑 같이 가계부 입력하니까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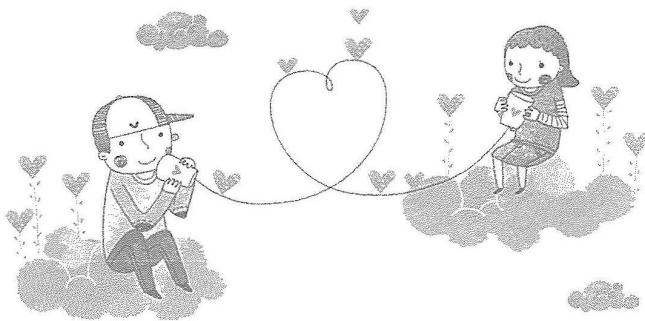
처음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이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지. 이렇게 어느 덧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서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통계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나 역시 그 말에 백번 공감을 한다.

조사 가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방문하고 면접을 시도하는 것, 심리학에서 ‘단순노출의 효과’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던 광고나 상표 이름도 여러 번 듣게 되면 어느 새 그럴듯하게 느껴지고,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됐던 유행가도 자주 듣다 보면 좋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 이렇듯 사람도 계속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면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실 나 자신이야 이것이 직업이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표본가구로 선정이 된다면?’ 하고 가끔씩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솔직히 선뜻 “OK”라는 답은 나오지 않는다. 각기 나름의 바쁜 상황 속에서 잠깐씩이나마 국가통계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응답자와 조사자를 비롯한 모든 통계인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미래로 통하는 빛. 통계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본다.



# 콩심은 데 왜 팥이 났지?

김 남주 | 동북지방통계청 농수산조사과



눈 앞이 깜깜하다. 도대체 이게 뭘까??

통계청에 입사하여 벌써 강산이 한번 바뀌고 또 강산이 바뀌어 가고 있다. 정말 통계의 ‘통’ 자도 모르고 통계가 단순한 숫자놀음이라고 생각하였지 직접 현장조사를 해야 결과가 나오는지도 모른 채 조사업무를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0년 넘는 동안 가구부문 통계조사업무만 해왔다. 얼마간의 업무숙지 기간과 인수인계를 거쳐 처음으로 혼자 가구를 방문하던 날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남의 집 큰 대 앞에서 두려움으로 초인종도 누르지 못한 채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다. 현장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불안감이 앞섰고 조사에 불응하지는 않을까 겁부터 났다. 가계부 불응가구를 설득하고 늦은 밤에 전입가구를 조사하고 무거운 답례품을 나르면서 방문 판매사원으로 오해도 많이 받았다. 가구를 조사하면서 어려운 점은 사람을 면접하고 조사 하므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대부분이었고,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을 조사하고 응답자에게 질문 후 들은 답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조사할 내용 자체의 어려움은 크게 없었다.

올해 4월 우연한 기회로 농수산과로 빌령이 났다.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나로서는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고 심지어 벼도 한번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다. 이번에는 농사의 ‘농’ 자도 모르고 농업업무를 주로 하는 생산 통계팀으로 배정되어 작물재배면적조사를 하게 되었다. 조사하기 전에 멘토에게 현장실습을 통해 작물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았고, 2회 조사는 선배직원의 도움을 받아 배워가며 작물 구별은 혼동 없이 조사를 끝낼 수 있었다. 문제는 7월에 3회 조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첫 단위구는 1층으로 논만 있어 논벼로 쉽게 조사할 수 있었다. 이런 단위구만 있으면 좋으련만 하는 희망과는 달리 두 번째 단위구에 도착하고 나서는 한숨부터 나왔다. 2회 조사 때에는 없었던 처음 보는 작물들이 빼곡히 밭에 심겨져 ‘내 이름은 뭘까요?’ 하고 나를 쳐다본다. 눈앞이 깜깜하다. ‘도대체 이게 뭘까?’ 조사를 하는 내가 질문해야 하는 것을 작물들이 나에게 묻고 있다. 작물조사가 가구부분조사와 다른 점은 조사 할 질문에 대답해 줄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한여름 땅볕이 내리쬐다. 눈앞이 깜깜하고 이마 위로 등줄기로 땀이 줄줄 흘러내린다. 이름도 모르는 작물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지나가는 농부를 불러 세워 물어보기도 하고 작물도감 책을 뒤져가며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도 헛갈리는 작물은 잎을 한 장 뜯어 가져와서 물어보기도 하였다.

하루는 쟁쟁 내려 쪘는 햇볕으로 인해 무더위와의 싸움이였고 또 며칠은

장마로 인해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갠 날은 비 때문에 진흙탕이 된 논밭을 다니며 뛸지마다 작물이름과 면적을 빼곡히 적어가며 기한 내 겨우 조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 작물조사를 하면서 아마 내 평생 흘린 땀의 양만큼을 다 흘린 것 같았다.

옛날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다. 9월이 되어 4회 조사를 하면서 콩밭 앞에 섰다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난 콩을 심었는데 왜 팥이 났지?’ 3회 조사 때는 분명히 내 눈에는 콩잎이였다. 콩으로 조사하였는데 지금은 팥이다. 작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팥으로 조사했어야 하는데 콩으로 잘못 조사한 것이다. 나의 실수로 인해 통계조사 결과에 오차가 생겼다. 농업통계업무를 하기 전에는 농업관련 뉴스들을 들으면 그냥 무심히 흘려 들었는데 막상 내가 농업과 관련된 통계업무를 하다보니 작은 뉴스 하나도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는다. 한창 벼 수확 시기인 요즘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이 자식같이 기른 벼를 갈아엎는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다.

논밭을 다니다 만나는 농민들에게 통계조사를 한다고 말하면 농민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영터리 통계조사를 왜 하냐는 편찬을 흔히 들을 수 있다. FTA로 인해 농산물은 계속 수입개방이 되고 농민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제 농업 통계를 한지 6개월의 시간이 흘러 아직은 작물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실수 투성이이다. 하지만 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농민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현장조사에서 올바른 농업정책이 수립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조사에 임해야겠다. 내년에는 꼭 콩 심은 데 콩 나게 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리라 다짐해 본다.

# 가짜 며느리

오 은 영 | 호남지방통계청 여수사무소



“아버지! 잘 계셨어요?”

“어이~ 가짜 며느리 왔는가?”

얼마전만해도 무뚝뚝하시던 분이 반년을 넘게 보고 나니 가끔은 농담을 하시곤 하는데 오늘은 나를 보고 “가짜 며느리”라고 부르셨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매주 와서 이것저것 물어 보고, 챙겨주고 며느리 같기는 한데 진짜 며느리는 아니니 자네가 우리 집 가짜 며느리이네.”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너무나 공감이 가는 나의 별명이다 싶었다.

어머니는 간경화 중증으로 겨우 본인 혼자 몸만을 추스르는 정도여서 아버지가 바다일, 농사일, 집안일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어가경제 일계부 기입에 협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계부 내용이 꼼꼼하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 보는 것이 많다.

“어머니, 아버지 병원 갔다 오셨어요? 약은요? 다음에는 언제 또 가세요?

혹 어디 모임 갔다 오셨어요? 미장원, 이발은요? 요즘은 무슨 반찬을 해서 드세요? 밭에 고추는 심었어요? 농약은 하셨어요? 쌀은 열 만큼 남았어요?” 등등. 정말 내가 생각해도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더 자주 여쭤보게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대화를 다정하게 웃으면서 주고받지는 못했다. 처음 방문 했을 때는 내가 물어보면 굉장히 귀찮아하시고, “그냥 집에 있는 반찬 먹었지? 노인네들이 하는 게 있어야지?”로 일관하며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셨다.

“아버지 그물 손질, 미끼준비 작업시간 몇 시간이나 하셨어요?”라고 물으면 툭! 내뱉는 말투로 “간식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물어봐!”라고 하시면서 무뚝뚝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어 버리곤 하셨다. 심지어 담례품을 가져다 드리면 그래도 어머니는 “고맙게 뭘 가지고 와.”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고마워 할 것 없네! 내가 일계부 써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국가에 주는 것이지 이 사람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니깐 이 사람에게 고마워 할 것 없어.”라고 하셨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어찌나 서운하던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른 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툭! 툭! 던지는 말투에도 조금만 맘을 열고 들어보면 정감이 느껴지고 무표정하게 다물어 버리는 그 입가에 살짝 훈훈한 어머니, 아버지의 포근한 미소가 숨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계부 질문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을 때 목소리가 좋지 않으면 어디가 많이 아프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더 찾아가 보게 되고, 상처가

난 발에 살 껍질이 벗겨진 채로 그냥 다니시는 것을 보 다음에 연고를 사다가 발라 드리게 되고, 어깨가 쑤신다 하면 파스도 사다드리게 된다.



한여름 출장 나갔을 때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소나기가 내리면 마당에 널어져 있는 이불빨래가 젖지 않도록 빨리 걷어놓고 돌아 오게 된다.

나도 이제는 가족에 일원이 된 듯이 꼭 통계조사에 필요한 사항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안부를 먼저 살피게 되고, 어머니도 마른 장어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싸주시면서 며느리 대하듯, 딸을 대하듯 “장어를 물에 살짝 불려서 어슷하게 칼집을 내고, 그 다음에 살짝 쪘서 양념장을 뿌려서 먹어잉~” 하시며 요리 법을 가르쳐 주신다. 조사를 마치고 뒤돌아서면 빈손으로 돌아보내는 것이 못 내 서운하셔서 뒤틀에 가서 감이나 배를 서너 개 따서 가방이 넣어 주신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주신 과일을 먹으면서 맘속으로 ‘어가경제 일계부를 하는 동안만큼은 정말 아버지가 지어주신 별명처럼 가짜 며느리가 되어서 안부도 묻고, 이런 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도 들어주는 가족이 되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

# 현장조사의 버팀목

고 선 영 |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알싸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가을입니다.

통계조사 9년차, 작년 초가을 한 참 곡식이 무르익을 무렵 태어나서 처음으로 논벼 생산량조사로 논에 들어 가본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서 또 다시 가을이 돌아 왔습니다. 지난 8년을 돌아보면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웃고 울었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전남 보성으로 발령을 받아 농가경제조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작물이라곤 겨우 쌀 나오는 논벼뿐인 저에게 농가경제조사를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소한 농약이름, 농기구, 작업 사항 등 정말 막막했습니다.

더구나 제게 가장 큰 적인 가축들... 제 조사구엔 유난히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개, 고양이는 기본이며 염소, 타조, 사슴 등등.

어느 날에는 차를 몰고 조사구 입구에 도착했는데 염소들이 길목을 가로막고 앉아서 쉬고 있더군요. 그 염소를 쫓지를 못해서 조사구 어르신들이 발견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차 안에서 꼬박 30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이장님댁에 전화를 해서 조사구로 들어간 적도 있었고 어느 가구에선 점심때가 됐다고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셔서 밥상 앞에 딱 앉았는데 국수를 말아 주시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일~. 국수를 보리 물에 말아서 아무 양념 없이 정말 보리물에 삶은 국수만 넣어서 주시더군요. 그 맛 안드셔본 분들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이걸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억지로 그걸 다 먹고 나와서 바로 화장실로 직행. 돌아보면 전부 추억이 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벌써 조사업무 9년차라니...

제 나이 역시 대학을 갓 졸업한 풋풋한 사회 초년생에서 어느덧 30대란 숫자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축, 특히나 커다란 개가 풀어져 있는걸 보면 소리부터 지르곤 하지만 이젠 어느 정도의 여유로움이 생긴 듯 싶습니다.

불응 가구나 불응 사업체에서 좋지 않은 소릴 듣고 오면 눈물부터 글썽이던 시절은 가고 이젠 어느 정도 대처 능력도 생겼고 웬만한 말엔 같이 맞대응 하는 방법도 배운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젠 화장실이 급해도 가구에서 “할머니~ 저 화장실 좀 사용 할게요~”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레 하곤 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정말 명언인 듯싶습니다. 순간순간 정말 힘들어서 한숨 내쉬던 시간도 많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웃으면서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한 뼘 정돈 성숙됐음을 느끼며 미소 짓곤 합니다.

이젠 조사 업무하면 불응하고 나쁜 기억들만 남은 것이 아니라 정말 손녀처럼 잘 대해주시고 쟁여주셨던 분들부터 생각나는 것도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근무하는 군산사무소는 표본 조사구가 거의 도시지역이어서 처음엔 서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사구분들과의 관계는 시골과 도시의 의미가 없는 듯 합니다. 지금도 혼자 살고 계시는 한 할머니 본인이 당뇨이셔서 예비용으로 사두신 것들을 제가 갈 때마다 한 움큼씩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방에 넣어 주시는데 그 할머님께 사탕을 받을 때마다 정읍사무소 근무할 당시 가계동향 조사 표본조사구 할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할머니 제가 갈 때마다 꼭 음료수를 쟁여주시는데 하루는 그러시더군요. 내가 난 못 먹어도 아가 너 오면 주려고 꼭 남겨둔다고...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찡하던지... 잘 계신지 무척 궁금하네요. 그런 분들 때문에 불응가구를 접하게 되더라도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10년도 안된 제가 이런 얘길 한다는 것 자체가 오랜 연륜을 갖고 계신 선배님들 뿐 면목이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한게 많고, 축적한 노하우가 너무 적어 갈 길이 멀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아니 지금 보다 더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배워 현장조사의 어려한 변수 속에서도 제대로 된 통계 조사를 할 수 있는 통계청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응답자와 통계조사관이

# 소통(疏通)하는 세상

임준석 | 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



보령이라는 도시는 나에게 참으로 인연이 깊은 곳이다. 1989년 8월 통계청과 인연을 맺고 처음 직장생활은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보령이기 때문이다.

한층 높아진 건물들과 사방팔방으로 시원하게 뚫린 도로들이 20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는 듯하다. 통계청 조직 또한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 당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소속으로 직원 4명이 보령군청에 복무위탁 형태로 근무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3층 건물의 단독청사와 30명이 넘는 직원으로 괄목할만한 조직으로 성장을 했다.

을 2월 다시 이곳 보령으로 발령을 받아 오게 되었다. 지방청 기획과(현, 조사 지원과) 근무로 현장조사를 한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조사업무를 하자니 여러 모로 걱정이 앞섰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농가경제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일단 조사구를 자주 방문하고 응답자를 자주 만나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을 조사구에 머물고 많은 대화를 통해 대상가구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았다.

내가 담당하게 된 조사구는 서천군 비인면 바닷가에 위치한 있는 조사구로 어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조사구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농가는 3호 농가로 올해로 78세 동갑내기 노부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경영주께서는 그 연세에 충남에서 꽤나 전통 있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조장에서 경리만 40여년을 보아오신 분이다. 재산도 제법 많이 축적했지만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자식들 사업자금, 빚보증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지금은 양조장 문간방에서 막걸리 한斗 병 팔고, 임대료 없는 친인척 명의의 벼려진 땅에 온갖 채소 농사를 지어 시장에 내다 팔아가면서 초라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농가에서 생산한 옥수수, 토마토 등 각종 채소를 사무소 직원들과 직거래를 통해 판매를 도왔고, 금요일이면 대전에 사는 큰아들 집에 직접 기른 각종 채소 등을 배달을 하는 등 나름대로 유대관계를 쌓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경영주께서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주위에서도 보아왔지만 중풍이라는 병이 한번 쓰러지면 완전회복이 불가능 하지 않던가, 또 연세도 적지 않은데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익산 원광 대학병원으로 병문안 갔을 때 말없이 내 두 손을 꼭 잡고 눈가에 눈물이 글썽 이시는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표본농가를 대체해서 다른 농가를 조사해야 하는지 고민에 쌓였다. 표본

농가를 대체하게 되면 어르신과는 다시 못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쉽기만 하다. 내 부모님 생각에 그 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일단 본청 실사과와 협의하여 당분간 경과를 지쳐 보기로 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여 돌아오셨다. 아직 언어와 거동은 예전처럼 완전하지 못하지만 요즘도 출장 가는 날이면 두 내외분이 드시는 밥상 위에 40여 년간 매일매일 써오신 일기장과 농가경제 일계부를 올려놓고 내가 오기만 기다린다. 일기장엔 그날 수입, 지출사항은 물론 사소한 일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다.

일기장의 글씨는 예전처럼 곱고 바르지는 않지만 오늘도 내가 출장수행을 마치고 돌아가면 그 일기장에는 ‘통계청 임주사 다녀감.’이라고 기입될 것이다.

요즘 소통(疏通)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통계조사 역시 응답자와 통계조사관이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소통하는가에 따라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소통하는 세상이 아닐까 한다.

아무쪼록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전화기 저쪽에서 “임주사! 오늘은 몇 시에 올 거야?”하는 어르신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

# 이게 자네 천직이야

김 애 아 | 동북지방통계청 춘천사무소



나는 통계청에 들어온 이후 닭고기를 싫어한다. 남들처럼 닭고기의 냄새나 맛 때문에 닭고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생생한 현장경험을 하고 닭고기가 싫어져 버렸다. 물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혀바닥을 오려붙여놓은 듯한 닭 벼슬과 화려하면서도 야릇한 광택의 깃털, 쏘아보는 듯한 두 눈 등, 닭에 대한 모든 것을 질색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닭이 마당에서 콩콩 거리는 시골 큰집도 늘 안 가려고 꽁무니를 빼었고, 치킨을 먹다가도 살아있는 닭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면 몸서리를 치곤했었다. 그러나 양념 통닭이 대중화된 이후에는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 맛에 이끌려 그 모든 것을 잊고 정말 맛있게 닭요리를 즐기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통계청에 입사한 첫 해 농업기본통계조사 이후로는 다시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다.

통계청 직원이라면 누구나 농업기본통계조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벌써 농기본을 끝내야 한 해가 끝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추운 날씨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면접조사는 물론이고 빠짐없이 조사구 요도를 정비할 생각에 모두들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더욱 나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다가 겨울이면 수족냉증에 시달려서 기모가 대인 타이즈와 양고라 스웨터, 일본산 손 난로, 누비가죽 부추 등 농기본용 피복과 소품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런 내게 추위에 대한 두려움조차 제쳐두게 했던 2002년 당시 문제의 조사구가 있었으니 원주 시내를 약간 벗어나 자리 잡은 대명원이란 산동네였다.

입사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던 나는 다행히 출장소장님의 배려로 버스로 이동이 가능한 근거리의 농가경제 조사구를 담당하고 있었고, 농업기본통계 조사 역시 비교적 가까운 조사구들을 맡게 되었다. 차 없는 신입인 나는 다른 직원들에게 더 먼 조사구를 맡기는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마음에서였는지 어쨌든 남들보다 일찌감치 농업 기본통계조사 준비조사에 나섰던 것 같다.

2002년 농업기본 통계조사는 2001년 농림어업총조사 이후 처음 하는 조사 인지라, 조사구 요도와 가구명부를 완전히 새로 작성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개인당 총 4조사구를 담당했는데 내 경우 한 조사구는 아파트 조사구라 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덜했고, 두 조사구는 농가경제 조사구의 근처에 있어서 대략 위치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 조사구가 문제였는데 지리상으로 볼 때는 네 개의 조사구 중 가장 가깝다고 사람들이 말했다. 그 곳에 한 번에 가는 버스는 없다고 하기에 시내에서 한 번 버스를 갈아탄 뒤 물어 물어 그곳 버스 정류장 앞에 내릴 수 있었다. 내리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니 맞은편에 조사구

요도와 비슷한 도로와 집들이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동네가 나환자들이 모여서 이룬 양계 농가촌이라는 것을 까맣게 몰랐다. 오히려 가구명부를 보니 다른 조사구에 비해 가구 수가 적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러나 길을 건너 동네 오르막을 오르며 좌우에 펼쳐지는 풍경들은 정말 태어나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빈 집 수준을 넘어선 폐가와 나뒹구는 세간들, 무참히 허물고간 축사와 거적 때기들, 닭의 폐사 흔적까지 고스란히 내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집이 한 두 집은 아니었다. 음산한 날씨까지 한몫 더해 짙은 순간에 나는 이전에 보았을 법한 이름모를 영화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묘하고도 공포 스러운 기분에 사로 잡혔다. 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 보니 멀쩡한 집들도 보이고 한두 명 오가는 사람들도 보였지만 그런 공포감과 충격을 안고는 그냥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막막하고 정신이 명했지만 억지로라도 다시 나가 보기로 마음을 먹고 사무실로 향했다. 들어와서 담당 계장님과 여러 직원들에게 다녀온 조사구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 동네라 하여 설마했는데 그 곳 인줄 몰랐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속초에서 원주로 발령난지 5개월 밖에 안 된 농기본 담당 계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저 가까워서 차 없는 나를 배려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조사구의 내막을 알게 된 나는 정말 울고만 싶었다.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직장에 갔으면 이런 고생 안하지 하는 생각부터 백수생활을 청산하고 통계청 입사하여 큰 효도라도 한 것 인양 뿌듯 했던 일까지 만감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까지 쳐버릴 순 없었다. 통계청이라는 곳에 몸 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이 본조사 기간이 되었고, 어쨌거나 내게 맡겨진 일은 해야 하겠기에 다시금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조사구에 나가 한 가구 두 가구 조사를 해나갔다. 이후 신입직원의 실사지도에 나오셔서 실사지도가 아닌 실사(?)를 하시느라 무척 고생하셨던 원주출장소 소장님과, 차 없이 고생할 후배를 위해 함께 나와 직접 조사업무를 챙겨주셨던 선배님의 배려가 있었기에 아직까지 이곳에서 이렇게 베티고 있다.

사실, 그 동네에 일반적으로 나환자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저 지독한 계분 냄새와 내가 싫어하는 무수한 닭들이 있었을 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2년 농어기본통계조사를 생각하면 몸서리 치게 끔찍스럽기만 했는데 지금은 태어나고 자란 곳도 아닌 생전부지 낯선 곳에서 척박한 현실(?)을 감당해냈던 그 때의 마음가짐이 지금의 내게도 있는 가를 스스로 반성 해보게 된다. 때로는 조사 업무가 너무 힘들어 다른 취업 사이트를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참 뒷 모르고 열심이었었다. 어느새 세월을 보내며 그 때를 추억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씩 생겨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여 사춘기가 지났지만 나 자신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조사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 이제야 언젠가 이 직업에 대해 고민하던 내게 건네셨던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게 자네 천직이야...

# 열려라 참깨!

조혜경 |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는 원만히 지낼 수 있고, 나의 생각과 의견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다는 것을, 여기 통계청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 자신의 그런 결함을 새삼 통감할 수 있게 한 계기를 말하고자 합니다.

2009년 2월 24일! 낯선 사람들 속에서 생소한 일을 시작하는 통계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의 사무실은 마침 부산사무소와 경남사무소의 통합 업무로 바쁜데다가, 현영기 청장님의 통영사무소 방문 전날이기도 해서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분위기에 묻혀가자는 자세로 살아온 저에게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어색함을 없애주기도 했고, 좀더 빨리 사무실에 익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난한 첫 출발이 웬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무실이 정돈되자마자 바로 저에게 앞으로 조사해야 할 조사구가 주어졌습니다.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지역으로 연동조사가 시작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연동, 당최 무슨 말인지?’ 지금은 너무 자주 들어 익숙한 용어이지만, 낯선 곳에서 처음 듣는 용어는 가리앉기 시작하던 불안감을 다시 슬슬 불러 일으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동’은 새로 시작되는 조사구를 뜻하며, 조금은 힘들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조금은 꺼려지는, 하여튼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많다는 뜻을 가진 모든 말의 함축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지역은 그런 연동조사구로,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의 선임자가 이제 막 얼굴을 익히고 설득하여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선임자와 그 곳을 방문했을 때, 그 선배를 너무나 편하게 맞아 주시는 조사구 주민들의 웃음 띤 얼굴이 얼마나 저를 안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 저렇게 편안하게 가족처럼 지내면서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 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직업이야.’ 평소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던 저로서는 이 일이 더할 수 없이 쉬워 보이고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 그 조사구를 찾았을 때 낯설어 하고 조금은 경계하는 듯한 그분들의 태도에 서운하기도 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닌가... 이게 아닌가... 왜, 뭐가 잘못된 거지?’ 처음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못되긴 했더군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알아온 사람들은 몇 년, 아니 몇 십 년간 같이 지내오면서 제가 어떤 사람 인지를 알고 저 또한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처신했기에 무난히 지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구의 그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넘데데한 얼굴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낯선 사람이 대뜸 찾아와서 밑바닥으로 깔리는 저음의 목소리로, ‘지난주에 일은 하셨느냐?’, ‘그럼, 지난 주에는 몇 시간쯤 일을 하셨느냐?’, ‘전기세가 누락되었는데, 혹시 미납하신 거냐?’라고 물어보니 어떤 질문이든 대답을 해 줄 마음이 선뜻 들었겠습니까?

전 일단 우리 팀 선배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선배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조사구의 주부들은 모두가 ‘언니’나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그 호칭이 정말 어색하더군요. 30대 후반 쯤의 언니한테 ‘어머니’라고 했다가 한 선배한테는 맞을 땐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한다고... 처음에는 같은 주부로서, 엄마로서 느끼는 일상적인 고충을 주제로 대화를 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지나가는 말처럼, 아니면 끝인사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선배들의 모습에서 연륜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조사구 각 가구 구성원들의 이름부터 외웠습니다. 선배들로부터 맨 처음 배운 것은 부모는 자식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얼굴에 웃음부터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자녀

들의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니 저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해야 할 이야기가 생각나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니 자연히 친밀감도 생기고 조사에 대한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사구와 각 가구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통계 조사의 기본을 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일에서 아주 낭패스러운 단어가 있습니다. ‘불응’.  
서두가 길었지만,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사례는 불응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구는 경제활동인구 및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입니다. 가구주가 자영업자  
이고, 배우자는 주부이며, 직장을 다니는 큰아들과 대학을 다니는 둘째아들이  
있는 아주 평범한 듯하면서도 유복해 보이는 가구입니다.

이 조사구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어머니 얼굴을 처음 봤 것은 거의 두 달  
가까이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문은 언제나 열리지 않고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구를 방문할 때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하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조금은 이론  
더위 때문에 땀을 흘리며 지쳐있었고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 같이 문이 열리더군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시죠?”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입니다. 어머니.”

“일단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를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잡상이의 줄 알고 악 열어주려고 했는데, 어제도 여호와의 증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두 시간이나 죽치고 있어서 그냥 쫓아냈는데... 파일을 안고 있기에 관공서에서 나온 것 같고, 덥고 지친 것 같아 물이나 한 잔 주려고 열었어요.”

어머니는 통계청에서 이 지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굳이 필요성과 의무감을 느끼지 않아 피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시원하게 음료수 한 잔을 들이켜고 난 뒤 같이 갔던 선배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중요성과 정보누출은 절대 없다는 것과 함께 앞으로 어머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도 끝내 가계부에 대해서는 운도 떼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매번 이렇게 찾아오고 얼굴을 대해야 하는 일인 것 같으면 사양하고 싶다.’는 어머니 말씀 때문에...

그래도 매월 답례품이 나올 때마다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부담스럽다며 사양하시지만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 나온 거라 받으셔야 한다며 억지로 손에 잡혀드리곤 도망치듯이 돌아나오 길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래야 얼굴을 익히고 저의 이 가륵한(?) 정성을 알아주실 테니까요. 그렇다고 찾아갈 때마다 얼굴을 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횟수가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경활 보조 조사표를 꽂아 놓으면 회수한다는 날짜에 꼭 내용을 기입해서 내놓아 주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약간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전화로 물어보면 귀찮아하시는 듯하면서도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 믿고 싶습니다. 처음에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가구도 끈질기게 노력하면 반드시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요.

천 아마 내일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 분의 문 앞에 설 것입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제발 저를 보고 웃어주세요.' 그리고 주문처럼 외칠 것입니다.

"열려라 참깨!"



# 나는 농사꾼!

박 미 정 | 동북지방통계청 농수산조사과



통계청에 입사한지 어느덧 9년째를 접어들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경남 거창출장소에 첫 발령을 받아 농가 경제조사를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농사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포항출장소와 사회조사과를 거치면서 계속 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했었다. 사회조사과 일은 가구를 방문 하여 조사하는 일이라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를 선호하는 면이 많아 9년의 직장생활 중 7년 정도를 사회조사과 업무를 했다. 낮에 만나지 못한 가구 때문에 퇴근 후에도 가구를 찾아가 쓰기 싫다는 가계부를 써 달라며 외판원처럼 담례품을 들고 다니면서 부탁하는 일에 서서히 지쳐갈 무렵 농수산조사과로 발령이 난다.

다른 과로 지원을 해 놓고 한참동안 발령이 나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을 무렵 발령이 난 것이다. 이제 가구를 찾아가 굽실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이라 설레기도 했다. 또 접해보지 못한 업무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무게감도 느껴졌다. 그 중에서도 농림부와 통합이 되고 난 뒤 새로운 직원들이 농수산조사과에 많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됐다. 그나마 사회조사과 선배 언니랑 같이 발령이 나서 조금은 안심이 됐다.

농수산조사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아저씨들만 빼곡히 앉은 자리를 보고 무척 낯설었다. 그 중에 아는 사람이 몇 명 있긴 했지만, 분위기가 사회조사과랑 너무나 달라서 내 자리에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사회조사과에선 주위가 모두 여자라서 일을 하면서도 옆자리에 앉은 언니들에게 이것 저것 물어보고, 수다도 떨면서 일을 하곤 했는데, 농수산조사과에선 이리 봐도 남자, 저리 봐도 남자, 게다가 바로 옆자리에 앉은 짹지가 키가 190cm에 가까운 우람한 체격의 소유자였다. 처음엔 살짝 긴장하긴 했지만, 큰 체격과는 달리 가는 목소리에 꼼꼼한 성격, 또래도 비슷해서 몇 마디 주고 받다보니 금세 편해졌다.

내게 주어진 일은 처음해보는 작물재배면적조사와 농작물생산량조사, 가축동향조사, 축산물생산비조사였다. 다행히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전에 했던 농가경제량 조금 비슷한 면이 있었지만, 작물재배면적조사는 앞이 깜깜했다.

성주군에 약 40개 단위구를 맡았는데, 단위구를 찾아가서 그 지번에 심은 작물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었다. 작물이라고 해 봤자 집에서 먹는 상추, 깻잎, 고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많은 땅에 심어져 있는 작물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또 작물을 안다하더라도 면적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막막했다.

이틀에 걸쳐 성주읍과 가천면에 있는 단위구 인수인계를 마쳤다. 어디가 어딘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머리도 아프고,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날부터 혼자서 단위구를 찾아 나섰다. 한두 시간 헤맨 단위구도 있지만, 다행히 모두 찾을 수 있었다. 2회 작물조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직원들의 도움으로 내 보폭으로 면적을 기늠하는 방법, 작물도감을 보고 그 기간에 많이 볼 수 있는 작물들을 공부했다.

첫 조사기간 이틀 동안에는 과장님의 배려로 직원과 동행출장을 갔다. 열심히 따라 다니면서 작물을 배우고, 조사하는 방법도 배웠다. 다음날부터 혼자 출장을 다니면서 모르는 작물은 사진을 찍거나 살짝 뽑아와 사무실에 와서 물어보고, 현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직접 묻기도 하면서 조사했다. 3회, 4회 작물조사를 끝내고 나니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하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반찬으로 해 먹던 감자가 밭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콩잎과 팥잎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는 안다. 하지만 처음엔 어찌나 신기하던지…….

작물조사를 끝내고 나니 생산량조사가 다가왔다. 팀을 짜서 같이 출장을 다니면서, 양파랑 마늘도 캐고, 벼도 베고, 탈곡도 했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논벼생산량조사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노란 장화를 신고 논에 들어갔다. 푹푹 빼지는 밭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한쪽 밭을 빼고 나면 또 다른 한쪽이 빼지고, 하마터면 논에 엎어질 뻔도 했다. 내 손으로 직접 어설픈 낫질을 해보고, 날알도 해아려 보고, 탈곡에 제현까지,

농사를 직접 짓는 농사꾼이 된 것 같았다. 물론 육체적으론 힘이 들었다. 하지만 모두 처음 해 보는 일이라 재밌고 신기했다.

농수산조사과 일을 한지 이제 겨우 6개월이 조금 지났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가끔씩 큰 목소리로 우리 과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드시는 과장님! 알고 보니 직원들에게 관심도 많으시고, 직원들과 좀 더 친하게 지내고자 노력하신다. 또 무뚝뚝하니 본인들의 일에만 충실할 것 같은 우리 과 아저씨들! 같이 지내보니 모르는 일을 친절하고꼼꼼하게 설명해주시고, 농사꾼이라 그런지 순박한 모습에, 정도 많으시다.

면바지에 꽉 조여 멘 등산화, 긴소매 남방, 목에 두른 손수건, 얼굴엔 햇빛을 가려주는 창이 넓은 모자!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다. 사회조사과 언니들이 요즘 내 모습을 보고 ‘농수산조사과로 가더니 피부가 많이 탔네?, 복장이 그게 뭐야?, 완전 촌사람 다 됐네?’ 그렇게 얘길한다. 하지만 그 말이 그렇게 싫진 않다. 한 여름에 작물조사를 하고 나면 갈증이 나고,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다리는 묵직하니 아파온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나는 또 다시 논·밭을 돌아다니고 있다.

농수산조사과 일이 여자에게 힘이 드는 건 사실이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논·밭에서 만나는 뱀도 싫고, 산 속에서 혼자 조사를 하러 다니기가 무섭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접하는 모든 일들이 신기하고 재밌기만 하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부딪쳐 볼 생각이다. 당장이라도 ‘출동!’이라고 하면 차에 실어놓은 작업복과

등산화를 착용하고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있다. 처음 농수산조사과로 발령 받았을 때, 설레는 그 마음 그대로를 잊지 말고 많이 배우면서 진짜 농사꾼다운 모습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겠다.



마늘 생산량 조사 현지실습



논벼 생산량 조사 현지실습

# “니하오! 통계청입니다.”

이 인 옥 | 충청지방통계청 증평사무소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보게 되면 무언가 신기한 것을 본 것 마냥 외국인의 뒷모습까지 좋아 보곤 했지만 요즘은 어디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내가 만난 외국인은 신기하게 보기만 했던 키가 크고 눈이 파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에 조선족 중국인이었다. 조선족이라고는 하지만 한국말을 많이 알지 못해 대화는 많이 힘들었다.

처음 중국인의 집을 방문하기 전 남자분들만 산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남직원과 함께 동행하였다. 평범한 시골집에는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듯 검은색 차광막이 온 집안을 막고 있었고, 집 앞에는 사나운 개가 짖어대고 있었다.

“계세요?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집안에는 남자 분 두 분이 계셨고 집안은 어두웠다.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걱정이 앞섰지만 어서오라는 말을 들으니 어쩐지

말이 잘 통할 것만 같았다. 미리 준비해온 중국어 인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표를 보여주고 조사에 협조를 부탁했다.

“통계청에서 여기 동네에 취업자, 실업자 통계를 내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그렇지만 대답은 모르겠다는 눈빛과 절레절레 짓는 고갯짓. 한참을 큰 소리로 설명을 했지만 여전히 알아듣지는 못 했고, 이미 가구원으로 되어있는 아저씨를 이름을 말하자 그제야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장건민 아저씨 여기 사시잖아요. 아직 여기 계시죠?”

가구주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시작하려 하니 한 아저씨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어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아저씨는 인사장을 상대방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내가 알아듣는 단어는 오직 ‘통계청’이라는 단어 뿐. 한참을 통화하던 아저씨는 상대방을 바꿔주었다.

“통계청이요? 뭐 하러 오셨다구요?”

“네. 저희가 여기 두 분이 사시는 동네에 경제활동인구조사라고 취업, 실업 통계를 내는 통계조사를 하고 있어서 찾아왔어요. 여기 두 분이 일을 하시는가고요.”

“아. 그래요? 그 두 사람 일 안 해요. 실업자예요.”

통화가 끝나고 상대방에게 조사에 응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는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며 응답을 해주었다. 그러나 어찌나 한국말을 모르던지 이름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이름도 잘 말하지 못해 통장을 보여주며 이름을 알려주었고, 중국어 조사표를 보여주며 겨우 겨우 인적사항을 적기 시작했다. 같이

온 남직원이 턱자 위에 놓인 중국어가 잔뜩 써진 담배를 만지며  
“중국 담배인가봐.”

하며 신기해하자 한 아저씨가  
“담배 꿔.”

라는 말을 했다. 그 아저씨의 한 마디에 우리는 다같이 웃었다. 아저씨들은 자세한 한국말은 잘 모르지만 일명 접대성 멘트는 어느 정도 익힌 상태였다. ‘어서오세요.’, ‘수고하세요.’ 이런 말들. 그렇게 한참을 조사를 하고 나니 한 아저씨께서 달력의 날짜를 가리키며 몸짓을 했다. 나는 한참을 쳐다보았지만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는데 남직원이 그 뜻을 알아차렸다.

“아. 이 날에 다시 중국으로 가시는다는 말씀이세요?”

아저씨는 얼굴이 환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다음 달 초에 다시 중국으로 간다는 말을 들으니 힘들게 조사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다음달. 다시 그 집을 찾아갔을 때는 검은색 차광막은 그대로이고, 사납게 짓는 검정개도 그대로 있었다.

‘분명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네?’

집안으로 들어가니 전월 방문했을 때 그대로이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문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사무실로 돌아왔고 퇴근할 무렵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현재 그 집에는 중국인이 살고 있다고 저녁쯤 방문해 보라는 이웃 주민의 전화였다.

다음날 퇴근 무렵에 조사구를 방문하여 집을 방문하니 아직 그 곳에는 사람

들이 북적 북적 하였다. 남자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분도 함께였다. 전출을 갔다는 가구주의 딸이었다. 저녁식사를 하려는지 다른 곳에 사는 중국인들도 함께 모여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구주와 그의 딸이 어느 정도 말을 할 줄 알아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다시 전입한 딸의 신상을 물어보고 같이 사는 다른 분의 신상도 여쭈고, 일하는 곳 일하는 시간까지 한참을 물어 조사를 하였다. 문득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 생각나 가구주의 딸에게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는데 왜 가지 못했냐고 하자 멋쩍게 웃으며 말 못한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불법체류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조사에 대한 협조도는 아주 좋았으나 문제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근무시간에 만나지 못하면 전화조사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사구내의 가구를 모두 만나도 그 가구를 만나지 못하여 퇴근 후 40분 거리를 달려가 10분정도 조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몇 번 반복하였다. 낮에 사람이 있어 만나는 날이면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말이 통하지 않아 애를 먹어도 싱글벙글 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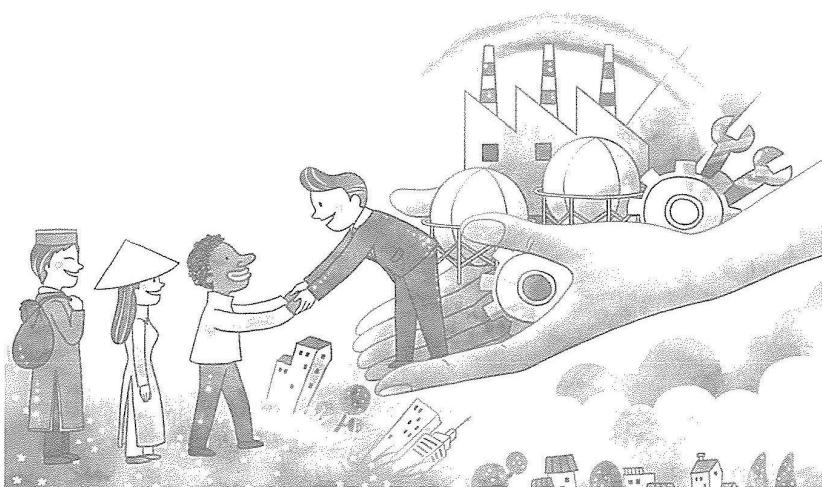
조사를 하며 어눌한 말이지만 가구주 아저씨는 여러 가지 말을 하셨다. 한국에는 여러 번 왔고 용접 기술이 있으시고, 일도 여러 군데에서 하셨지만 받지 못 한 임금이 많고 아예 받지 못하는 금액도 꽤 많으시다는 말을 하셨다. 그런 말을 듣고 있자니 낯선 곳에 와서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돈까지 못 받은 아저씨에게 돈을 빼먹은 그 업주가 같은 한국인으로 너무 부끄러웠다.

그렇게 몇 달을 조사하고 그 곳은 연동표본이 끝나 이제는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낮에는 사람이 없어 저녁에 찾아가는 적도 많았지만, 불옹을 하는 어느 가구보다 친절하고 사람들도 순박했던 가구. 낮선 땅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일하기도 힘든 때에 가끔 선물을 들고 가는 내가 반가웠을지도 모른다.

한 번쯤은 중국말로 인사를 해줬으면 참으로 반가워했지 않을까 싶다.

“니하오! 통계청이에요.” 이렇게 말이다.



# 조사 설득의 양면성

김 낙 은 | 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조사대행 업무인 2008 특수교육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 이제 조사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물론, 그간에 고생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돌이켜 보면 임시조사원 채용 때마다 늘 겪어온 일이지만 절차가 많았는데 다행이 금번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도 경험이 많은 지원자가 대다수였고, 따라서 우수인력을 선발하느라 오히려 애를 먹었다. 그래서 교육 때에도 그랬지만 업무지침이며 전달사항 등을 잘 따라해서 대부분의 조사가 순탄하게 온 것이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비협조(응답거부) 가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부분 이미 2~3차례 이상 방문하여 시도하였지만 대화도 안 되거나 나름대로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제 담당 팀장인 내가 나설 차례가 온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상처를 설득하러 나갈 때가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되었다. 사실 이런 시간이 오기 전에 조사가 잘 마무리되기만 바랬는데……. 우리 직원도 아니고 임시조사원 앞에서 잘 안되면 내 체면은 또 어떻고……. 특히나 이번 조사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등 미취학실태를 조사하므로 조사거부와 같은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었었다.

일단 3가구를 선정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담당조사원께 방문날짜와 시간을 정해달라고 하였는데 마침 당일에 2가구가 약속이 되었다.(사실은 오지 말라는 데 간다고 통보한 것임) 퇴근하고 귀가하는 시간에 맞추기로 하여 저녁 8시와 9시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사무실에서 약 30km 가까이 떨어진 곳이라 잘 설득이 되어야 바로 다음 가구로 이동해야 가능할 수 있었다.

첫 가구에서 8시에 조사담당과 만나기로하고 출발하였다. 남양주시 진접읍 관할 끝 지점에 위치해 퇴근시간이라 빨리 달렸어도 1시간여 소요되었다.

내가 조금 먼저 도착하였다.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다. 조사담당의 말로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안에서 응답하기 쉽다고 거부하다가 이내 대꾸도 안한다고 하였다. 몇 차례 방문 했지만 똑같다고 했다. 그래도 다행히 전화는 통화가 되어 오늘 온다고 연락했는데, 오지 말라하니 일방통고하고 방문하는 셈이 되었다.

그 동안의 여러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우선 문을 열게끔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래도 화 안내고 전화도 받아주는 것을 보면 가능할 것 같았다. 늦은 시간에

아파트 복도에서 계속 큰소리를 내면 어떻게든지(창피해서라도…….) 문을 열어주겠지? 그러면 정중히 사과하고(밤늦게 소란 피운데 대해…….), 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곧 조사담당이 도착하였다. “우리 일의 특성이 그때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니 그냥 올라가서 대처해 봅시다.”하고 들어갔다.

아파트 2층이었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오히려 인기척이 없었다. 분명 불이 켜져 있어 사람이 있었다. 할 수 없이 큰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불렀다.

“쿵, 쿵, 쿵. 계세요~, 통계청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반복했다.(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밤중이고 복도여서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한참 후 현관문이 열리며

“안한다는데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하냐구요!!”

아주머니께서 큰소리를 내었다.

늦은 시간 방문을 정중히 사과드리고 조사 취지를 설명하며, 잠시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다.(물론 설명 중에도 계속 거부 하셨죠) 얼떨결에 현관까지 들어가신 아주머니께서 더는 안 된다고 하신다. 완강하게 막으셨다. 아니 왜 그러시느냐고 나도 강하게 여쭈어 보았다.(사실 안에 있는 장애아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에 잠시 며뭇거리던 아주머니께서 그때부터 집안의 여러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 주변 사회생활에 대한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등…… 한참을 이야기 하시고 나서야 마음이 좀 편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을 우리에게 다 털어 놓으

셨던 겁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고 다행히 취지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조사에 응해 주셨죠. 우리 임시조사원께서도 열심히, 그리고 최대한 상냥하게 대화식으로 그렇게 조사를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답례품을 드리고, 못다 하신 말씀을 마저 들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측은하였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고통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다.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원께서 저에게 인사를 하였다. 저도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서로 격려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은 미취학실태조사표가 2매였는데 지금 1매 더 조사함으로써 1일치 일당을 더 받게 되었더군요) 내려오면서 나는 속으로 기분이 매우 좋았다. 왜냐~구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설득에 성공하는 경우는 일단 얼굴을 볼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 지금 몇 시지? 아!, 벌써 9시가 다되어 갔네. 다음 가구로 빨리 가야했다. 얼른 다음 조사원께 전화하여 9시 반까지 가겠다고 하고 냅다 달려갔다. 차를 운전하며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설득에 성공한 기쁨과 또 다시 설득하기 위한 고민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다음 가구도 지금처럼 잘 되어야 하는데…….

대상가구 근처에서 담당과 같이 만났다.(그래도 날라서 갔기에 9시 반을 맞추었다.) 그런데 이분은 부군과 같이 나오셨다. 차량도 없고 늦은 밤중이라

남편께 부탁해서 태워달라고 하였다는군요. 얼른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시는데 잘 되셔야죠.”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았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둘이 가구로 향했는데 조사원께서 먼저 가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신다. “아, 아주 잘 되었습니다.” 하자 너무 기뻐하며 우리도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같이 걱정을 했다.

이번엔 조그만 주택이었다. 철문이 닫혀있어 열고 들어갔는데 형편이 썩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왔다. 보호자를 불렀다. 아이가 나와 안 계신다고 하고, 좀 전에 두 분이 같이 나가셨다고 한다.

‘아! 조금만 일찍 왔으면…….’ 아쉬웠다. 대답하는 아이가 조그마한데 똑똑해 보였다. 몇 학년이냐고 물으니 중학생이란다.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이에게 물어봐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 조사원께서 눈치를 주었다. 이 학생이 대상자라는 것이다. ‘아!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체구가 작았구나.’ 빨달장애였다.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를 물어 통화하였다. 애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야단을 치신다. 조금 늦어져 방문하니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술자리 약속이 있어 두 분이 근처 어디에 나와 있다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래도 꼭 뵙기만을 청하니 내일 2시 이후에 아빠가 집에 계시니 그때 와보라는 것이다. 다행이었다. 그래도 아저씨하고 대화하면 잘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전화 안에서 아저씨 목소리인 듯 ‘안 해준다는데 왜 자꾸 전화

까지 하냐'는 화내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조사표와 안내장, 명함을 우편함에 둘 테니 가능한 작성을 부탁한다고 하고 오늘 방문을 마치었다.

다음 날 3시쯤 다시 방문했다. 어제 그 학생이 문을 열어 주었다.

"아빠 계시니?" 하고 묻자 계신다고 하여 여쭈어 달라고 했다.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빠, 손님 왔어요. 통계청……."

"아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와서 귀찮게 해!"

소리를 버럭 지르신다.

"통계청입니다. 잠시만 뵙게요."

아저씨가 나오면서 다시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화를 내신다.

"아이하고 말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아이한테 말시키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냐, 이 씨x 안 한다는데 왜 자꾸 지#이야"

〈또 반복, 더 크게 한 번 더〉 소리를 지르신다.

'하! 참! 답답하네. 아니 무슨 말을 시켰다고, 또 뭘 안 한다는 건지' 속 터지는

마음 꾹 눌러 참고,

"저기……." 말도 꺼내기 전

"이 씨x 나가! 빨리 안 나가?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나가!"

하면서 어제 두고 간 조사표를 마당에 내던지며 나를 떠밀어 낸다. 마당으로 밀려 나오며 그래도 어찌 말 좀 붙여 보려고

"조사 안하셔도 좋습니다. 얘기만 잠깐……."

“뭘 얘기해! 씨x 빨리 나가라니까!”

나를 확 밀쳐 낸다. 내 힘 하나도 안들이고 발만 들다 놋다하여 그대로 대문 밖으로 쓱겨져 나왔다.

“꽝~ @#\$%…….”

대문 부서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

집안에서 무언가 계속 큰소리가 들려왔다. 황당한 상황에 조사담당과 둘이 마주보며 아무 말을 못했다. 좀 창피했다. ‘할 말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람. 그나저나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 정신을 차리며 말을 꺼냈다.

“지금처럼 너무 감정적으로 거부하면 저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조사원께 겨우 말붙이며 쑥스러운 모습으로 골목을 나왔다.

오늘은 실패다. 참으로 속상했다. 어제와는 정 반대다. 아니 무슨 얘기라도 붙여봐야 되든 안 되든 할 텐데 이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패퇴하는 꼴이 되어 내 자존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씨! 다시 확 들어가서 누가 죽고 사나 결판을 내볼까?’

‘아냐, 참자. 어디 이런 꼴이 한두 번 있었나?’

담배를 빼빼 태워대면서 마음을 가라 앓혔다. 정말 수명이 줄어 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온다.

조사원께 몇몇 물어보며 오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집 전화만 있고 어른들이 계속 부재중이어서 전화를 수차례 하게 되었고, 또한 방문 시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아이와 말하게 되었고, 대상 가구의 형편이 어려워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많은 전화통화로 인해 설득이 오히려 안한다는 상대의 의사표시를 무시한 것이 되어 이미 감정이 상해있는 터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나타내고 싶지 않은 자녀의 장애 상태를 본의 아니게 만나고 물어보게 된 점이었다. 형편의 어려움과 정부 불신은 대화가 되면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면서 이해시키고 풀 수 있지만 앞의 두 가지는 먼저 풀었어야 했다.

따라서 실패에 대한 해결은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한 두 차례 접촉을 시도해보고, 잘 안될 때 상위자가 한번의 기회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하려고 너무 많이 접촉을 하다 보면 이미 상대가 마음을 굳힌 상태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마음 단계를 정리해 보았다.

1. 조사를 해줄까 말까
  2. 안하고 싶은데
  3. 우린 안 합니다
  4. 안 한다구요, 안 한다니까요
  5. 글쎄 안 한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6. 전화도 하지 마
  7. 불통(안 받음, 안 열어줌)

위 단계 중에 3번까지는 그래도 설득이 가능합니다. 4번부터는 감정이 들어가 화를 내는 단계이므로 설득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집니다. 어제 통화할 때 이미 4번 단계를 넘었으니 오늘 5단계이면 어떤 상황과도 관계없이 거부에 대한 마음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를 뒤로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에 돌아왔다. 예쁜 꽃 리본을 붙인 사탕 1통이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 어제 설득한 담당조사원께서 선물로 갖다놓았다는군요. ‘맞아! 어제 기분 좋은 일이 있었지, 비록 오늘은 안 되었지만 기분 풀자’ 갑자기 그 조사원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사탕 한 개를 입에 물고 피곤한 몸을 의자에 앉히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설득이란, 항상 성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패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 그녀가 통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임 선영 |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는 얼굴 한 가득 생글 생글한 웃음을 띠며, 평소보다 더 밝게 안부 인사를 건넨다. 이렇게 내 안에 몰랐던 쪽씩함을 꺼내게 된 지 어느 새 4개월이 지났다.

4개월 전, 나는 부푼 희망을 갖고 지방직에서 국가직 통계청으로 인사교류 해서 온 신출 통계인이다. 지역사회의 좁은 테두리에 갇힌 지방직이 답답했었고, 늘 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불만이었던 나는 새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그러다 통계청이란 곳을 알게 되었고, 내가 희망했던 분위기의 기관으로 생각되어 선뜻 교류신청을 하여 원하던 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의 땅이 커 보인다고 했던가... 역시 어느 일이나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임을, 또한 어떤 업무든 편한 업무는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맡은 업무는 소비자물가와 서비스업동향조사였다. 전임자에게 소비자물가가 통계청 업무 중에 제일 쉽고, 불용이 없어 편하다는 말을 들었기에 처음 멋모르고 할 때는 편하게만 생각했는데 사람 바뀐 줄 아는 모양이었던지 가는 곳마다 짜증 섞인 말투에 불~~옹~~, 또 불~~옹~~...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거울을 보며 한껏 웃음을 지어 보았다. 목소리도 도레미파솔~~음에 맞추어 다시 말을 건네 보았다. 그렇게 다가가기를 시도해도 완강히 불~~옹~~하는 곳은 여전히 있었다.

출입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원망의 눈길로 간판을 쳐다보았고, 이런 취급을 받아가며 앞으로 일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그 때 처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계청에 대한 인식이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호감의 기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통계청 직원입니다.”하는 소리에 환한 웃음이 짹 가시며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는 사람, 적대감과 의심의 눈초리로 노려보는 사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사람 등 어떤 말과 행동도 쥐하지 못하게 투명 막을 치는 사람들이 부지 기수라는 걸 난 그 때 처음 알았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점점 업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떨어져만 갔다. 사람들이 무서워졌고, 마음은 더욱 더 나약해져 팬한 자책감마저 들었다.

그 때쯤이었을 것이다. 어느 물가 대상처 중의 여사장님의 말씀 한 마디로 반전을 맛보게 되었던 것은. 그 여사장님도 처음엔 왜 자주 오냐며 짜증을 내셨던

분이었다. 그런 사장님의 무서워 겁내하면서도 조사 때마다 찾아가 인사하고, 그 가게의 물건을 사면서 더운 여름이라 힘들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면서 얼굴을 익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뜨거운 여름. 예기저기 무서운 얼굴로 대하던 불응 대상처를 지나 측 늘어진 어깨로 사장님의 가게에 방문하여 뒤크치가 다 까진 발에 덧신을 사서 힘겹게 신는 내가 사장님은 짜증스러움보다 딸처럼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이다. 그 날 처음 사장님의 진심어린 걱정을 듣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던 날이었는데 그 다음 달에 다시 그 여사장님의 가게를 들렸을 때, 사장님은 웃는 얼굴로 반겨 주시고는 인사하고 돌아서는 내게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셨다.

“여태까지 했던 직원 중에 가장 잘하는 것 같아.”

별 말 아닌 그 한마디에 뜻이 빠진 내 몸의 배터리가 충전되는 기분이었다. 쩍쩍 갈라져 메마른 내 마음에 한줄기 물이 되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가 생겨요~”

정말이었다. 그 때까지 갖고 있던 나약한 마음과 두려움은 없어지고 당당하게 해 볼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나를 뒤돌아보았다. 내가 너무 조급하게 사람들을 내 마음과 같이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지...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투명 막을 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던 건 아니었는지...

그후로 난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남들도 다 하는 그런 진부한 방법이지만 그 진부함이 진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계속 터득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나의 5가지 방법들.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는 계속 배우고 있다. 일명 통계인이 되기 위한 첫 걸음!

## 1.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

귀찮다고 짜증스러워 한다고 물러서면 안 된다. 최대한 활짝 웃음을 짓고 밝은 목소리로 일부 인사를 건넨다. 정말 통계청이라고 하면 불응하는 완강한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았다.

## 2. 애교 섞인 하얀 거짓말

들어가자마자 대뜸 조사한다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사장님 생각나서 인사나 드리고 가려구요~” 하며 최대한 생글생글 어울리지도 않는 애교를 떨게 된다. 또한 가끔 커피 한 잔을 사 가지고 가서, “같이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며 친밀해지도록 노력 한다.

사실 목적은 조사지만 하얀 거짓말을 해가며 따뜻한 정을 쌓는 것이 얼음장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이었다. 처음엔 하얀 거짓말일지라도 계속 마주하다보면 정이 쌓여 나중에는 진심어린 말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진다.

### 3. 가는 정 오는 정

통계청으로 옮긴 뒤 변한 것이 있다면 전보다 씁쓸이가 커졌다는 것이다. 필요한 물품 뿐 아니라 작은 대상처는 미안해서 작은 것이라도 꼭 사게 된다. 속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필요한 물품은 꼭 대상처에서 구입한다. 그렇게 가는 정이 있으면 전보다 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주는 오는 정이 있다.

### 4. 가족(?) 만들기

부모님 연배로 보이는 분들에게는 아버님, 어머님 불러가며 딸처럼 다가간다. 어머니 연배처럼 보여도 여자 분에게는 대뜸 어머니라고 부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상황을 봐가며 나의 또 다른 가족을 만든다. 그래서 내게는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겼다.

### 5. 동정심 유발 작전

갑자기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나 짜증내는 분들에게는 그들의 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나의 솔직한 상황과 부족한 내 탓이라는 자책을 해가며 설득을 해나가는 방법이다. 문을 닫고 뒤돌아 들어가 버리지 않는 분이라면 애원과 부탁에 얼음장 같은 그들의 마음이 녹는 것을 알았다. 조사의 당위성과 목적만을 내세우며 부탁했더라면 그 분들이 내게 다시 웃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배우고 축적하기까지 많이 부딪치고 깨쳤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나의 통계청에서의 일상은 계속 현재 진행형일 것이다. 그리고 다짐해본다. 더욱 더 잘하겠다는 다짐이 아닌 더 깨져보고 부딪쳐 보겠다고. 그것이 진정으로 날 위한 길임을 이제야 난 조금 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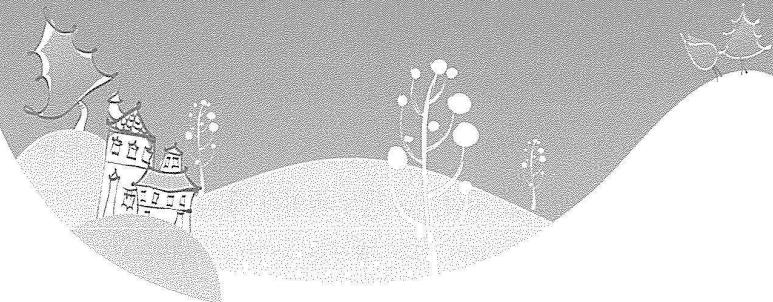


# 한발짝 더 가까이, 한 응답자 속으로



## 응답자

송미정, 김정순, 장규석, 이해정, 이지은,  
이미나, 조윤희, 오인수, 서은순, 권미옥,  
손영자, 김창선, 윤화자, 한성순



# 일일연속극이 된 전자가계부



송 미 정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정리

주부 경력 10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전자가계부를 접하기 전에는 가계부라는 것을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주는 가계부 책자를 받아서…… (어디 갔을꼬???)

항상 올해부터는 제대로 된 가계부를 써보리라 결심하고 약 5~7일간 열심히 쓰다 하루 이틀 미루더니 결국은 귀찮아서 작심삼일이 된 게 어언 7~8년이 된 것 같다.

간혹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가계부를 하루도 빠짐없이 쓰는 주부들을 보면 “와~ 저렇게나 꼼꼼하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때도 있었다. 또 한편으론 “저렇게까지 해서 살아야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집안일도 해야 하고 가깝게는 아이들과 남편 뒷바라지, 멀게는 시댁, 친정 대소사까지 챙겨야 하는

바쁘신 몸인데'라는 평계로 나 자신에게 합리화시켜가며 가계부를 안 쓰는 게  
익숙해진지 오래됐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부를 써야 된다니. 그리고 전자가계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정도 익숙한 전자가계부  
이지만 처음 전자가계부를 접했을 땐 정말 하기 싫었다.

어느 날 불쑥 통계청에서 가계조사를 한다고 집으로 방문했을 때, 정말 화가  
났다. 요즘처럼 어렵고, 범죄가 많은 시기. 즉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유출로 일어  
나는 범죄, 사이버 범죄, 또 전화로 걸려오는 폰뱅킹 사기 등등.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기에 통계청 직원이라면서 집을 방문해 나의 신상 그리고 가족신상  
정보, 가족관계 그리고 전자가계부, 또 특히 가계부에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 심지어 아이들이 어른들께 받은 용돈 하나하나까지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하니, 기분이 이만 저만 나쁜 게 아니었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계청 직원이  
오면 딱딱하고 통명스럽게, 대충 둘러대곤 했었다. 근데, 그것도 정이라면 정이  
랄까. 한달 두 달 방문해서 얘기도 나누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알아  
가다 보니 지금은 아주 편해졌고 부담도 없다. 통계청 직원도 한번의 찌푸리는  
인상없이 잘 대해줘서 고맙고, 미안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가계부도  
꼬박꼬박 입력하게 되고 어디 가서든 영수증은 항상 챙겨 들어오게 된다. 가계  
부를 쓰면서 나에게 새로 생긴 버릇이 되었다.

한달의 수입이라고 해야 남편의 월급이 전부. 그걸 가지고 저금, 보험료,

학원비, 생활비 등등 나누고 가르고 더하고 빼다보니, 한달에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돈, 그리고 저금되는 돈, 또 쓸데없이 많이 쓰게 되는 돈 정도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대단한 발전!!!!!!). 매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따로 반복 지출 수익란이 있어서 클릭만 하면 되니 그 또한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더불어 한달 지출과 수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하다.

또 내가 일일이 더하고 빼기를 계산기에서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계산되니 그 또한 얼마나 편리한가???(문명의 발달 참 위대하다.) 되도록이면 하루에 일어난 지출과 수익을 빼짐없이 미루지 않고 기록하려고 하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어떤 때에는 2~3일 메모지에 적어놓고 한꺼번에 기록할 때도 있다.

또 마트에 다녀온 날에는 가짓수만도 20여 가지를 넘게 적어야하는데, 그것 또한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는다. 한번씩 관리비, 또는 급여가 맞지 않을 경우 절대 등록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럴 때는 통계청 직원이 방문할 때까지 기다려서 한꺼번에 해결하거나 통화를 해서 해결하게 된다. 처음에는 아주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쯤 이야 쉬운 일이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가계부를 적어 볼까?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내가 지난달에 이렇게 많은 지출을 했네. 이번 달은 좀 줄이자'라는 생각은 가계부를 볼 때마다 생기지만 잘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런 마음이라도 생기는 게 어딘가 싶다. 가계부를 안 썼으면 지났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달을 반성

하는 아주 좋은 반성문이 된 것 같기도 하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면 항상 나오는 통계청자료가 정확한 건가? 누구맘대로 정했나 싶었는데, 내가 기록하는 게 통계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다.(정확하게 열심히 기록해야 겠네)

약간의 불만이 있다면, 모든 가정 경제가 오픈되는 것 같아 신경쓰인다는 것. 그래도 나의 가정 경제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집 저집 지출과 수익은 다르지만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집의 경제, 우리 고장의 경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쯤은 경험해 보고 꾸준히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도 아이들 햄버거 먹은 거랑 내가 사용한 지출을 기록해야 한다. 곧 월 마감도 해야 되네..... 이제는 꼭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닌 항상 봐야하는 일일연속극이 되어버린 전자계부를 가까운 이웃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근데, 우리 앞집에도 가계부를 쓸까???



# 좋은(Good) 것과 위대한(Great) 것

김 정 순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맞닿는다. 억 만 겹의 인연이 있어야 이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오랜 인연이 있어야 만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일인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만은 않는다.

왜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밝게 웃고 있는 저 모습 뒤에 어떤 모습이 숨어 있을까?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기까지는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람을 상대한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좋은 우리 이웃이 어느 날 범죄자가 되어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역시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믿을 놈 하나 없구나!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늘어나는 것이 싫어졌다. 내가 완전히 믿기까지 늘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불편함,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아는 일을 하고 익숙

하지 않는 것엔 늘 배타적인 그런 삶을 고집했다. 아마도 전형적인 A형의 스타일일까? 내성적이며 안정추구 형임..... 그런 내게 통계청 직원이라며 암전하고 상냥한 언니가 집들이 선물로 화장지를 들고 방문했다. 옆에는 이웃에 사시는 시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와서 통계조사표본가구라며 가계부를 좀 써달라고 하였다.

싫었다. 과히 남에게 내세울 것도 없는 살림, 그나마 약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댁근처 시골로 이사한터라,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 따윈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통계청 직원을 잘 알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착하고 친절한 색신데 왜 안 써 주냐?”며 “그것이 뭐 그리 어렵느냐며 선물도 주는데 빨리 써주라.”고 닦달 하시고 그리고 생글생글 웃으며 기분 나쁜 티 하나 안 내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통계청 언니. 귀찮고 번거롭고, 무엇보다 내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 너무 싫어 나는 계속 거절했다. 그러나 결국 난 두 사람의 간곡한 청과 공짜를 좋아하는 아줌마의 기질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통계조사 외에는 절대 밖으로 사생활 노출이 안 된다는 다짐을 받고서 가계부를 작성하게 됐다.

처음엔 수기로 작성하다가 어느 날엔 전자가계부로 바꿨다. 처음 가계부 쓸 때는 쌀쌀맞게 거절했는데 전자가계부로 바뀔 때는 선뜻 승낙했다. 왜냐면 이미 잡힌 고기, 알건 다 아는데 숨길 게 없는 것이다. 게다가 오 만원! 이라는 거금까지, 앗싸! 나의 공식적 비자금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가계부를 작성했다.

‘돈 받고 하는데.’라는 책임감으로 10원까지 열심히 적어내야 한다고 꼬치 꼬치 캐묻는 나에게(우리는 남편이 돈 관리를 하고 시골이라 시내로 출퇴근 하는 남편이 장볼 때가 많음) 남편은 적당히 하라고 했지만 내가 적은 가계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의 표본이 되어 나라의 경제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위대한 사명감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써야한다고 열심히 작성 했다.

그래도 가끔은 빠진 것이 있어서 월 마감 후 전화가 오면 “아! 맞아요. 가스 샀어요. 제가 안 적었나요?”를 몇 번하는 건망증 초기증상을 보이며 오늘도 열심히 가계부를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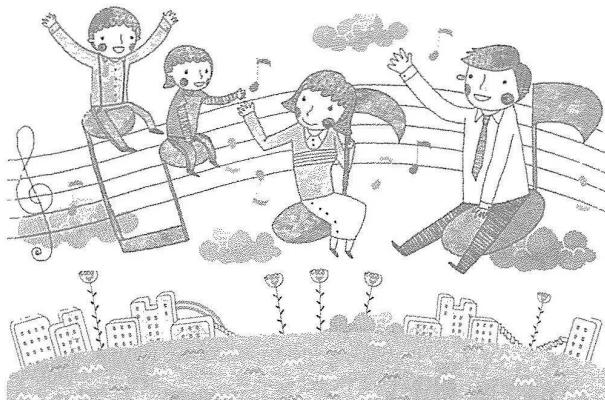
그리고 예전 신혼 초에 가계부를 써 봤지만 수입 지출만 있을 뿐 결산이 없다 보니 그게 그걸로 흐지부지 됐는데, 전자가계부는 월 수입지출뿐 아니라 세부 적인 지출내용이 보이니까. 아! 이달엔 외식을 많이 했구나, 의류를 많이 샀구나 하고 알게 되고 좀 더 아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카드지출을 많이 하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현금으로 쓰면서 결약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아무튼 가계부 작성뿐 아니라 결과를 보면서 깨닫는 바도 많고 아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 참 유익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Good)과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함으로써 위대한 것(Great)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통계청의 가계조사가 저에겐 아주 Great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조금 귀찮아서 쓰지 않았지만 내가 쉴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지만, 내가 조금 노력해서 쉬는 것을 조금 미루고

가계부를 쓰면 나로 인해 우리나라 통계조사에 일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 바쁜 나라 살림을 계획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위대한 선택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이젠 나도 통계청 직원인양 TV에서 “이번 달 통계조사에 따르면...”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아! 어디선가 내가 쓴 가계부도 저렇게 통계에 쓰여 지겠구나! 싶어 아주 뿌듯하답니다.

항상 상냥하고 칭찬만 많이 해주는 통계청 언니, 신종바이러스가 유행인 요즘 언닌 사람과 사람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는 해피바이러스가 있는 거 같아요. 첨에 쌀쌀맞게 대했던 점 지면을 벌어 사과드리고요. 항상 감사하고 또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모든 통계조사원님들 횃팅!



# 나는 까칠 응답자다.

장 규석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대상사업체 : (주)웰포인트



또 통계청 직원이 왔다.

에휴. 귀찮아죽겠네. 생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난다.

매달 바쁜 일상 속에서 뜯금없고 어김없이 때때마다 찾아오는 통계청 직원이다. 이번에 또 직원이 바뀌었는지 생판 모르는 여자가 왔다. 조사가 싫으니 통계청도 싫고 당연히 통계청 직원도 싫다.

새로운 직원이 온 것도 달갑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새로 바뀐 직원은 인사 하자마자 줄줄이 질문을 해댄다. 연간조사도 있다면서 조사표 끙치를 꺼내며 부탁한다.

갑자기 다 귀찮고 나는 까칠해진다. 알았다는 한마디만 통명스럽게 하고서는 어서가라고 내쫓았다. 하지만 이 여직원은 갈 생각은 안하고 매달 해주는 광공업조사에 대해 물어본다. 신규직원이라 모르는 게 많다며 이것저것 꼬치 꼬치 캐묻는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통계청에 갖고 있던 수많은 불만을 토로한다.

정말 조사가 하기 싫다며 그동안 했으니 빼주면 안되겠냐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왜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똑같은 설명뿐이다.

조사표를 작성해주기는 싫었지만 우선 보내고 싶은 마음에 해주겠단 약속을 성의 없게 하고 만다. 조사표를 보기도 싫어서 그냥 한쪽에 밀어둔다. 진짜 귀찮고 하기 싫다.

나는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Connector 제조 전문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생산 구매 총괄 팀장 강규석이다. 처음에 통계청에서 당사를 방문하여 통계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조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 작성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생산부터 출하, 재고까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당연히 회사 일을 우선적으로 하며 통계청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데 통계청에서는 날짜만 되면 자료 부탁을 하여 시간과의 싸움이 많았다.

또 그 당시에는 직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된 수량 대비 수출/내수 판매 수량의 자료를 작성한다는 것이 나로서는 정말로 벅차고 힘들었다.

처음 통계청 직원이 당사를 방문했을 때 통계조사 작성은 매달 바쁘기 때문에 작성해주지 못하겠다고 거절했었다. 사실 이 통계조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나한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힘들게 해주고 싶지 않았다. 일에 비해 직원이 적은 상황이었던 터라 하던 일도 많은데 거기다 조사표 작성하는 일이 더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통계 자료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된다는 말과 불응하자마자 즉시 사장님께 공문을 드려 사장님의 지시로 조사를 해주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고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더 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통계청 직원에게 까칠해졌다.

매번 찾아오는 통계청 직원도 귀찮았고 통계조사 마감이라며 조사를 부탁하는 전화도 싫었다. 그래서 마감 날짜가 다가와도 다른 일부터 하느라 통계조사는 뒷전이었다. 통계조사 마감이라고 통계청 직원은 애가 타는 목소리로 전화나 방문을 했지만 나는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매번 조사표작성을 미루고는 했다. 통계청 직원이 하도 귀찮게 하고 해달라고 보채는 게 싫어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참고 조사표를 작성해서 보내주었다. 그러다보니 그달에 해야 할 조사 시기에 못해주고 마감을 넘기어 그 다음 달에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고 통계청 직원에게 더 까칠하게 응대하기도 했다. 그리고 민족도 조사를 해달라는 메일을 받았을 때도 모든 문항에 불만족이라고 답을 했다. 비고란에다가는 통계청에 대한 불만을 잔뜩 써서 보냈다. 나는 본래 까칠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나를 까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통계청 여직원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오자마자 피곤하고 힘들 때는 단 음식이 최고라면서 초콜릿을 건넨다. 당연히 조사표는 대충 해놓은 상태긴 했지만 통계청 직원은 조사표를 뒤적거리며 적지 않은 빈곳을 물어본다. 아예 자리를 잡고는 차근차근 설명을 한다. 귀찮았지만 조사표 내용을 그 자리에서 물어보니 ‘차라리 답해주면 전화는 안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답해주었다. 그런데도 직원은 돌아가서도 줄기차게 전화를 해댔다. 그리고 마감 전에 조사표를 보내달라고 부탁받았지만 나는 종전처럼 해주던 대로 자료를 마감 코앞에 주게 되었다.

직원은 찾아와 왜 마감 전에 꼭 조사표를 쥐야하는지 설명했고 그 다음 번에 찾아와서는 왜 통계조사가 필요한지 설명했고 그 다음 다음번에 찾아와서는 재고량이 맞는지 설명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 다음 다음번에 찾아와서는 구입이 맞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계속해서 찾아와 한가지씩 묻곤 했다. 통계조사를 해달라고 무작정 온 것보단 좀 더 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어떤지 좀 봐달라며 묻는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나와 대화라는 것을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준 자료가 약간 틀린 점이 있다며 자료작성을 다시 요청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주라는 데로 해줬을 뿐인데 왜 틀렸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직원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며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 모습에 약간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외근 나간 사이 방문을 한 통계청 직원을 10분이면 도착 할 줄 알고 기다리게 해 놓고선 한 시간을 넘기고 돌아왔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내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전 통계청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는 마음을 열게 된 것 같다. 통계청 직원들이 조사를 위해서 다 이렇게  
애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았고 대화를 원치 않았기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았  
기에 통계청 직원과 자료에 대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했었다. 그래서  
자료도 내 생각과 통계청에서 원하는 자료가 틀린 점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는 몰랐었다.

통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나? 내가 뭔가 혜택을 받지 않으면 그게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처음부터 통계청 직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통계조사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까칠한 응답자는 안됐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통계청 직원도 바쁘실 테고 내가 짜증을 부리거나 까칠하게 대하는 게 싫었겠지만 불평한마디 하지않고 방문하고 전화하는 걸 생각하면 각자의 일에 충실했던 것을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싫은 소리도 많이 했지만 당사에 찾아와 바쁜 내 모습을 보고는 통계청 직원도 날 이해했던 것 같다. 우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커넥터 회사로서 우리 회사만 제조하는 품목도 있고 나름 자부심도 크다. 그러면서 통계라는 것이 중요하단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창피할 따름이다.

매번 와서 똑같은 소리를 해대는 통계청 직원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 중요하다하는지는 이제야 알 것 같다. 매달 통계청 직원이 애 많이 쓴다는 것도 생각하고 통계청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에 생산/구매를 모두 총괄하다 보니 많은 업무량에 시간은 별로 없지만 자료 작성에 대해서는 가능한 마감 날짜에 맞춰 작성하여 발송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나라도 발전하고 당사도 발전하겠지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주위에 이는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당사처럼 매달 통계청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발송해 주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당사 협력업체에서 통계청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가 왜

필요한 지 설명도 해주고 꼭 작성해줘야 하는 거라고 권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나는 통계청 직원이랑 우리 집 이야기도 나눈다. 두 딸이 있는데 두 살 박이 막내 딸내미 덕에 웃고 산다는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이제는 까칠한 응답자가 아니다. 나는 친절한 응답자다.



# 외 침

이 혜정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더운 여름날의 끝자락을 잡고서. 우리 집에서 표본조사를 한다고 외치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 직원이죠.

사실 그 직원이 방문해서 홍보 팸플릿을 주면서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려던 통계청, 표본조사, 답례품 모든 단어들이 생소한 그 자체였습니다.

첫 대화는 이렇게 시작했지요.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인구조사 나온 직원입니다.”

“네. 누구요”

“통계청 직원입니다.”

“청계천요.”

“아뇨 통계청 직원요.”

“동사무소 직원이나 알지 나는 통계청 잘 모르니 다른 집에나 가 봐요.”

“사모님 잠깐 문 좀 열어 주세요. 제가 왜 방문했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다시 방문 하세요”하면서 일단락 매듭짓고 그 직원의 발길을 돌려보냈지요.

사실 난 그 직원이 다시 방문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직원의 뒷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했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귀찮다는 생각이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다음 날 또 방문하지 않았던가? 이번에도 그 직원은 첫 대화처럼 또 재잘거린다. 앵무새도 아니면서 어쩜 그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서 시작을 하는지? 말씨를하기엔 날씨도 그렇고 해서 어제의 약속도 있으니 들어오라고 했지요.

손에는 홍보 패플릿, 선물, 가계부, 인구조사 기록할 수 있는 용지, 필기구 등등. 웬지 모르게 복잡해 보였습니다. 순간 ‘내가 문 열어준 것이 실수한 건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찬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말 할 준비가 되었는지 홍보 패플릿을 주면서 부연설명을 시작으로 대략 30분 정도 설명하고 나더니 그 순간부터 였던가? 직원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대단했던 것 같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고 “몇 식구 사느냐”를 필두로 주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을 빠른 속도로 우리 가족사를 물어서 내가 대답하는 내용을 열심히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놀란 마음 가다듬고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고,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나의 오산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끝냈더니 이번엔 아까 설명 중에 들었던 가계조사를 부탁한다고 하더니 나보고 매일 매일 발생하는 가계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수입 · 지출에

대하여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 한꺼번에 많은 요구를 하는 직원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계부는 못 써주고 인구조사만 응하겠으니 이제 그만 나가 달라.”고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외침이 나의 경고처럼 들렸는지 침착했던 직원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직원은 나에게 “죄송합니다. 저의 일 욕심 때문에 사모님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제 입장에서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하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아닌가? 이런 태도가 내 마음에 들었는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계부 쓰기 싫다고 외쳤던 내가 직원의 모습에 반하여 쓰기 시작한 가계부가 이제 한 달만 더 쓰면 3년이 되고, 권수로는 36권, 시간으로 환산하고 싶지만, 나도 직원도 가계부에 정성을 쏟은 시간은 미지수이다. 나 자신조차도 단지 과거의 한 페이지로 기억에 남기겠지요.

### 가계부!!!

한 달 동안 열심히 적어 흐뭇한 마음으로 직원을 기다린다. 남편의 월급, 용돈 쓰임에는 결혼해서 가계부 쓰기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적이 없었지만, 가계부를 쓰면서 관심을 갖고 월급, 용돈 쓰임을 물어보면 싫어하는 눈빛이 역력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통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남편에게 열심히 질문을 던지는 배짱도 생기고.

가끔 남편이 주는 편찬을 이렇게 대처하지요.

“대한민국 아줌마는 공짜가 좋다.” 라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조사 해주고, 받은 각종 선물들을 훑어대곤 한다.

『머그 컵, 커피, 세제, 상품권』 등등.

그럼 남편은 “내가 그런 거 사주면 되잖아.” 하면서 반박을 하지만, 나의 등쌀에 못 이겨 항복하고 말지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가계부.

가계부는 어김없이 매월 1일 날 직원이 꼭 견으러 옵니다. 직원은 방문하기 하루 전에 꼭 전화 통화한 후 방문 약속을 지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마실 음료라도, 간식이라도 먹고 가라고 챙겨 주지만, 외출로 만나지 못할 것 같으면 직원과 나의 비밀 아지트에 가계부를 넣어 두면 항상 정확하게 겉어 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지난 번 걷어간 가계부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지요. 공과금 중에서도 전기세와 수도세는 옆집과 분리해서 적었는지, 자동이체에 추가된 내용이 없는지. 지금은 현물수입은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2009년 이전에는 가계부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친지나 이웃의 방문여부가 있는데, 현물수입이 없으면 혹시나 하고 물어보는 직원. 사실 오는 손님마다 각양각색 이어서 양손을 무겁게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하는 대답도 해 주고 싶지만 그냥 꾹 참고 맙니다. 가끔 직원이 너무 자세하게 질문 공세를 하면 혀끝에서 맴도는 단어가 있다.

## ‘사생활 침해’

이 단어를 외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통계를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참아내고 있다. 사실 내 자신과 약속도 있고, 직원과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내 양행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까지는 대전시의 평범한 시민으로 한사람의 아내로, 어머니로, 불리는 존재였던 내가 표본가구로 선정된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TV나 라디오에서 듣는 통계청 단어만 들어도 귀가 번쩍, 가슴이 한 근반, 두 근반 쿵당 쿵당 하면서 초등학교 시절 소풍가기 전날 밤처럼 가슴에 설렘이 가득 부푸네요.

내가 응답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부 기록으로 인한 가계조사, 가끔씩 숙제처럼 날아드는 부가설문지 조사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자료 중 나의 응답은 하나의 물줄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물줄기가 모여서 하나의 큰 강을 이루고 강은 어느덧 굽이굽이 흘러 바다에 만나듯이 우리나라의 표본가구에서 모아진 응답 자료의 내용이 발표가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겠지만, 가구에 방문 해서 면접하는 조사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응답자가 성실하고 진솔 된 마음 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통계청 표어처럼 통계는 알면 미래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방문하는 직원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면서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 전자가계부 적으면 부자가 되요!

이지은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경남 마산시 내서읍



따르릉~따르릉~ “관리사무소입니다. 통계청에서 000동 000호 전화 번호 좀 가르쳐 달리는데, 괜찮겠나요?” 오전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나는 영문도 모른 체 “네”라고 대답부터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요즘 유행하는 사기전화가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때는 이미 늦어 곧이어 전화 한통이 왔다. 통계청이었다. 통계청 담당자는 자신이 전화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집을 한번 방문하고 싶으니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엉겹결에 시간약속을 했지만 웬지 못미더웠던 나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통계청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그렇게 통계청 전자가계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계부와의 인연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처음 전자가계부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남편과 의논했다. 가계부에는 세대원들의 지출하나하나를 다 기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도움이 당연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오전에 통계청 담당자와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가계부 쓰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연히 오케이 사인을 기대하고 얘기를 꺼냈던 나는 예상외로 강하게 자신의 반대의사를 내비치면서 본인이 직접 내일 통계청에 전화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남편의 반대이유는 가계부를 통해 우리 집 경제사정이 드러나는 게 싫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남편의 성격을 잘 아는지라 더 이상 말하면 괜히 짜움이 될 거 같아 거기서 멈췄다.

나는 그렇게 가계부와 인연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땐 결혼한 지 3개월 된 새내기 주부여서 그랬는지 남편에 대한 용통성이 많이 부족했다. 결혼생활과 살림경력이 좀 있었다면 그런 것쯤은 눈치껏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통계청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날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다시 통계청 담당자와 만나서 가계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난 남편이 반대하는 걸 굳이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담당자도 이런 경우가 많은지 쉽게 물러서지 않고 계속 날 설득했다. 세상살이에 경험이 부족한 나로서는 끈질긴 설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린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남편 몰래 가계부를 쓰기로 결정했다. 물론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지만, 그렇게 라도 내가 쓴 가계부가 도움이 될 거 같다가에 나는 남편 몰래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편 몰래 가계부 쓰는 게 쉽지는 않았다. 급여 내역도 써야하고 남편 카드 내역도 써야하고 아래저래 장애가 많았다. 생활비를 받아쓰다 보니 내가 쓰는 생활비 내역은 기록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남편의 지출은 괴악하기 쉽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쓰다 보니 어느덧 남편의 지출내역도 스스로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눈치가 생겨 지금은 남편의 지출도 100%는 아니지만 80~90%의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결혼하면 가계부는 꼭 쓸 거라면서 결혼준비 할 때 가계부부터 구매했었다. 하지만 내가 쓰는 노트가계부에는 대충 대충의 금액과 최종지출 내역만 적어 지다보니 사실 그날 지출금액은 쉽게 알 수 있어도, 일일이 한 달 지출까지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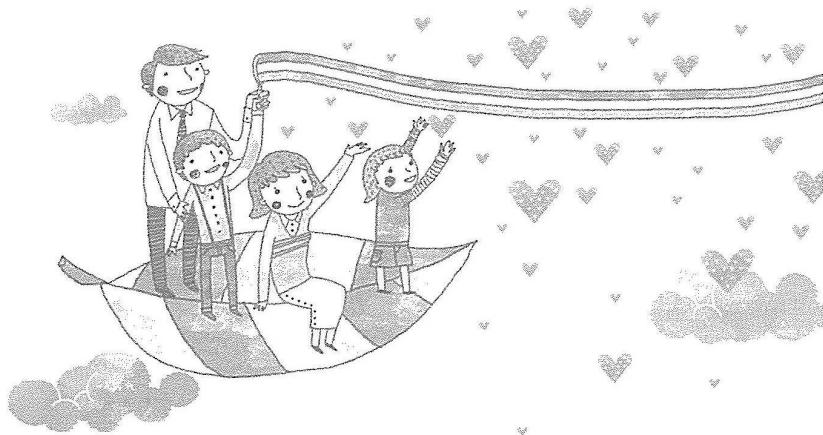
그리고 가계부를 쓴다 해도 영수증을 모아만 놓았지 다시 영수증을 꼼꼼히 본적은 없었는데 전자기계부를 쓰면서는 달라졌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목록을 입력해야 해서 조금 귀찮기도 하고 빠뜨리고 못쓰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물품 양에 대비해 가격까지 입력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제품은 어디가 싼지 비싼지 구분해서 장을 보려기는 습관이 생겼다.

아직도 남편은 전자가계부에 긍정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에게 하루일과를 이야기해주면서 지출내역도 함께 이야기해 가계부 쓰기에 협조를 잘 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가계부를 쓴다. 처음에는 단순히 쓰는 것에 집중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가계부 쓰기..... 나의 작은 습관이 통계조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하니 기분 좋은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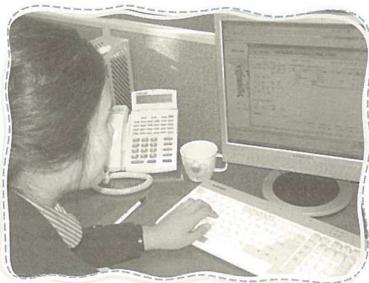
그리고 가계부를 써서 가장 기분 좋은 이유는 약간의 사례금이다. 나는 작은 사례금이지만 가계부를 쓰는 동안 기억될만한 곳에 쓰고 싶어서 지금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태아 보험료로 매달 내고 있다.

남들이 보면 웃을 수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작은 돈이지만 나에게는 알뜰 주부인척 생색내기에 딱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다. 오늘도 우린 10월 말 태어날 아가와 남편, 나 셋이서 상큼한 저녁시간을 보내면서...



# 전자기계부야, 반가워!

이 미 나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하루일과를 전자기계부 작성으로  
시작하는 나

어느덧 전자기계부를 작성한지도  
1년을 훌쩍 넘겨버렸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제일 먼저 시원한 물  
한잔을 마시듯, 난 컴퓨터를 켜자  
마자 전자기계부에 로그인부터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근 1년 동안  
전자기계부는 나날이 발전해 갔다.  
사용하기 그리 어렵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어져 갔다. 난 전자기계부를 시작페이지로  
설정 해 놓고 사용할 만큼 전자기계부는 내 경제적인 면에서 파트너가 되어  
버렸다.

사실 가계부를 사용하기 전, 난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편이었다. 한 달

한 달 가계부를 입력해 가면서 새삼 느낀 게 있었다. 지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담당자 언니도 내게 “처음과 달리 지출이 많이 줄은 거 같아요.”라고 할 정도이니, 가계부 효과가 내겐 너무 크다. 이젠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이 (나 혼자만의 경쟁이지만...) 가급적 전자가계부를 입력하지 않기 위해(?) 사실은 무지출을 이루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

전자가계부의 가장 큰 이점은 보고서가 아닌가 싶다. 내겐 그랬다. 가계부를 월 마감한 후 보고서를 보면 난 내 한달 가계에 대해 비교, 평가 할 수 있었고 현금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 덕에 자연스럽게 예산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습관을 갖게 되었다.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가계부.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가계부를 난 전자가계부로 인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재미를 갖고 열심히 가계부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돈 낭비를 줄일 것이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여러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하는 일 등, 난 전자가계부 작성을 계기로 통계청이 하는 일에 대해 새삼 알게 되었다.

처음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내가 사는 동, 라인이나 통계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 귀찮아!’ 사실적인 내 속마음을 담당자 언니에게 내비쳤었다. 언니는 화가 났을 법도 하지만 내 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생글생글 웃으며 내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이제는 언니와 나, 좋은 인연이 되어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한 만남보다는 사사로운 인연으로 잊은 만남을 갖게 되었고 난 적극적으로 가계부를 작성, 평가하게 되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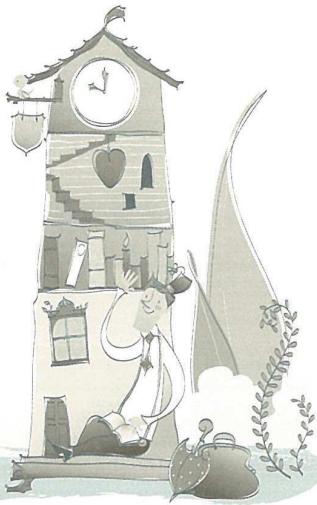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고 낯설기만 했던 통계조사 담당자 언니와 좋은 인연 까지 맷게 해준 통계청에 난 그저 감사할 뿐이다. 이 인연이 지금 한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일 거라고 믿는다.



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박주현 담당자와 함께

## 전자가계부의 매력

조 윤 희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어느 무더운 여름날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고 있던 중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약속도 없었고 방문할 사람도 없었는데 누굴까하면서 시간대로 보아 집 상인이나 교회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겠거니 생각해서 문을 열어 줄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 보았다. 어떤 인상 좋으신 여자분께서 인사를 하며 통계청에서 나왔다고 하셨다. 속으로 ‘통계청? 통계청이 뭐하는 곳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설문조사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하며 불편해 하던 찰나에 통계청 직원 분께서 나의 불편함을 눈치를 채셨는지 환한 미소로 통계청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조사에 응해줄 것을 부탁하셨다. 비밀도 보장된다고 말씀 하시기에 조금의 호감이 발동해서 조사에 응했다.

그리고 며칠 뒤 통계청 직원분께서 또 오셨다. 이 지역이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대상가구로 선정 되었다며 통계청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참여 해 줄 것을 부탁하셨다. 설명을 들어보니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4백 가구 이상의 대표가 우리 가정이 된다고 하시기에 약간 부담스럽고 귀찮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다고 했다. 그런데 또 가계부를 써야 한다는 말에 ‘아뿔싸!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2달은 종이가계부와 전자기계부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시기에 뒤후는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훨씬 귀찮은 일이 많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통계청 직원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라는 생각으로 가계부를 쓰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정석은 아니어도 나도 가계부를 쓰고 있는 중이였기 때문에 괜찮을 듯 했다.

통계청 직원분이 직접 오셔서 자세히 전자기계부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계좌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에 거리낌이 들기도 했지만 어차피 쓰기로 한 거 잘해보자 하는 마음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했다. 전자기계부는 가계부를 쓰려면 일부로 컴퓨터를 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해 보니 재미도 있고 생각보다 괜찮았다. 지난 달 지출내역이라든지 수입을 한 번에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분수도 있고 그래프로 나타내어 주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단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다음 달에는 무엇을 줄여야 할지 뭘 아껴 써야 할지 바로 볼 수 있어서 정말 효율적인 가계부 작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출내역을 품목별로 쓰니 물건의 가격도 비교할 수 있어서 약간의 물건 값들을 아낄 수가 있어서 가계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

처음 통계청 직원분이 오셨을 때에는 부담스러운 감이 너무 많았지만 지금은 통계청 직원분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내가 쓴 가계부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기분도 좋고 가계부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어서 좋고, 우리

가정의 경제에도 알게 모르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너무나도 좋다. 또 내가 모르는 것이나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통계청 직원분도 좋고 고맙다.

한 가정의 가계를 관리하는 우리 주부들에게 이런 효율적인 가계부가 보편적으로 확장되어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행복을 심어주는 가계부

오 인 수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강원도 삼척시 덕산리



전자가계부를 작성한 지 어느덧 두 해가 되었습니다. 처음 조사관님이 집을 방문하셨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통계청 직원이라며 가계조사니 경제활동인구 조사니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우리 가족은 모두 요즈음 만연한 공무원 사칭을 걱정을 하며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원은 며칠 뒤 다시 방문을 했고 엄격하신 아버지는 아예 문전박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최근 개인정보유출로 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이런 방문이 썩 달갑지는 않았고 그리고 보통 안 해본 것은 하길 싫어하는 습성이 있어 처음엔 우리 가족 모두 조사를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님의 여러 차례 방문해 설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하는 수 없이 일단 시작이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가계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조사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훌쩍 되어 버렸고, 이제는 아무 렇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거스름돈을 챙기듯 꼬박꼬박 영수증을 챙기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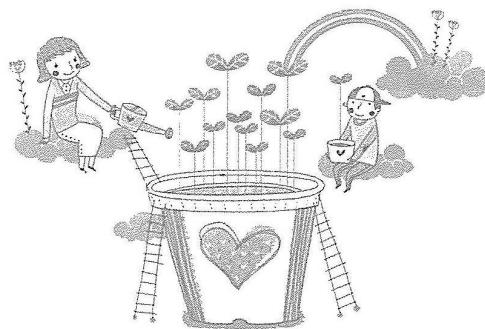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둘 다 말이 없는 편인데다 언젠가부터 어머니와 할 말이 없어 서로 대화를 잊은 채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인 신혼시절부터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가계부 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지만 저 자신은 가계부를 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가계부를 쓰기 전에는 어머니가 가계부를 쓰실 때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통계청 가계부를 쓰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레 이야기거리가 생기더군요. 어머니가 먼저 가계부를 쓰시면 저도 따라서 통계청 가계부를 꺼내게 되고, 어머니가 깜박 빠트린 것을 제가 챙겨주기도 하고, 제가 빠트린 것은 어머니가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가계부를 쓰며 하루 일과를 함께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가계부를 쓰다보니 그 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출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게 되더군요. 어머니가 말하지 않아서 몰랐던 집안 사정과 친척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물가가 너무 올라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다는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저도 씁쓸 이를 줄이게 되었고 작으나마 용돈을 절약해 어머니께 생활비에 보태라고 전하게 되더군요.

통계청 조사를 시작할 때 완강하게 거부하셨던 아버지도 요즈음은 어머니와 제가 가계부를 쓰고 있을 때면 옆에 와서 어깨 너머로 보시기도 합니다. 처음에 가계부를 쓸 때의 부담감도 어느새 사라지고 이젠 저의 일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조사원님은 우리가 적는 가계부가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고 정확한 자료가 우리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가계부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되었으며 가족간의 정이 생겼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족간의 정을 짹트게 한 것이 통계청 가계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제가 일계부를 함께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와 함께 가계부를 적고 있는 지금의 생활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함께 가계부를 쓰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가계부를 펼치며 돋보기를 찾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통계청 가계부를 찾습니다. 통계청 가계부는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심어준 소중한 씨앗입니다.



# 미래를 여는 꿈의 열쇠

서 은순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충남 논산시 연산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나른한 오후

“띵동, 띵동...” 벨이 울렸다.

낯선 여자의 얼굴이 대문밖에 있고 ‘무얼 팔려왔나?’ 싶은 생각이 앞서 문 열어봐야 더 귀찮기만 할 상황이 짐작되기에 아예 못 들은 척 아무도 없는 척이 순간을 넘기려는 순간, 통계청 직원이고 통계조사 때문에 나왔다는 목소리에 할 수 없이 대문을 열었다.

신분증을 내보이며 통계청에서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사 협조 부탁을 해왔다. 평소 텔레비전이나 다른 언론매체에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이란 두문으로 시작하여 보도되는 기사를 가끔씩 접하기도 했었다. 그럴 때 저런 자료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사되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막상 우리 집에 찾아와서 통계조사를 한다고 하니 머릿 속에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신분이 확실하다고는 하나 조사내용 자체가 학력이나 소득, 부채 등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들이 많고,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 또한 많은지라 신뢰할 수도 없는 낯설기만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답한다는 것은 참으로 껴림칙한 일이었다. 이런저런 의심들과 나중에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에 대충 인구조사를 마쳤다. 통계청이란 기관, 아니 통계 조사 공무원과의 처음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후로 매달 얼굴을 대하면서 나의 걱정은 점점 사라지고 나의 일상에서 한 부분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리 남편은 월급을 꼬박 꼬박 받아오는 셀러리맨이 아니다. 그렇다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아니다. 그저 건축현장에서 건축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돈을 받아오는 노동자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수입은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겨울철에는 일거리가 없어 소득이 없었다. 봄·가을이 되면 무척 바쁘게 많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 이렇게 생활이 일정하게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 가계부는 써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정의 생활이 어찌 돌아가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단지 머릿속으로만 한 달 학원비, 식비, 적금 등을 쪼개며 생활하던 형편이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통계청 공무원이 가계부를 기입해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수 밖에.....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계속적으로 찾아와 매번 가계부 기입을 부탁하는 직원의 모습과 답례품이라며 놓고 가는 선물을 받고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대략적으로나마 가계부 기입을 시도하였다. 약간은 억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계부란 걸 쓰고 보니 우리가정 생활의 이모 저모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 달이 지난 후 내가 잊고 있었던 조목조목의 생활비가 다 기록되어

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가...

가계부를 기입하기 전에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계산해서 내가 얼마를 썼는데 그 돈 어디다 썼느냐며 다투기도 했었다. 나름대로 아끼고 아껴서 생활 하던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가계부를 꼬박꼬박 기록하다보니 솔솔이 들어가는 생활비에 대해 답변할 자료도 생겼고, 지출의 원인을 규명하다보면 나름대로 큰소리도 칠 수 있었다. 이렇게 증빙자료를 남편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의 다툼은 없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남편은 생활비를 어디다 썼느냐고 묻지 않는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나만의 비밀무기로 남겨 두고 있다. 마음속으로 승리의 웃음을 지으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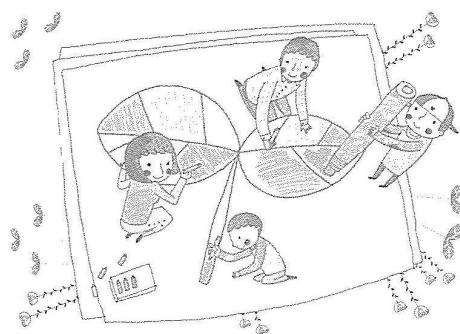
난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통계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이젠 통계청 공무원이 언제 어느 시간에 방문을 하게 되더라도 반가움에 문을 열게 된다. 일상에서 하나의 작은 기쁨을 느끼고 이젠 즐거운 마음으로 통계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아직도 이런 것들로 인한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외면할 것이다.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이지만 모든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활이 달라진다. 코앞에 닥친 불쾌감과 이기심으로 통계조사를 외면한다면 훗날에 찾아올 이런 일상의 즐거움이나 만족감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똑같은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응답자들의 천차만별인 응답 태도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 결국

조사는 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여 응답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한다. 어차피 응답해줘야 할 것이라면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한다면 정확한 통계, 믿을 수 있는 통계가 작성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이 사회와 우리나라의 통계발전에 밀거름이 될 수만 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기입하고 정확하게 응답하리라 다짐해 본다.

나 하나의, 우리 이웃의 작은 응답이 모여 미래를 여는 꿈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 태교로 시작한 가계부

권 미 옥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호~’ 하고 불면 입김이 뿐어져 나오던 겨울 문턱을 지날 쯤 처음 만남을 가졌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지난주에 들렀더니 안 계셔서 다시 방문했습니다.”

지난주 일이 있어서 친정 갔을 때 들렀던 모양이다. “아! 네~ 들어오세요.” 18개월 된 아들 녀석이 어지럽게 늘어놓은 장난감을 한쪽으로 치우며 말했다.

무슨 일일까? 경계하며 미주 앉은 자리가 그다지 편하지만은 않았다. 통계청에서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빌라가 조사 대상 지역이 되었다고 한다. 표본? 기뻐해야하나? 어리둥절했다.

그런데 표본 선정이란 단어가 싫지만은 않았다. 무슨 통계조사인가 했더니 가계부를 써 달라고 하신다. 결혼한 지 횟수로 3년차인 난 나름대로 가계부를 적고 있었다. 하지만 웬지 통계청에서 써달라는 가계부는 어려울 것 같았다. 내 생활을 드러낸다는 것도 조금 싫었고 두 달 후 태어날 아기를 낳으려 친정인

강릉에 가야해서 망설여졌다. 누가 쓴다 말인가.....

“전 힘들 것 같아요.” 라며 이유를 말씀 드렸다. “어려울 것 없어요. 집에서 쓰던 가계부를 일자별로 옮겨 적으시면 돼요.”라고 하셨다. 그리고 강릉에 가면 신랑이 대신 적어도 될 것 같다 하시며 나를 설득 시키셨다.

다시 생각해보니 나에게도 이득 될게 많을 것 같았다. 우선 태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임신했을 때 뇌와 손을 많이 쓰면 태교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었다. 그리고 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은 남편에게 영수증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표본으로 선정된 이상 열심히 써보리라 다짐하고 다짐을 했다. 내 방식 대로 쓰던 가계부랑은 다르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써야하니 처음엔 나도 힘들었다.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 일이 바쁠 때 귀찮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일주일 간격으로 찾아주시는 통계청 언니가 일일이 체크해 주며 수정해 주셔서 내색도 못했고 그리고 신랑에게 “나도 잘 모르는데 통계청 언니가 이렇게 하면 된데....”라 관심도 없는 신랑에게 가계부를 내민다. 며칠 간격으로 계속 신랑에게 보여줬더니 조금씩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자기도 영수증 꼭 챙겨와.” 라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날 쯤 우리 신랑이 변했다. 영수증을 꼭 챙겨오며 품목까지 이야기 해준다. 가끔 일주일치 영수증을 한꺼번에 내밀기도 하지만 대견하다.

통계청 가계부 덕분에 우리 신랑 꼼꼼히 영수증 챙기는 사람이 됐고 신랑

덕에 난 조금 더 편한 전자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5개월 된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전자가계부를 작성한다. 한 가정  
한 가정 찾아 다니시며 처음엔 냉대를 받으시지만 진심어린 설득으로 다가  
가시는 통계청 직원분들 힘내세요!



# 새로운 인연

손영자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경남 창원시 용지동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제대로 된 가계부를 적어 본 적이 없었다. 금방 싫증나고 그 날이 그 날이라 쉽게 넘어 가곤 했었다. 매년 12월 말이면 새해 계획에 포함 되곤 했던 가계부 적기와 다이어트하기.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건 이 두 가지 뿐이었다.

공과금과 식생활에 쓰이는 게 뻔히 보이는 지출이라 아예 포기하고 살다  
시피 했었다. 처음 얼마동안 가계부를 잘 쓰다가 귀찮아지고 며칠씩 미루다  
보면 지출의 용도로 생각이 안 나고 흐지부지 하게 되었다. 내 주위에 가계부  
작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집안 사정 때문에 무학아파트로 이사를 하던 날 통계청에 근무하는 장한기 씨를 만나게 되었다. 통계청이란 곳이 생소했고 여러 가지 각종조사를 하는지도 몰랐다. 처음에는 내키지도 않았고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많이 했었다.

팸플릿과 인사장 각종 자료를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전자가계부 작성 시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 된다는 소리에 의심도 했었고 귀찮다고 잠깐 느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영 가계부 적을 일이 없을 것 같았다.

나의 게으름에 반성도 하고 통계청의 이번 무학아파트 6동 표본조사구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두 달째 우리 집 가계부 흐름을 보면서 진작 끝까지 적어 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통계청 전자가계부의 편리성 효율성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우리 집 생활이 한 눈에 다 보이고 수입과 지출의 구분과 그 달의 식대비 병원비 각종 부과되는 세금 종류들을 파악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쓸데없는 낭비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준 통계청과 장한기씨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이런 기회와 나의 가정에 도움을 주고 나의 노력이 합쳐져 국가 통계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나라 경제와 우리 집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생활의 즐거움이 느껴지니 통계청의 가계부 쓰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

통계청의 장한기씨와 앞으로 유대강화를 더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조사 업무에 협조 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쉽게 생각했던 지출들을 지금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필요한 것만 메모지에 적어서 구입하고 있다 통계청 전자가계부의 인연으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 가정을 볼 수가 있어서 좋았다. 이름 뿐인 20년 고참주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나는 지금 살림꾼 아내, 알뜰한 엄마가 되어 가고 있다.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어가경제 조사 차 방문



김 창 선 | 여가경제 대상가구 :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내가 사는 곳은 천수만 안면도를 바라보며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는 보령시 천북면이라는 곳이다. 난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평생을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중년 신사 한 분이 서류봉투를 들고 집을 방문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어가경제 표본지역으로 천북면 학성리가 선정되었고, 학성리에서도 우리 집이 표본가구로 선정이 되어 방문했노라고 설명을 했다.

통계청이라는 곳이 어느 사설단체인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난 알 수가 없었다. 직원은 조사에 목적 등 기타 제반사항을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건성건성 대답을 하는 듯 마는 듯 했다.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 우리 집 이야기를 하자니 사생활 침해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세금만 잘 내고 법에 위배되는 일들만 하지 않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조용히 사는 게 다인 줄 아는 어촌 사람인  
내게 거창한 어가경제 운운하는 직원이 그리 탐탁지가 않아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다.

어가경제조사를 해서 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조사를 바르게 할지  
궁금했다. 몇 번씩 부탁하고 조사하는 목적 방법 내용들을 설명하고 돌아갔다.

며칠 후 통계청 직원은 다시 찾아왔다. 지난번 시큰둥했던 게 미안해서 직원을  
반갑게 맞아주며 마루에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자식  
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 주에는 무슨 일을 하면서 지냈는지 등 처음에  
거부감은 어디로 가고, 그저 정이 그리운 어촌 노인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고마웠다.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에 2회 정도 간격으로 방문이 계속되다 보니 우리 속내를  
다 알고 지내니 자식보다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다. 지역 특성상 오지이다 보니  
출장을 나왔다가 점심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때론 우리 먹는 밥에  
숟가락만 올려 점심을 함께 할 때도 더러 있다.

출장 올 때는 전화로 혹여 필요 한 게 있는지 물어오곤 할 땐 정말 고마움  
느낀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일년에 2~3회식 명절 때만 오고 돈이 필요  
할 때나 찾아오곤 한다. 품안에 자식이라고 키울 때만 힘들지 다 키우면 자기들  
스스로 큰 줄 안다.

답례품으로 주는 여러 가지 생필품 역시도 이곳은 오지라 사서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은데 한달에 한번씩 어떻게 필요한 걸 용케도 알고 갖다 주는지  
어떨 땐 정말 기다려지기도 하고 내가 적어준 일계부가 얼마나 도움을 줄까  
해서 미안할 때도 있다.

이 곳 사람의 살림살이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정책 자료로 된다는  
것이 기쁘고 텔레비전에서 뉴스시간에 통계청조사에 의하면 하는 뉴스가 나오면  
어깨가 으쓱 해지곤 한다.

참된 답변 올바른 통계만이 우리나라를 잘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자신 어촌에서 평생 거짓 없이 맡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 각자 거짓없이 살면 우리나라라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끝으로 조사 직원이 오면 시원한 보리차라도 한잔 주고 성실하고 거짓 없이 답변해 주어야겠다. 우리 이 곳 지역을 표본지역으로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만원의 행복

윤화자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매일 매일 아이들 학교 가고 난 후 약 1시간은 나의 시간이다. 물론 아줌마들의 빼놓을 수 없는 일과인 아침드라마 시간도 있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로움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거나 책을 잠깐 읽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어느 날 잠시 그 힘겨운 아이들과의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노곤하고 피곤하여 잠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언제나처럼 약속되어진 사람 외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집에서 가만히 있었다. 밖에서 몇 번의 초인종 소리가 지나가고 난 TV를 켜고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등산을 위해 부지런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는데, 문 앞에 웬 행정봉투가 놓여 있었다.

무심결에 집안에 집어넣고 난 등산을 다녀왔고 집안일을 마치고 오전에 우유 통에서 꺼낸 행정봉투가 궁금해 개봉해 보았다. 공문 한 장과 안내장 같은

것, 그리고 신세계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내용을 보니 통계조사차 방문 한 것과 통계조사에 협조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지만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조사해준다고 상품권을 준다지? 첫, 할 일 되게 없네.’ 집에 있는 전업주부라 무시하는 것이 기분이 나빠졌다. 난 그렇게 봉투는 던져놓고 상품권도 현관위에 잘 두었다. 다음에 누군가 또 와서 귀찮게 하면 돌려줄 마음이었다.

며칠이 지나니 이번에는 저녁 무렵에 통계청 직원이라며 또 찾아왔다. 마침 상품권을 돌려주고 싶어 문을 열어주었다. 대뜸 짜증이 확나서 상품권을 그 여직원한테 던져버렸다. “사람을 뭐로 알고 이런 미끼를 주면서 조사해 달라는 것이냐. 당신들 뿐데 남의 집 초인종 마음대로 누르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냐.”며 대차게 따져 물었다. 하지만 난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 얼른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팬히 말할 기회를 주면 웬지 내가 뭔가를 해줄 것 같아 서둘러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것이다.

솔직히 내가 팔랑 귀에 마음이 약해 항상 뭔가 사놓고 남편한테 통을 듣는 스타일 이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다.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몇 번 외치더니 그 여직원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고 미안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몰아친 것도 상품권을 던진 것도 그냥 조용히 말하면 될 것을……. 에고 이놈의 성깔. 쫓쫄…….’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지났을까 외출하고 다녀오니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요즘 세상에 웬 편지람.” 하면서 무심코 개봉해 보니 전화상품권과 간단한 내용의 편지가 적혀있었다.

통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며 방문한 목적 상품권을 드리는 이유 등 간단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보아 우리 집에 온 것이 날사기 치러 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통계청으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유사한 지식들이 있었다.

난 안심이 되었고 또 지난번 일이 미안해 담당자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편지 잘 보았고 내가 어떻게 조사해 주었으면 하느냐고 물으니 바로 우리 집에 방문하겠다고 해서 방문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안돼서 통계청 직원이 방문해서 조사를 해주었다. 지난번 일도 미안하다 했더니 이젠 만성이 돼서 괜찮다고 한다. 참 그런 일이 만성이 되다니 쉬운 직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가계부를 쓰는 조사가 있다면서 집에서 작성하는 가계부가 있냐고 물었다. 가계부는 써도 적자가 줄지 않아서 몇 년 전부터 작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니 자기도 가계부를 쓰지만 적자가 줄지는 않고 단지 기록이 남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했다.

자기도 나이가 먹다보니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몰라 애매할 때가 많은데 가계부를 쓰고 나서 그런 일은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계부 쓰는 집에는

선물도 상품권으로 매달 준다고 했고 생각해 보니 귀찮기는 하지만 손해 보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써보겠다고 했다.

가계부를 써보겠다고 놓고 가라고는 했지만 매일 매일 써야 된다는 부담에 갑자기 짜증이 나기도 했다. 마트에 다녀온 영수증은 그대로 가계부에 풀로 붙이고 시장 가서 돈 주고 산 것을 쓰려니 여간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어서 한두 번 쓰다가 가계부를 식탁에서 아예 밀어 놓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가계부 쓰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은지 묻는 안부였다. 생각해 보니 며칠째 쓰지 않은 가계부가 눈에 뛰어 또 써볼라 했지만 이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참 습관이 무서운 것 같다. 일기나 가계부는 매일 매일 기입해야 하는데 그래서 통계청 직원이 자기 전에 일기 쓰듯 쓰라고 했던 거구나 하고 생각이 났다.

하루 이틀 한 달은 정말 겨우 겨우 상품권 때문에 가계부를 써주었다. 정말 쓰기 싫어서 안 쓴다고 얘기하려고 하니 이번에는 우리 집에 떡을 사들고 오셨다. 웬 떡이냐고 물으니 맛있어 보여 사왔단다. 참 이렇게 남의 것을 받고 안 쓴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었고 조사를 해준다고 하지 말걸 후회하며 또 다음 달 가계부를 받고 말았다.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매일 매일 가계부 쓰는 게 귀찮지 않고 기록하는 일이 재미있기까지 했다. 매일 내가 열미를 사용했는지 카드를 너무 쓰는 것 같아 괜히 남편한테 혼날까봐 마음 졸이다가도

공과금 내는 날을 잊지 않으려고 가계부에 적어 놓는 게 생각나기도 하는 등  
의외로 가계부 쓰는 일은 나한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두 달을 기입하고 나니 전자가계부를 써보라고 했다. 어차피 나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전자가계부를 쓰면 현금으로 준다하니 마디할 이유도  
없었다. 더욱이 4만원에서 5만원 까지 차등 지급해 준다고 해서 더 잘 쓴다면  
5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자 했다.

프로그램을 깔고 사용설명을 들어보니 솔직히 까다로운 건 사실이지만  
오만 원을 생각하고 꾸욱 참았다. 5만원이면 애들하고 삼겹살 먹을 수 있고  
아님 우리 가족 영화를 한편씩 보고 커피 한잔 할 수 있으며 사우나를 가서 재미  
있게 피로를 풀 수도 있었다. 생각해 보니 5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게 너무나  
많아서 신났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좌등록은 하기 싫었는데 그 만원 때문에 해줬다.  
보안이 걱정되어 물으니 은행보안을 사용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고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말을 일단 짐짓하게 믿고 시작했다.

솔직히 카드내역을 가져오니 내가 정말 카드를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쓰는 내 씀씀이가 문제가 있어 보였고 남편은  
현금영수증을 많이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집에 앉아서 카드 사용내역  
현금 사용내역 다 뼠고 있으니 우리 가족이 내손 안에 있는 것 같아 좀 뿌듯  
했다.

그리고 보면 종이에다 쓰는 가계부 보다 인터넷으로 쓰는 가계부가 더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더욱이 예산을 설정하고 쓰는 것이 재미있었다. 식품비를 예산을 미리 설정해 놓으니 아주 유익했고, 낭비도 조금은 덜 하는 것 같아 통계청 가계부 쓰기를 잘한 것 같다.

더욱이 가계부를 다 쓰고 나면 한 달 있다 통장에 5만원이 들어오니 참 뿌듯했다. 내가 만일 인형 눈을 붙여 알바를 한다 한들 그렇게 들어올까?

허리가 끊어져라 눈이 빠져라 인형 눈을 붙여도 5만원 벌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었다. 생각해 보니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 인터넷 가계부를 써준 첫 달 들어온 돈을 아이들과 남편에게 주말저녁 낙지수제비와 파전을 시켜주었다. 맛있게 먹는 아이들과 계산을 남편이 아닌 내가 하는 게 신나고 남편 역시 뿌듯해 했다.

참 만원의 행복이 아닌 오만원의 행복이었다. 더욱이 우리 집은 외별이라 아이들 외식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이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엄마가 확실하게 쏜다는 게 참 기쁘고 행복했다.

통계청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동네도 가계부 안 써주는 집이 꽤 있다고 했다. 물론 처음에는 귀찮고 사생활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 껌껌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데 왜 조사해주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나고 기회가 생기면 우리 동네에 많이 알려주고 싶다.

오만원의 행복을 가지라고…….

# 다음 휴가는 어디로 갈까?

한 성 순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가계동향조사 표본가구로 가계부쓰기를 요청 받고는 난감했다.

가계부라면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두어 달, 그리고 결혼 후 꼭 한 달을  
쓴 후 접고는 다시 시작할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웬 가계부.....’

다시 두어 달이 흘렀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계부 쓰기를 거절하자 전자가계부  
매뉴얼 책자와 가구ID, 비밀번호를 포스트잇에 적고 통계청 직원이 다시  
찾아와 설명하고 갔다. ‘통계조사관님은 내가 마음이 약한 걸 어떻게 알고 들이  
미시는지.....’

은행 주거래통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ID를 등록해서 거래내역 가져  
오기를 하는데 처음 한 달을 하고는 어쭈~ 만만치 않은데 싶었다.

돼지고기를 사면 돼지고기 생육을 샀는지, 육류 가공품을 샀는지, 김치를  
사면 배추김치인지, 깍두기 등 기타김치인지, 빵은 식빵인지, 기타 빵류 인지.

학원수강은 입시를 목적으로 한 학원수강인지, 방과 후 빵빵이인지.

대형마트를 한 번 다녀오면 30여 가지 항목의 분류도 수월찮은 일이 거니와 돈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족 생활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보니 별로 유쾌하지 않았다. 주로 어디에 돈을 쓰는지, 가족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 가족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가 여실히 보여 지고 있었다.

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엄마이고,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 방과 후 자녀들을 학원 빵빵이를 돌리고, 보상심리로 한달에 한두 번 자녀들과 대형마트를 가고, 두어 달에 한번씩 영화를 보거나 실내놀이터를 간다.

자녀들에게 별로 군것질을 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알뜰하게 생활한다고 생각 했는데 의외로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 매번 눈에 띄었다. 대부분은 대형마트를 다녀올 때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어도 눈에 띄면 사는 것이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 우리 가족의 수입지출 내역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한 후 대형마트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가기 전 사야할 물품 목록도 미리 작성했다. 그리고 올 2월부터 매일 자투리 돈을 저금했다. 적게는 이~삼천 원부터 많게는 일만 원이 넘게... 6개월 후 여름휴가를 목표로 말이다.

포천에 사는 동생가족과 함께 강원, 경기일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복지카드 포인트를 몰아 항공권을 예매하고 자녀들에게도 두 달 전부터 휴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꿈에 부풀었다.

7월의 마지막 금요일, 뒤근과 함께 여행가방을 꾸려 가족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다음날부터 빡세게 일정을 잡고 한탄강 물놀이축제, 설악 워터피아,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랜드. 매일 아침 일곱 시에 기상해서 밤11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왔다. 워터피아는 가며오며 다섯 시간씩, 이동하는 데만 열 시간을 차 속에서 보냈다. 하루 다섯 시간이 넘는 물놀이를 하고도 아이들은 더하고 싶어 했다.

서울랜드를 떠나올 때 확성기 속에서 들려오는 “서울랜드는 여러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잊지 않겠다.”는 안내방송에 일곱 살 박이 아들은 서울랜드가 자기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며 “엄마 우리 다시 오자.”고 약속을 걸었다. 일 뒤에 여가는 소중하다. 가족과 함께 한 휴가는 더욱 그렇다. 아이들과 2년에 한번씩 가족휴가를 약속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은 쓰기 위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쓰기 위해.

가계부를 쓰면서 확고해진 것은 푼돈을 쓸 때보다 목돈을 쓸 때 즐거움이 크다는 것이다.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자투리 돈을 저축하며 비행기 예약번호를 확인할 때,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할 때, 놀이동산에 갔을 때의 기쁨은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피자를 배달시켜 먹을 때의 기쁨과 비할 바가 아니다.

올해는 내 집 마련을 계획했다.

계약서를 쓰고 보니 저축 목표가 더 늘었다. 아이들도 지원으로부터 촌지를 받으면 “엄마 이걸로 우리 집 사자.”며 저금하라고 준다. 코 묻은 돈이 얼마나 하랴 싶다가도 아이들 통장에 늘어가는 동그라미를 보며 나중에 ‘이게 네 학자금 이야.’라고 속말을 한다.

우리 아이들이 노력해서 버는 만큼 자기 자산을 지킬 줄 아는 아들, 딸로 자라나길 기대하면서 나는 오늘도 우리가족이 지낼 보금자리와 여름휴가를 저축하는 중이다.

애들아, 다음 휴가는 어디로 갈까?





편집인 | 김광섭, 김남훈, 김대호, 정희길, 정윤심,  
안병건, 안태현, 최 숙, 신명철, 이상엽,  
홍훈식, 정명자, 김유선, 윤민희, 심명은

발행처 | 통계청

발행인 | 통계청장

기 획 | 조사관리국

편 집 | 조사관리국

발행일 | 2009년 12월 29일

디자인 · 인쇄 | 강문인쇄기획

Tel 042) 256-4722